

『러시아·유라시아 연구』는 경북대학교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소 학회지로서 러시아 및 유라시아의 문학, 어학, 문화, 정치, 경제, 지역학 등 전반에 관한 연구논문, 서평 등을 연 2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논문투고 및 편집과 관련한 모든 문의 사항은 『러시아·유라시아 연구』 편집위원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소

·전화: 053-950-7301

·홈페이지: ires.co.kr ·온라인 논문투고: ires-journal.or.kr

·이메일: iresknu@gmail.com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인문한국진흥관 420호

Russian & Eurasian Studies is published twice a year by Institute of Russian & Eurasian Studies. The Journal is dedicated to the academic papers and reviews about Russian and Eurasian literature, language, culture, politics, economics, regional studies and etc.

Contribution and other editorial matters should be addressed to the editor of the journal.

Institute of Russian & Eurasian Studies

·Tel: 053-950-7301

·Homepage: ires.co.kr ·Contribution address: ires-journal.or.kr

·E-mail: iresknu@gmail.com

·Address: 420, Humanities Korea Bldg, 80, Daehak-ro, Buk-gu, Daegu

러시아 | 유라시아 | 연구

Russian & Eurasian Studies

Vol. 12. Oct. 2024

ISSN 2671-6054

경북대학교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소

Institute of Russian & Eurasian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러시아·유라시아 연구』 편집위원회 ■
경북대학교 러시아·유라시아연구소

편집위원장 _김민아(경북대, 러시아문화)

편집간사 _정지윤(경북대, 러시아어학)

편집위원 _권경준(성균관대, 러시아어학), 김정일(경북대, 러시아어학)
김태욱(충북대, 러시아문학), 서광진(경북대, 러시아문학)
이강은(경북대, 러시아문학), 이기주(안양대, 러시아문학)
이선우(전북대, 러시아정치), 홍택규(한림대, 러시아어학)
박노자(오슬로대, 한국사)
노나카 수수무(사이타마 대학, 러시아문학)
아나톨리 아프락신(상트-페테르부르크대, 철학)
유리 스메르친(쿠반국립대, 동양학)

■ *Russian & Eurasian Studies* Editors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Chief Editor _Kim Minn Ah(KNU)

Managing Editors _Jeong, Ji Yoon

Editors _Kwon Kyong Joon(SKKU), Kim Jung Il(KNU)
Kim Tae Ok(Chungbuk N.U.), Seo Kwang Jin(KNU)
Lee Kang Eun(KNU), Lee Ki Ju(AYU)
Lee Sun Woo(Jeonbuk N.U.),
Hong Taek Gyu(Hallym U.), Park No Ja(Oslo U.)
Nonaka Susumu(Saitama University)
Anatoliy Apraksin(Saint Petersburg State University)
Yuri Smertin(Kuban State University)

러시아 & 유라시아 연구

목차

| 문학 Literature

『악령』의 고백 서사 연구	1	이 선 영
알렉세이 카레닌의 용서에 관한 소고: 기독교적 용서와 그 실패	27	이 영 수
Sound Symbolism and Zaum': Transcendence through the Power of Sound	49	Lee, Tachun
The Sensual and Semantic Anointing in Andrei Platonov's <i>Chevengur</i>	73	Jung, Byungsam
Gogol's Colonial Empire	103	Kim, Eric

| 문화 및 지역학 Culture & Region

История и жизнь Корё-сарам центрального и южного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после 1904 года	127	Ко, Ен Чоль
Korean Settlers in the South of Russia: Practices of Economic and Socio-cultural Adaptation	145	Ракачев, В. Н.

Korean Studies in Russia: 163	Smertin, Y. G.
A Century and a Half-long Journey	

| 어학 Language

러시아어 완료상의 메타의미에 대한 연구 179	김 나 영
---------------------------	-------

| 서평 Book review

“공간과 시간 속에서 움직이는 몸처럼” 디자인을 수행하기: 199	정 지 영
『러시아 아방가르드의 이론과 실제: 카지미르 말레비치와 그의 학파』 서평	

| 부록 Appendix

연구소 규정 215

편집 규정 220

투고 지침 224

연구윤리 규정 230

러시아 & 유라시아 연구

목차

| 문학 Literature

A Study of Confessions in <i>The Possessed</i>	1	Lee, Sunyoung
Alexei Karenin's Christian Forgiveness and Its Failure	27	Lee, Young Su
Sound Symbolism and Zaum': Transcendence through the Power of Sound	49	Lee, Tachun
The Sensual and Semantic Anointing in Andrei Platonov's <i>Chevengur</i>	73	Jung, Byungsam
Gogol's Colonial Empire	103	Kim, Eric

| 문화 및 지역학 Culture & Region

History and Life of Koryo People in Central and Southern Regions of Russia since 1904	127	Ko, Young Cheol
Korean Settlers in the South of Russia: Practices of Economic and Socio-cultural Adaptation	145	Rakachev, V. N.

Korean Studies in Russia: 163	Smertin, Y. G.
A Century and a Half-long Journey	

| 어학 Language

A Study on the Meta-meaning 179	Kim, Na-young
of the Perfective Aspect in Russian	

| 서평 Book review

Design “like a body moving in space and time”: 199	Jeong, Jiyoung
A Review of <i>Russian Avant-Garde: Pioneers and Direct</i>	
<i>Descendants</i>	

| 부록 Appendix

Institute Regulations 215

Editorial Regulations 220

Contribution Guide 224

Regulations for Researchers 230

『악령』의 고백 서사 연구*

이 선 영**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악령』에서 대립 구도를 형성하는 두 편의 고백을 고찰한다. 『악령』에서 스테판과 스타브로킨의 고백은 내용상 각각 옳고 그름의 가치를 표방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쉬우나 그러한 구도를 전적으로 적용하기에 두 편의 고백은 몇몇 석연치 않은 지점을 내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요한다.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에서 고백 서사가 사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지하로부터의 수기』나 『온순한 여자』와 같이 왜곡된 고백을 하는 서술자의 수기 혹은 독백이 두드러진다. 이들 서술자의 발화는 표면적으로는 죄에 대한 고백이지만, 그 이면에 자기 잘못에 대한 교묘한 변명을 감추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인 발화는 죄에 대한 참회는커녕 과오에 대한 정당화로 이어져 고백에 계속될수록 오히려 회개와는 멀어지는 역효과를 야기한다. 도스토옙스키가 제시하는 왜곡된 고백은 독자에게 잘못된 본보기로 기능함으로써 자기 정당화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서술자의 과오를 답습하지 않도록 독자의 인식을 일깨운다.

『악령』에서 스타브로킨의 고백은 죄의 사함과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에게서 찾는 왜곡된 고백의 전형이다. 이에 반해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의 고백은 일련의 비극적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뉘우치는 규범적인 고백의 전형이다. 그러나 스테판이 곧 임종을 맞음으로 인해 그의 고백은 관념적 차원에 그치고 말았다는 한계를 내포하게 된다. 도스토옙스키의 작품 속 왜곡된 고백 서사의 특징을 고려하면 독자의 인식 전환을 촉발하는 스타브로킨의 고백에서 유의미함을 도출해낼 수 있다.

주제어 : 도스토옙스키, 『악령』, 고백, 스테판, 스타브로킨

*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이선영, 『도스토옙스키의 『악령』과 서사윤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4)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 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강사, applecat512@gmail.com

I. 서론

『악령(Бесы)』에서 스테판과 스타브로긴의 상반된 행보를 통해 두드러지는 고백의 테마는 도스토옙스키(Ф. М. Достоевский) 작품의 주요 모티프이다. 도스토옙스키의 대표작 중 고백 장면이 등장하지 않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지하로부터의 수기(Записки из подполья)』와 『악령』에서는 루소의 『고백(Les Confessions)』이 직접 언급되고, 『죄와 벌(Преступление и наказание)』에서는 라스콜리니코프가 소나 앞에서 살인죄를 고백한다. 『악령』에서는 스테판 트로피모비치가 소피야 마트베예브나 앞에서 과오를 뉘우치고,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Братья Карамазовы)』에서는 드미트리야 알료샤 앞에서 지난날의 잘못과 그릇된 욕망을 털어놓는다. 『백치(Идиот)』에서 생애 저지른 가장 추악한 잘못을 과시하는 프티조 게임도 고백의 변형이며, 『미성년(Подросток)』의 경우 소설 전체가 고백의 일종으로 읽힌다.¹⁾

그중에서도 특히 『악령』에 등장하는 두 편의 고백은 고백 서사의 양극단을 예시함으로 인해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속 고백 모티프를 고찰함에 있어 주목을 요한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의 고백과 스타브로긴의 고백은 내용의 측면에서 볼 때 규범적인 고백과 왜곡된 고백을 각각 대표한다. 스테판의 고백은 죽음을 앞두고 지난 잘못을 성찰하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고백인 반면, 스타브로긴의 고백은 참회를 가장한 거짓 고백이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가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에나마 구원에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에 그의 고백은 옳음의 가치를 부여받는다. 일레로 밀러(R. Miller)는 스테판이 임종을 앞두고 진정한 회개의 순간을 맞았다고 본다.²⁾ 고백에 뒤이은 스테판의 죽음은 그가 실질적으로 삶의 방식을 변화시켰는지를 논할 여지 없이 그에 대한 선한 회개자의 인상만을 남겨둔다. 그의 대척점에는 온갖 추잡스럽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일삼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스타브로긴이 자리한다.

1) Miller R. "Rousseau and Dostoevsky: The Morality of Confession Reconsidered", *Western Philosophical Systems in Russian Literature*, edit. Milkotin A. (Los Angeles: Univ. of Southern California Press, 1979), p. 91.

2) Miller R. "Dostoevsky and Rousseau: The Morality of Confession Reconsidered", *Dostoevsky: New Perspectives*, edit. Jackson R.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84), p. 84.

그러나 스테판과 스타브로긴의 고백을 전적으로 옳고 그른 고백의 대립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지점들이 존재한다. 티혼 신부는 스타브로긴의 고백에 담긴 충격적인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와 그의 고백에서 일말의 가치를 부여하는 발언을 덧붙인다. “따귀와 침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이 형식에조차도 승산이 있습니다”(11: 27).³⁾ “고통과 자기희생에 대한 열망이 그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대의 그 열망을 길들이십시오”(11: 29). 스테판의 고백에 대해서도 이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의 마지막 행보가 회개의 인상을 자아낸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고백에 전적으로 옳음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주저한다. 가령 데이비드슨(R. Davidson)은 스테판이 발전적인 인물임에는 동의하지만 그는 구원에 가까이 다가갔을 뿐 구원을 받지는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가 결국 ‘스파소프(Спасов)’라는 지명으로 상징되는 구원의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⁴⁾ 크라벤스(C. Cravens) 역시 스테판 트로피모비치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교 사상을 회복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진정한 회개라 보기엔 모호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작품 어디에서도 스테판의 고백을 회개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⁵⁾

본고에서는 『악령』의 고백 서사에 대해 제기되는 위와 같은 의문점에서 출발하여 두 편의 고백을 변증법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고백 서사 연구에서 『악령』이 주목받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출간을 저지당했을 정도로 파격적인 내용을 담은 스타브로긴의 고백으로 인해서이다. 본고의 논의는 이 지점에서 시작한다. 왜곡된 고백 서사는 도스토옙스키의 다른 작품에서는 소설 전체의 서술적 특징으로 사용되기도 할 만큼 작가에게 있어 주요한 모티프였다. 그렇다면 우선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에서 왜곡된 고백 서사가 전면에 등장하는 경우를 살펴본 후 이어서 『악령』의 고백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3) 도스토옙스키 저작 인용은 30권 전집(Достоевский Ф. М.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30 томах (Ленинград: Наука, 1972-1990))에 준하여 괄호 안에 권수와 쪽수로 표기한다.

4) Davidson, R. “Dostoevsky’s The Devils: The Role of Stepan Trofimovich Verkhovensky”, *Dostoevsky’s The Devils: A Critical Companion*, edit. Leatherbarrow, W. (Evanston: Northwestern Univ. Press, 1999), pp. 121-129.

5) Cravens, C. “The Strange Relationship of Stavrogin and Stepan Trofimovich as Told by Anton Lavrent'evich G-v”, *Slavic Review*. No. 59 (4), 2000, p. 798.

II. 본론

II.1. 왜곡된 고백과 비판적 독해

논의를 시작하면서 도스토옙스키 소설의 고백 모티프를 내용과 형식 차원으로 나누어보고자 한다. 내용상으로는 고백을 통해 거듭남의 계기를 얻는 경우와 참회를 위시한 거짓 고백을 하는 경우로 나뉜다. 『죄와 벌』의 라스콜리니코프,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드미트리가 전자에, 『지하로부터의 수기』의 지하생활자, 『악령』의 스타브로킨이 후자에 해당한다. 형식상으로는 1인칭 서술자로서의 고백하는 서술자가 수기를 써내려가는 경우가 두드러진다. 『지하로부터의 수기』, 스타브로킨의 「고백」, 「온순한 여자(Кроткая)」가 대표적이다.

나열한 예시를 통해 확인되듯 왜곡된 고백의 경우 고백하는 글이나 말을 내어놓는 1인칭 서술자가 두드러진다. 그로 인해 서술자의 내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서술자와 독자 간의 거리는 좁혀진다. “1인칭 서술의 한 방식인 고백은 청중과 인물 간의 허구적 간극을 줄이거나 생략시켜 삶과 예술, 독자의 경험과 발화자의 경험이 같은 층위에서 병치되도록 함으로써 청중과 인물 사이의 매우 실질적이고 정서적인 유대 형성, 혹은 심지어는 양자의 동일시에 기여할 수 있는 정교한 전략이다.”⁶⁾ 고백하는 서술자의 내밀한 발화는 독자로 하여금 허구적 층위보다는 실제적 층위에서 그의 발화를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그런데 왜곡된 고백은 독자와 서술자의 거리가 지나치게 좁혀진 나머지 자칫하면 독자가 잘못된 예시를 그대로 수용할 위험성을 내포한다. 이 때문에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에서는 독자가 왜곡된 고백에 내재하는 모순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는 표지가 등장한다. 작가의 언질로 인해 독자는 왜곡된 고백과 그 서술자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사유해볼 수 있게 된다. 특히 작품 전체의 서술이 고백 서사의 변형인 『지하로부터의 수기』와 「온순한 여자」에서 이 같은 양상을 확인해볼 수 있다.

지하생활자의 독백으로 전개되는 『지하로부터의 수기』가 왜곡된 고백 형식에 대한 패러디임은 루소의 『고백』에 대한 지하생활자의 직접적인 비판

6) Stelzig, E. “Poetry and/or Truth: An Essay on the Confessional Imagination”, *University of Toronto Quarterly* 54.1 (1984), pp. 18-19.

을 통해 암시된다. 루소의 『고백』은 참회를 위시한 자기변명, 나아가 자기 과시의 전형으로 이후 도스토옙스키 작품에서 다양한 형태로 반복 변주되는 모티프이다. 작품 초반부에서 루소식 고백을 비판하는 지하생활자의 목소리는 작가의 목소리와 중첩된다. 그 결과 독자는 자연스럽게 서술자의 고백을 신뢰하게 된다.

어쨌든 나는 최근에서야 지난 모험들을 회상해 보기로 자발적으로 결단내렸다. (...)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만큼은 어떤 진실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적으로 솔직해질 수 있을까? 말이 났으니 언급해둘 것이 있다. 하이네는 신뢰할 만한 자서전이란 사실상 불가능하며,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확신한다. 그에 따르면 예컨대 루소는 자신의 고백에서 분명 거짓을 말했으며, 심지어 허영심으로 인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나는 하이네가 옳다고 확신한다. 나는 때로는 그저 허영심 하나만으로 죄를 전부 뒤집어쓸 수도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으며, 심지어 그 허영심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도 아주 잘 이해한다. 그러나 하이네는 청중들을 앞에 두고 고백하는 사람에 대해 논한 것이다. 반면 나는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쓰고 있으며, 만약 나 역시 독자들에게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하더라도 그것은 그저 내가 좀 더 쉽게 쓰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바이다. 이것은 형식, 그저 껍데기뿐인 형식이며, 내게 독자는 없을 것이다. 나는 이미 이런 선언을 했었다...(5: 122).

지하생활자는 루소의 『고백』이 참회가 아닌 변명과 자기과시라는 점을 청자의 존재와 연결 짓는다. 그에 따르면 청자를 의식하는 고백은 허영심이 깃든 자기 과시이므로 결코 참된 고백일 수 없다. 그러나 자신의 고백은 청자를 요청하는 형식만을 취할 뿐 실제로는 청자에게 공개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진실된 고백이라고 지하생활자는 주장한다.

그러나 작품이 전개될수록 지하생활자가 루소의 고백이 지닌 문제점을 답습함으로 인해 독자는 점차 그와 거리를 두게 된다. 이때 고백의 진정성이 화두가 된다. 루소의 『고백』에서는 진정성이 관건이다. 그리고 모든 치부를 얼마나 남김없이 솔직하게 밑바닥까지 드러내어 보이느냐가 진정성의 기준이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사람들 앞에 수치스러운 과거를 내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거듭남의 의지가 강하다는 의미로 간주된다. 이 메커니즘에서는 고백하는 사람이

느끼는 수치심이 충분히 커야 죄를 용서받을 자격이 그에게 부여된다. 루소는 이 논리에 따라 회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은밀한 과거 행적까지 독자 앞에 낱알이 공개한다. 루소가 표방하는 진정성이라는 기준은 꽤 설득력 있어 일각에서는 『고백』을 참된 고해로 받아들일 정도이다.⁷⁾

그러나 루소의 말이 회개가 아닌 변명이라는 점은 그의 발화에 내재하는 이중성에 반영되어 있다. 콧시(J. Coetzee)는 루소의 말에 은닉된 진의를 논하며 루소가 사과를 훔친 일을 고백하는 대목에 천착한다. 루소는 돈은 탐나지 않았지만 과일은 탐났기 때문에 도둑질을 했다고 고백한다. 그는 자신이 원한 것은 그저 사과였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콧시는 사과는 사실상 돈과 같은 가치를 지니므로 루소는 그만큼의 돈을 훔친 것이나 진배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 구도를 『고백』에 적용한다. 자신의 치부를 공개하는 것이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변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라는 루소의 말은 그가 치부를 적나라하게 공개할수록, 수치심을 뼈아프게 감수할수록 신뢰를 얻는다.⁸⁾ 그가 더 큰 수치심을 원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상 수치심을 얼마나 무릅쓰느냐가 고백의 가치를 좌우한다.⁹⁾ 루소에게 있어 청자는 회개하는 그의 위신을 높여주는 수단에 불과하다.

앞선 인용문에서 지하생활자가 루소를 비판한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였다. 루소는 청자를 염두에 두고 있으므로 결코 솔직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하생활자는 자신의 고백은 청자를 요청하는 형식만을 취할 뿐 그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을 것이므로 루소의 고백보다 진정성 있고 우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타인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지하생활자의 주장은 그 자신에 의해 반박된다. 지하생활자는 끊임없이 ‘여러분(господа)’을 외치고, 자신의 말에 대한 상대의 반응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답을 미리 내어놓는 등 루소 이상으로 청자를 기민

7) 일례로 사회학자 벨하우스(M. Bellhouse)는 수치심을 무릅쓴다는 점에서 루소의 고백을 라스콜리니코프의 고백보다도 우위에 둔다. Bellhouse, M. “Hearts and Minds: The Confessions of Rousseau, Raskolnikov, and the Underground Man”, *Canadian Journal of Political and Social Theory* 10.3 (1986), p. 91.

8) 루소는 『고백』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영원한 존재여, 내 주위에 수많은 내 동포의 무리를 불러모아, 그들이 내 고백을 듣고 나의 천함에 소리 높여 부르짖고, 나의 한심스러움에 얼굴을 붉히도록 해 주시오. 그리고 이번에는 그들 하나하나를 당신의 왕좌 밑에 나와 똑같은 성실성을 가지고 자기 가슴 속을 드러내 보이도록 해 주시오.” 장 자크 루소(김봉구 옮김), 『고백』 (서울: 박영출판사, 2005), 10쪽.

9) Coetzee, J. “Confession and Double Thoughts: Tolstoy, Rousseau, Dostoevsky”, *Comparative Literature* 37.3 (1985), pp. 210-212.

하게 의식한다. 이렇게 가상의 청자에게 변명하기 급급한 고백이 자기반성으로 이어질 리 만무하다. 그가 지하에서 홀로 글을 써내려가는 수기는 자기변명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착되어 간다. 그의 수기는 자신이 지하 골방에서 시답잖은 글이나 쓰는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한 변명으로 점철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지하생활자는 자기가 폭로한 『고백』의 작동 원리를 그대로 따른다는 바로 그 점으로 인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 패러디의 대상이 된다. “자신의 고백은 공개적인 고백이 아니라 사적인 고백이라고 강조하며 논점을 옮기려는 지하생활자의 시도는 ‘루소식’ 고백의 기저에 자리한 긴장, 즉 고백하는 사람이 채택한 수사적 형식에 반영된 ‘자아’와 ‘타자’ 간의 내적 논쟁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¹⁰⁾ 루소와 지하생활자는 모두 청자를 의식한 거짓 고백자이다. 지하생활자가 홀로 글을 써내려간다 하여 그 고백에 내적 논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하생활자가 독자에게 글을 내보이지 않을 것을 확인함으로 인해 그의 고백이 내적 논쟁에 다름아니라는 사실이 오히려 강조된다. 루소의 『고백』에서는 이중적인 서술 양태가 형식은 청자를 향해 공개적이며 작동방식은 은밀했다면, 지하생활자의 고백에서 그 작동 방식은 보다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지하생활자의 말이 계속되고 그의 과거 에피소드가 점차 소개될수록 독자는 그의 말이 자의식에 갇힌 자의 말임을 알아차리고 서술자와 거리를 두게 된다. 설령 독자가 이를 간파하지 못했을지라도 작품 말미에 지하생활자의 서술 층위 바깥의 목소리가 등장하면서 독자와 서술자 사이의 간극은 급격히 벌어진다.

그러나 이 역설주의자의 ‘수기’는 아직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는 참지 못하고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춰도
될 것 같다.(5: 179)

바깥의 목소리가 개입하여 강제로 수기를 끝냄으로써 어떤 독자라도 지하생활자로부터 거리를 두고 그의 말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지하생활자의 말을 단호하게 일축하는 새로운 목소리는 서술자에 대한 비판적 바라보기를 가능케 한다. 수기가 끝날 무렵까지도 지하생활자의 말에 동조했던 독자라 하더라도 서술자의 이중 발화를 일찍 간파하지 못했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독자가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했을수록 서술자 바깥에 위치하

10) Howard, B. “The Rhetoric of Confession: Dostoevskij’s Notes from Underground and Rousseau’s Confessions”, *SEIJ* 25.4 (1981) p. 29.

는 작가의 목소리를 들을 때 느끼는 괴리감은 극대화되어 서술자의 고백이 독자를 일깨우는 효과는 더욱 커진다.

이와 같이 도스토옙스키가 왜곡된 고백 서사를 도입함에 있어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 조정을 통해 독자의 인식 전환을 유도한 양상은 「온순한 여자」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온순한 여자」는 어느 남편이 자살한 아내의 주검을 앞에 두고 지난날 아내에게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는 고백의 형식을 띤다. 그러나 서술자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그가 가벼운 잘못을 표면적으로 인정하면서 진짜 죄는 교묘하게 숨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¹⁾ 도스토옙스키는 서술자의 고백이 변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서술자의 말이 시작되기에 앞서 서문 ‘작가로부터’에서 예고하여 독자가 애초부터 서술자와 거리를 두도록 만든다.

점차 그[서술자]는 스스로에게 그 사건을 실제로 납득시키면서 “생각을 한 점으로” 모은다. 그가 불러일으킨 일련의 회상이 마침내 그를 불가항력적으로 진실로 끌고 간다. 그 진실은 불가항력적으로 그의 이성과 감정을 일깨운다. 끝으로 가면 이야기의 어조마저도 두서없던 초반부에 비해 달라진다. 진리가 이 불행한 사람 앞에, 적어도 그 자신에게는 꽤 명료하고 확실하게 드러난다.

바로 이것이 주제이다. 물론 이야기는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산만한 형태로 드문드문 이어진다. 그는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청중이나 어떤 판사 앞에 있는 듯이 말한다.(24: 5)

서문에서 제시되는 소설의 결말과 주제는, 백비(L. Bagby)가 지적하듯, 독자를 작품 해석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킨다. “도스토옙스키는 도입부에서 인과관계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독백이 시작되기도 전에 독자들을 문제의 해석에 참여시킨다. 서술자와 그의 독자들은 일어난 일에 대한 해석을 사실상 동시에 시도한다.”¹²⁾ 작가가 서술자의 고백이 흘러갈 방향을 미리 알려줌으로 인해 독자는 서문이 아니었다라면 서술자 발화의 진위여부를 파악하는

11) 「온순한 여자」에서 서술자가 자신의 잘못을 교묘히 변명해나가는 양상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이선영, 「도스토옙스키의 「온순한 여자」와 자살의 문제」,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75 (2021).

12) Bagby, L. *First Words: On Dostoevsky's Introductions* (Boston: Academic Studies Press, 2015), p. 134.

데만 기울였을 주의력을 서술자의 왜곡된 고백 그 자체에 기울이게 된다. 작가는 그 과정이 작품의 ‘주제’라고 명시하고 있다. 독자는 서술자가 고백을 거치며 아내의 자살에 자신의 정서적 학대가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진실을 알게 되면서도 끝내 그것을 외면하는 양상에 주목하게 된다.

이처럼 왜곡된 고백이 제시되는 경우 독자는 규범적인 고백을 접했을 때에 비해 복잡한 사고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이 독자에게 요구되어야 하는 이유는 위의 두 서술자를 통해 확인된다. 지하생활자와 「온순한 여자」의 서술자는 모두 자기변명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하로부터의 수기』에서 작품 말미에 작가의 목소리가 개재하여 지하생활자의 변명이 끝없이 울려 퍼질 것임을 알려준다면, 「온순한 여자」에서는 서술자가 회상의 말미에 이르러 끝내 사태의 원인을 자기 자신이 아닌 비극적 운명의 탓으로 돌림으로 인해 그에게는 거듭남의 여지가 없을 것임이 암시된다. “관성이여! 오, 자연이여! 지상에서 인간은 혼자다, 이것이야말로 불행이다!”(24: 35) 그는 ‘관성’이라는 표현을 통해 아내에게 저지른 잘못이 자기 습성상, 또한 상황상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변명한다. 이는 고백의 과정이 그에게 뉘우침의 계기가 되기는커녕 자기 잘못을 정당화하는 역효과를 냈음을 보여준다. 진실을 어렵게나마 알고도 외면하는 서술자의 거짓 고백은 지하생활자의 경우와 같이 가상의 청자를 향해 개선의 여지 없는 동일한 형태로 울려 퍼질 것이다.

즉, 이들의 발화는 참회로 귀결되어야 하는 고백이 자기변명의 수단으로 전략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처럼 고백이 쉽게 변질되는 것은 고백 서사 본연의 특징에서 기인한다. 고백의 형식은 그 자체로 대화성을 내포한다. 고백은 홀로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본래 고백을 듣는 상대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confession’의 라틴어 어원에서 알 수 있듯 ‘con’은 ‘함께’라는 뜻을, ‘fateri’는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며 이에 따라 ‘confession’은 ‘함께 말한다’는 의미를 지닌다.¹³⁾ 고백은 독백이 아니다. 고백의 의미는 나의 죄를 털어놓는 행위에 더해 신 또는 신의 대리인을 청자로 하여 그 앞에서 죄를 털어놓는 과정에서 죄를 회개하고 반성하는 데 있다.

그러나 고백하는 사람에게 회개보다는 자기변명의 의지가 더 강할 경우

13) Conybeare, C. *The Routledge Guidebook to Augustine's Confessions* (NY: Routledge, 2016), p. 2.

그가 상정하는 대화 상대는 신 또는 신의 대리인이 아닌 자기변명을 위한 가상의 청자로 대체되기 쉽다. 이때 고백은 자기변명의 의도를 은닉한 이중적 발화로 변질된다. 바흐친(M. M. Бахтин)의 다성악 개념을 적용하면 왜곡된 고백의 말은 하나의 말에 여러 목소리가 개재하는 유형 중 하나인 ‘논쟁적으로 채색된 자서전과 고백(полюмически окрашенная автобиография и исповедь)’에 해당한다.¹⁴⁾ 잘못을 뉘우치는 듯 보이는 고백의 이면에는 기실 자신을 비난할 말들에 대한 변명이 자리 잡고 있다. 이 경우 고백은 스스로의 과오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는커녕 자기 정당화를 고착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심지어 고백이 계속될수록 자기변명과 정당화라는 잘못된 인식의 틀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결국 일그러진 고백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길은 고백하는 사람 스스로가 고백의 청자와 고백의 목적을 바로잡는 것뿐이다. 즉, 고백을 자기변명이 아닌 회개로 만드는 것은 고백하는 사람 그 자신에게 달려 있다.

도스토옙스키가 왜곡된 고백을 하는 서술자를 내세웠다는 것은 고백 서사에 대한 비판적 독해를 계기로 하여 독자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작품의 주안점이 있음을 방증한다. 왜곡된 고백은 규범적인 고백보다 파격적인 내용으로 독자의 관심을 끈다. 독자는 고백을 통해 드러나는 서술자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그가 자기 잘못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음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임을 알게 된다. 물론 왜곡된 고백 서사가 독자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도스토옙스키는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고백 행위에 대한 독자의 비판적 사유를 유도하기를 택했다. 분별없는 고백 서사에 내재하는 문제는 스타브로킨의 고백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II.2. 스타브로킨과 루소

도스토옙스키는 스타브로킨의 「고백」에서 루소와의 연관성을 명시하여 고백 행위에 대한 독자의 비판적 사유를 유도한다. 「고백」의 초반부에서부

14) “자서전이나 고백 유형의 1인칭 서술(Ich-Erzählung) 형식에 내재한 논쟁이 형성하는 스타일적 의미는 지대하다. 루소의 『고백』을 지칭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Бахтин М. М. *Проблемы поэтики Достоевского* (М.: Советская Россия, 1979), с. 228.

터 루소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고¹⁵⁾, 바로 뒤이어 『고백』의 유명한 대목인 마리옹 에피소드의 변형이자 스타브로킨의 「고백」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인 마트료샤 이야기가 이어진다. 마트료샤 이야기는 실제로 편집자 카트코프(М. Н. Катков)가 출판을 저지했을 정도로 끔찍함을 자아내는 내용으로써 고백 행위 자체로 죄가 용서되는 것인지에 대한 독자의 물음을 불러일으킨다.

스타브로킨은 루소처럼 죄의 사함을 자신의 고백 행위 그 자체, 그 진정성에서 찾음으로 인해 인식의 폐쇄성을 공고히 한다. “왜죠? 저는 진정성 있게(искренно) 썼습니다”(11: 23). “저는 스스로를 직접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게 저의 주요한 목적이자 제 목적의 전부입니다!”(11: 27). 이런 목적에서라면 스타브로킨이 마트료샤의 이야기에서 자기 내면의 추악하고 내밀한 부분까지 낱알이 털어놓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잘못을 솔직하게 드러냄으로써 회개하겠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그는 잘못을 남김없이 털어놓을수록 회개에 대한 진심이 표출된다는 루소의 자기폐쇄적인 고백 매커니즘을 답습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루소의 『고백』이 스타브로킨에게서 변형을 거치며 진정성만을 표방하는 고백이란 사실상 자기과시에의 욕망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 더욱 강조된다. 고백을 통해 자신을 과시하려는 이들에게 고백은 널리 읽힐수록 진가를 발휘한다. 스타브로킨이 티혼 신부에게 자신의 글을 내어놓으며 가장 처음 하는 말은 “여기, 유포하기로 한 인쇄물입니다”(11: 12)이다. 이 인쇄물에 대해 서술자는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분명 외국 모처의 러시아 인쇄소에서 비밀리에 인쇄된 것이었으며, 인쇄물은 얼핏 성명서와 매우 비슷해 보였다”(11: 12). 종교적인 장르인 고백록이 한낱 성명서와 동일시됨으로써 스타브로킨의 「고백」 역시 루소의 『고백』처럼 널리 퍼질 것을 염두에 두고 청자를 설정한 폐쇄적인 고백임이 암시된다.

실제로 스타브로킨은 자기 죄를 자신이 용서하고자 한다고 말하는 것이 무색하게 고백을 듣는 상대를 끊임없이 의식한다. 그는 자신이 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고백」을 집필하고 있으며 자신은 강력한 자기 의지를 발휘하

15) 나는 열여섯 살이 될 때까지 장 자크 루소가 고백했던 그 죄악에 일반적인 정도 이상으로 무절제하게 빠져 있었지만 열일곱 살이 되어 마음을 먹는 순간에 그것을 중단하였다.(11: 14)

여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음을 가상의 청자를 향해 반복해서 강조한다. “나는 내가 온전한 정신 상태이며 내 상황을 이해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이것을 선언한다. 그러나 나에게는 모든 것을 알고 나를 보게 될 사람들이 남을 것이며, 나는 그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다”(11: 23). 그러나 그의 말은 지하생활자가 그러하듯 자신을 그렇게 보지 않을 청자에 대한 반응을 의식하여 미리 내놓는 대답에 불과하다. 결국 그가 염두에 두는 청자는 자기 말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청자이다. 스타브로킨은 이러한 방식으로 「고백」 전반에 걸쳐 자신이 제기하는 물음에 스스로 답한다.

용서와 성찰을 자기자신에게서 구한다는 특징은 문체적 차원에서도 드러난다. 『악령』의 서술자는 「고백」을 소개하기에 앞서 부정확한 문장과 문체상의 오류가 빈번히 발견됨을 지적한다. “나는 다만 철자법 실수만 손보았는데, 작가가 어쨌든 교육받은 사람이고 심지어 (물론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다독가인데도 실수가 상당히 많았다는 데 놀랐다”(11: 12). 「고백」을 읽은 직후 티혼 신부가 처음 하는 말 역시 문장이라도 조금 다듬으라는 것이다. ““이 문서를 좀 다르게 고치면 안 될까요?” “왜죠? 저는 전심을 다해 썼습니다만.” 스타브로킨이 답했다. “문체라도 좀””(11: 23). 그로스만 (Л. П. Гроссман)이 지적하듯 이 대목에서 스타브로킨의 문체가 보이는 조야함은 티혼의 말과 대비되어 더욱 두드러지며, 그의 일그러진 말은 이후 다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절정에 이른다.¹⁶⁾ 이것은 스타브로킨이 시종일관 상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폐쇄적인 인식에 갇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가 자신의 주장대로 「고백」을 널리 유포하여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바랐다면 그는 자신의 말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문체부터 바로 해야 했을 것이다.

스타브로킨의 고백 형식을 통해 드러나는 자기폐쇄적 인식은 『악령』에서 온갖 비극을 초래하였다. 이 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스타브로킨의 권태이다. 『악령』에서 스타브로킨의 기이한 행보에 대한 해석은 모두 권태라는 원인으로 수렴한다. “‘지겨움’과 ‘기분전환’은 사실상 스타브로킨의 신비주의를 해석하는 현실적인 코드이자 그가 불러일으키는 모든 비논리적인

16) Гроссман Л. П. “Стилистика Ставругина”, *Поэтика Достоевского* (Москва: ГИИ, 1925).

수수께끼에 대한 논리적인 해답이다.”¹⁷⁾ 그가 권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이라도 해보려는 몸부림으로 저지른 온갖 기행과 악행이 작중 비극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스타브로킨이 「고백」에서 털어놓는 어린 마트료샤와 유로지비 마리아에게 저지른 추악한 죄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설명된다. 그는 페테르부르크에서 방탕하게 살던 때를 이렇게 회상한다. “나는 당시 정신이 멍할 정도로 사는 게 엄청 지겨웠다. [...] 그 당시 삶을 어떻게든 불구로 만들어버리자, 단 가능한 한 훨씬 더 역겹게 만들어 버리자는 생각이 떠올랐다. 난 벌써 1년쯤 전부터 권총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뭔가 더 좋은 것이 나타났다”(11: 20). 표트르의 꼭두각시가 된 것도 권태를 타파해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표트르는 그런 스타브로킨을 이용하여 그에게 거물급 혁명 인사라는 허울을 덧씌워 사람들 앞에 내세웠고, 그를 통해 5인조의 심리를 조종하여 도시의 온갖 비극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도 권태를 극복할 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자살이라는 스타브로킨의 최후를 통해 보여진다.

권태는 삶의 무의미함을 스스로 해결하려 애쓰다가 빠져버리는 굴레라는 점에서 자기 안에 갇힌 폐쇄적인 고백의 형식에 상응한다. 권태에 빠진 사람은 어제와도 같은 오늘도, 오늘과도 같은 내일도 견디지 못한다. 의미심장하게도 스타브로킨은 자살 후 그의 이름으로 지칭되지 않는다. “우리 주의 시민이 바로 그 문 뒤에 매달려 있었다”(10: 516). ‘스위스의 시민’이라는 이 구절은 루소를 상기시킨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인간을 상호연결된 공동체 속의 존재로 보지 않고 개별적인 존재로 간주한다. 그 개별적인 인간이 사회적 약속을 맺고 살아가는 것이 루소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 형태다. 그러나 인위적인 제도를 통해 이상적 사회를 형성할 수 있다는 루소의 주장은 사실상 『악령』의 비극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니힐리스트의 기획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나는 건설의 형태를, 다른 하나는 파괴의 형태를 띠지만 둘 모두 인간이 사회를 가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전제로 한다. 이처럼 “도스토옙스키는 서술자가 자기 스스로 개인적 정체성을 규정하는 낭만주의적 실존주의로는 합리주의에 대한 충분한 답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의 형식을 통해 증명해 보였다.”¹⁸⁾ 요컨대 루소와 스타브로킨의

17) 석영중, 「도스토옙스키와 바라봄의 문제: 구경, ‘어시디아’, 그리고 스타브로킨」,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72 (2021), 73쪽.

고백 형식은 죄의 사함조차도 스스로 부여할 정도로 존재 자체를 자기자신으로부터 규정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처럼 스타브로킨의 고백은 형식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자기폐쇄적 인식의 비극을 일깨운다.

II.3. 스테판식 고백의 명과 암

스타브로킨의 고백과는 대조적으로 스테판의 고백이 규범적인 고백의 전형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작가 도스토옙스키의 주요 사상을 직접 제시하는 구절로 인해서이다.

오, 용서합시다, 용서합시다,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이를 언제나
도 다 용서합시다... 우리 역시 용서받기를 희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는 그리고 우리 각자는 다른 사람들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10: 491)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의 이 발언은 방랑길에서 만난 서적 행상 소피야 마트 베예브나 앞에서 잘못을 참회하며 이루어진 것이다. 그는 과오를 되짚어보던 중 오래도록 멀리하던 성서를 소피야에게 읽어 달라 부탁하기에 이른다. 스테판은 성서 봉독을 들으며 도시에서 일어난 비극에 대한 책임 의식을, 나아가 도시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연대 책임을 통감한다. 스타브로킨이 불특정 다수 앞에서 고백을 위시하여 자기과시의 욕망을 드러내었던 것과 달리 스테판은 한 명의 개인 앞에서 만인에 대한 책임 의식을 자각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과거를 통회한다. 스테판의 생각 변화는 합리적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인간을 중시하는 그의 발언으로 구체화된다. 이 구절에는 훗날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조시마 장로를 통해 설파될 공동체 정신의 요체가 담겨 있다. 개인은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그럴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옆에서, 우리와 섞여 살아가는 사람 개개인에 대한 실천적 사랑을 베풀어야 하고, 심지어 타인의 죄에까지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이어지는 스테판의 회개는 새로이 깨달은 연대 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

18) Doody, T. "The Underground Man's Confession and His Audience", *Rice Institute Pamphlet-Rice University Studies* 61.1 (1975), p. 37.

루어진다. 그는 소피야 마트베예브나 앞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과정에서 도시에서 일어난 모든 비극적 사태의 온상이 자기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그는 친아들 표트르를 성인이 될 때까지 두어 번 본 것이 고작일 정도로 방치함으로써 표트르가 과격한 사상을 가지고 5인조를 조종하여 도시를 헤집어놓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는 가정교사 역할에도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스타브로킨과 리자가 내면이 공허하고 불안정한 정서를 가진 채로 자라나는 데 일조하였다. 스테판은 마음이 불안할 때면 자는 아이들을 깨워 도리어 아이들에게 위로를 받을 정도로 무책임한 교사였다. 그 결과 스타브로킨은 권태와 허무에 강단 있게 맞서지 못하고 표트르에 의해 맥없이 조종당했다. 연감 발행, 값비싼 귀걸이 기부 등 구태여 필요치 않은 일에 사명감을 발휘하는 데서 존재감을 찾곤 하는 리자는 난동이 벌어진 쉬피굴린 공장을 굳이 찾았다가 성난 군중에서 참혹하게 살해당했다. 스테판은 고백 과정에서 리자의 비극적 최후를 직감하고는 이렇게 말한다. “그대의 책[성서]에서처럼 내가 그녀에게 내 다른 쪽 뺨을 내밀 겁니다! 지금, 지금에서야 다른 쪽... ‘뺨’을 내민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겁니다!”(10: 496).¹⁹⁾

스테판이 통감하는 지난날 자신의 가장 큰 잘못은 그 어떤 것도 책임감 있게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스테판은 자유주의의 신봉자이기는 했지만 남들 앞에서 제대로 연설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상에 대해 아는 바도 없었고, 자유주의 사상과 관련된 무언가를 실행에 옮기지도 않았다. 그는 자신이 당국의 감시를 받을 만한 저명인사라는 착각에 빠진 채 일생 대부분을 바르바라의 영지에서 허송세월로 보냈다. “나는 평생 거짓말을 했어요. 심지어 진실을 말할 때도 말이요. 진리를 위해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그저 나 자신을 위해 말했을 뿐이요. 예전에도 알고 있긴 했지만, 이제 와서야 보이네요...”(10: 497) 이런 점에서 그는 비극을 일으킨 젊은 세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아버지 세대에 속한다. 젊은 세대가 보이는 행동은 사실상 스테판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스테판이 자유주의를 신봉한 것이 그저 잠시 몰두할 무언가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듯 젊은 세

19) 스테판이 무책임한 가정교사로서 젊은 세대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자세 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하라. Corrigan, Y. *Dostoevsky and the Riddle of the Self* (Evanston: Northwestern Univ. Press, 2017), pp. 90-94.

대도 자신의 쓸모를 무언가에서라도 찾아보기 위해 과격한 사상을 흡수하고 실천에 옮겼다. 스타브로킨은 권태에서 벗어나려, 표트르는 악마적 욕망을 채우려 급진적인 사상에 관심을 두었다.

소피야가 우연히 펼쳐 읽어주는 묵시록의 한 구절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나는 네가 한 일을 잘 알고 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라리 네가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하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나 너는 이렇게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기만 하니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스스로 부자라고 하며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네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별거벗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요한의 묵시록〉 3: 15-17).²⁰⁾ 이 구절을 듣고 스테판은 존재감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사상에의 몰두가 비극을 불러왔음을, 이에 대해 자신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음을 자각하게 되었다. 차라리 스테판에게 뜨겁거나 차가운 열정이 있었더라면 젊은 세대는 사상에 대한 그의 맹목적인 추종을 반면교사 삼았을지언정 존재감을 충족하기 위해 또 다른 사상에 매달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점을 깨달은 스테판은 소피야에게 악령 들린 돼지 떼 이야기를 성서에서 찾아 읽어달라고 부탁하기에 이른다. 비로소 지난날에 대한 잘못을 통감하게 된 그는 표트르 일당에 대해 “내가 아마 선두에 선 우두머리일 거요”(10: 499)라며 사태의 책임을 통감한다.

바르바라와의 대화 끝에 그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다. “만약 신이 있다면 나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의 징표입니다”(10: 505). 스테판은 연대적인 책임 의식을 깨닫고 신의 존재를 받아들임으로써 비로소 존재를 스스로로부터가 아니라 신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할 수 있게 되었다. 앞서 인용한 스테판의 ‘만인 앞에서 만인의 죄’라는 말은 그가 자기 존재를 신으로부터 구하기 시작했음을 방증한다. 이 말은 티혼 신부가 스타브로킨에게 꺼낸 구절이기도 하다. 티혼이 스타브로킨에게 「고백」을 읽고 난 누군가가 그를 용서한다면 마음이 편해지겠느냐고 묻자 스타브로킨은 그렇다고 답하며, 그 사람이 티혼 신부라면 더 편안해질 것이라 이야기

20) 이 구절은 스타브로킨의 「고백」에서 스타브로킨의 요청으로 티혼 신부가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하다. 성서 인용은 공동번역 성서(<https://bible.cbck.or.kr/Ncb>)에 따른다.

한다. 이에 티혼은 다음과 같이 답한다. “그대도 나를 또한 용서해준다면요”(11: 26). 죄를 털어놓은 자신에게 오히려 용서를 구하는 티혼 신부의 말에 의아해하는 스타브로긴에게 티혼은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일부러 저지른 것과 모르고 저지른 것에 대해서요. 죄를 지은 사람은 이미 모두에 대해 죄를 지은 것이므로 각자는 무슨 일에서든 다른 사람의 죄에 잘못이 있습니다. 홀로 저지르는 죄라는 건 없어요. 나 역시도 큰 죄인이며, 어쩌면 그대보다 더 큰 죄인일 겁니다. (11: 26)

『악령』의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와 티혼 신부에게서 시작되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조시마 장로에게서 강조되는 ‘만인은 만인 앞에서 만인에 대하여 죄인이다’라는 구절은 도스토옙스키에게 있어 인간 존재는 결코 자기 자신으로부터 규정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타인이 저지른 죄조차 나의 잘못일 정도로 인간 존재는 서로 얽혀 있다. 스테판의 고백이 지니는 의의는 그가 이 점을 깨달음으로 인해 가능했다.

이처럼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의 고백은 독자에게 바람직한 고백의 모범적 사례가 되어 준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베르호벤스키’라는 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높은’이라는 의미를 지닌 ‘верховный’와 같은 어근을 공유하는 ‘Верховенский’는 높은 곳을 지향함을 함의한다.²¹⁾ 스테판과 포트르가 각각 40년대 세대와 60년대 세대를 대표하며 대립구도를 형성함에도 부자 관계로 묶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성을 통해 암시되는 지상적이지 않은 관념에 대한 지향성으로 인해서이다. 스테판은 자유주의의 이상에 매여 있고 포트르는 니힐리즘의 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악령』에서 5인조의 비극 역시 니힐리즘의 이념만을 좇다가 실패에 직면한 ‘레알리오라에서 레알리아로의 붕괴’이며 이런 점에서 스테판과 포트르는 이념에 경도된 자들의 문제를 공통적으로 보여준다.²²⁾

그런데 스테판의 깨달음도 사실상 레알리아보다는 레알리오라에 속한다. 만약 그가 바로 최후를 맞지 않고 결심했던 대로 길로 나아가 복음서를 팔

21) Livermore, G. “Stepan Verkhovensky and the Shaping Dialectic of Dostoevsky’s Devils”, *Dostoevsky: New Perspectives*, edit. Jackson R.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84), p. 177.

22) Ibid., pp. 176-192.

고 다녔더라도 바라던 대로 이상적인 결과를 낼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그는 방랑길에 오른 후 농민의 실정에 밝지 못해 위험해질 뻔한 상황을 몇 차례 겪었던 바 있다. 나스타샤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바르바라가 등장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돈을 노린 농민들에게 이용당했을 공산이 크다. 스테판의 깨달음에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스테판이 외친 만인에 대한 책임은 『악령』에서 결국 관념적 차원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했을뿐더러, 실제로도 모든 사람이 만인에 대한 책임 의식만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가 ‘구원’을 함의하는 ‘스파소프’에 그토록 가고 싶어 했으면서도 결국 다다르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던 것은 필연적인 결말이라 할 수 있다. 스테판의 고백은 레알리아의 영역을 밝지 않고 하나의 레알리오라에서 또 다른 레알리오라로 이행한 것과도 같다.

그렇다면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의 최후의 고백은 하나의 지향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독자가 따라야 할 구체적인 지침으로 사용되지는 못한다. ‘만인 앞에서 만사에 대한 책임’이라는 명제는 인간 존재의 공동체적 본질을 보여주고 인간이 지향해야 할 바를 가리키지만,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그렇다면 독자에게 실질적인 지침이 되어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스테판의 고백보다는 스타브로킨의 고백일 수 있다.

II.4. 스타브로킨의 고백에 대한 재평가

바로 이 지점에서 스타브로킨의 「고백」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고백」이 독자의 인식 전환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의 재평가가 필요하다. 스타브로킨의 고백은 왜곡된 고백이지만 도스토옙스키의 여타 왜곡된 고백이 그러하듯 독자를 지향점으로 안내해주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테판의 말로 이루어진 고백의 의미를 능가한다.

스타브로킨의 글을 읽은 후 티혼 신부가 보이는 반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타브로킨의 고백이 누구에게나 경악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이 사실임에도 티혼은 이에 대해 어딘가 석연치 않은 평가를 내린다. 그는 문체의 조악함 등을 지적하긴 하지만 고백을 쓴 스타브로킨의 시도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비판하지는 않는다. 죄를 짓고도 젊은 날의 불가피한 일이라 치부

하여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스타브로킨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한 공포[죄의 망각]가 온 세상에 만연합니다. 그대는 심연 그 자체를 느낀 것이고, 그 수준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은 아닙니다”(11: 25). 티혼은 일부러 비웃음을 사려는 스타브로킨의 의도를 간파하면서도 그의 자기파괴적 욕구가 가지는 힘을 인정한다.

“그대는 나를 이해 못하네요. 짜증 내지 말고 들어보시죠. 그대의 위업이 겸손함에서 비롯되었다면 그대가 견디는 한 그것은 위대한 그리스도교적 위업이 되겠지요. 심지어 견딜 수 없다 해도 주님께선 그것이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희생이었음을 헤아리시겠지요. 모든 것이 헤아려질 겁니다. 말 하나, 영혼의 움직임 하나, 완성되지 않은 생각 하나까지도 덧없이 사라지지는 않겠지요. 허나 난 그대에게 이러한 위업 대신 다른 더 위대한 위업을, 의심할 여지 없이 위대한 무언가를 권하는 겁니다...”

니콜라이 프세볼로도비치는 침묵했다.

“고난과 자기희생에 대한 열망이 그대를 압도합니다. 그대의 그 열망을 다스리고 종잇장이랑 계획일랑은 제쳐두시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무찌를 겁니다. 모든 오만함과 그대의 악마를 욕보이시지요! 승리로 끝을 맺고, 자유를 얻으십시오...” (11: 29)

티혼 신부는 추악한 고백을 내보여서라도 권태를 극복해보려는 스타브로킨의 처절한 몸부림에서 의미를 찾고 있다. 스타브로킨의 권태는 무기력함의 권태와는 다른 양상을 띤다. 예컨대 러시아문학의 권태를 대표하는 또 다른 인물인 오블로모프가 권태에 빠져 침대에만 파묻혀 지낸다면 스타브로킨은 권태를 참을 수 없어 온갖 기행과 악행을 일삼고 다닌다. 적어도 그에게는 ‘뜨겁거나 차가워지려는’ 의지가 아예 없지는 않다. 티혼 신부는 바로 그 점을 포착하여 자기과시의 욕망을 드러내는 종잇장은 치워두고 ‘열망을 다스리라’라고 조언한다.

이 지점에서 스타브로킨의 서사가 도스토옙스키가 기획한 ‘위대한 죄인의 생애’의 변형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가 『악령』의 비극적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은 권태와 열망 사이의 분열로 인해서이다. 그는 권태에만 침잠해있는 인물이 아니다. 그에게는 미약하게나마 일말의 가능성이 엿보인다. 그 가능성이 『악령』 본문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은 스타브로킨이 서술자의 시점을 거쳐 굴절되어 묘사되기 때문이다. 스타브로킨

이 직접 쓴 그의 「고백」은 스타브로킨에 대한 보다 많은 것을 독자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스타브로킨의 열망을 표지하는 요소 중 하나가 「고백」에 등장하는 황금 시대의 꿈이다. 클로드 로랭의 <아시스와 갈라테아>를 모티프로 하는 황금 시대의 꿈은 도스토옙스키 작품 중 『악령』과 『미성년』에 등장하여 이상에 대한 지향을 보여주는 지표로 기능한다. 스타브로킨이 황금시대의 꿈을 꾸었다는 사실은 그 꿈이 거미로 얼룩지어졌을지언정 스타브로킨 내면에 무언가 열망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그것은 이상향으로도, 추악함으로도 치달을 수 있는 열망이다.

황금시대의 꿈은 스타브로킨의 성격 규정에 있어 의미심장한 장면이므로 시디키(B. Siddiqi)가 정리하듯 여러 학자들이 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시디키는 도스토옙스키의 작품 세계를 실존적, 존재론적 논의의 영역과 초월적, 이상적 논의의 영역으로 구분한 후 후자에 방점을 찍는 일반적인 관점과 달리 전자에 초점을 맞춘다. 도스토옙스키가 후자의 영역을 전적으로 부정했던 것은 아니지만 작가의 주안점은 전자에 있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시디키는 이러한 구도 속에서 스타브로킨을 이상에 대한 지향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것을 실존적 차원에서 실현하는 데 실패한 인물로 분석한다. 기존 연구에서 황금시대의 꿈은 스타브로킨의 「고백」에 이상에 대한 일말의 지향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되곤 했다. 시디키는 이러한 견해를 일부 수용하면서도 스타브로킨에게는 이상을 실천할 의지가 부족했음을 밝힌다. 스타브로킨에게 황금시대의 꿈이나 마르티야의 환영은 그가 죄책감을 느끼도록 하는 일종의 에피파니로 기능하지만 그는 외부에서 작용하는 모든 힘을 거부한 채 끝내 자기 통제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살이라는 비극적 결말을 맞았다.²³⁾

즉, 스타브로킨에게는 이상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그가 「고백」을 쓰기까지 한 것은 그 열망으로 인해서였다. 그러나 그는 존재의 허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잘못된 방식으로 발현했다. 도스토옙스키 작품에서 인식론적 고립의 비극을 겪는 인물들이 마주하는 문제가 바로 이 자유의지이다. 그들에게는 현 상태를 벗어나 이상을 지향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지하생

23) Siddiqi, B. "Existentialism, Epiphany, and Polyphony in Dostoevsky's Post-Siberian Novels", *Religions* 10.1.59 (2019), pp. 4-7.

활자는 겉으로는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그가 그토록 긴 글을 써내려가는 진짜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 고립의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이다. 이반 카라마조프의 염세적인 태도의 기저에 자리한 현실에 대한 분노는 그만큼 그의 이상에 대한 추구가 강력함을 보여준다. 다만 스타브로긴의 경우 문제의 시작과 끝을 자기자신에게서 찾은 것이 비극의 씨앗이었다. 그의 자기폐쇄적인 인식 속에서 그의 권태도, 권태가 초래한 재앙도 생겨났다. 만약 스타브로긴에게 왜곡된 고백을 초래한 자기폐쇄적인 인식이 아닌 스테판의 고백에 나타나는 공동체 의식이 자리했다라면 그는 다른 결말을 맞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변화는 고백하는 사람 스스로의 관점 전환에 의해 달성 가능하다는 것이 『악령』에서 두 편의 고백을 통해 예시된다.

반복해서 강조하듯 도스토옙스키는 고백을 비틀어 제시하여 독자가 그 추악함을 인식하도록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스타브로긴이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깨달음에 권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듯 독자도 폐쇄적인 인식의 문제를 스스로 알아차려야 그 문제를 자기 자신의 경우에 적용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추악한 행동을 일삼는 스타브로긴의 이름이 십자가를 뜻하는 그리스어 ‘스타브로스’를 포함하는 모순은 이로써 설명된다. 스타브로긴의 「고백」은 독자가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고백 서사에 대한 깊이 있는 사유를 가능케 하는 지표로 기능할 수 있으며, 그 점에 「고백」의 의미가 있다.

III. 결론

지금까지 『악령』의 고백 두 편을 독자의 인식 전환의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중 고백의 서사가 작품 전체를 지배하는 『지하로부터의 수기』와 「온순한 여자」를 통해 보건대 작가는 독자가 왜곡된 고백 서사를 둘러싼 문제를 능동적으로 사유하도록 유도한다. 독자는 이들 서술자의 고백을 통해 고백이 자칫하면 오히려 자기 죄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고백 서사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고백하는 사람이 자기 정당화의 굴레에 갇힌 스스로를 인식하는 과정이 가장 우선되어야 함을 깨닫게 된다. 이 경우 왜곡된 고백은 규범적인 고백 이상의 영

향력을 발휘한다.

이와 같이 독자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의 차원에서 스타브로긴의 일그러진 고백에 내재하는 유의미함을 논할 수 있다. 스테판의 규범적인 고백은 독자에게 하나의 지향점은 될 수 있으나 독자가 따를 실질적인 지침이 되기는 힘들다. 오히려 그 대척점에 자리한 스타브로긴의 고백이 왜곡된 고백에 대한 독자의 비판적 사유를 가능케 함으로써 독자에게 실질적으로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티혼 신부가 스타브로긴의 고백에서 의의를 찾은 이유, 학자들이 스테판의 고백에 전적으로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지 못한 이유 등 본고의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에 답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대한성서공회, 『공동번역 성서』, 2005. (<https://bible.cbck.or.kr/Ncb>)
2. 석영중, 「도스토옙스키와 바라봄의 문제: 구경, ‘어시디아’, 그리고 스타브로진」,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72, 2021.
3. 이선영, 『도스토옙스키의 『악령』과 서사윤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4.
4. _____, 「도스토옙스키의 「온순한 여자」와 자살의 문제」,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75, 2021.
5. 장 자크 루소(김봉구 옮김), 『고백』, 서울: 박영률출판사, 2005.
6. Бахтин М. М. *Проблемы поэтики Достоевского*, Москва.: Советская Россия, 1979.
7. Гроссман Л. П. “Стилистика Ставрогина”, *Поэтика Достоевского*, Москва: ГАХН, 1925.
8. Достоевский Ф. М.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30 томах*, Ленинград: Наука, 1972-1990.
9. Bagby, L. *First Words: On Dostoevsky's Introductions*, Boston: Academic Studies Press, 2015.
10. Bellhouse, M. “Hearts and Minds: The Confessions of Rousseau, Raskolnikov, and the Underground Man”, *Canadian Journal of Political and Social Theory* 10.3, 1986.
11. Coetzee, J. “Confession and Double Thoughts: Tolstoy, Rousseau, Dostoevsky”, *Comparative Literature* 37.3, 1985.
12. Conybeare, C. *The Routledge Guidebook to Augustine's Confessions*, NY: Routledge, 2016.
13. Corrigan, Y. *Dostoevsky and the Riddle of the Self*, Evanston: Northwestern Univ. Press, 2017.
14. Cravens, C. “The Strange Relationship of Stavrogin and Stepan Trofimovich as Told by Anton Lavrent'evich G-v”, *Slavic Review* 59.4, 2000.
15. Davidson, R. “Dostoevsky's The Devils: The Role of Stepan Trofimovich

- Verkhovensky”, *Dostoevsky’s The Devils: A Critical Companion*, edit. Leatherbarrow, W. Evanston: Northwestern Univ. Press, 1999.
16. Doody, T. “The Underground Man’s Confession and His Audience”, *Rice Institute Pamphlet-Rice University Studies* 61.1, 1975.
 17. Howard, B. “The Rhetoric of Confession: Dostoevskij’s Notes from Underground and Rousseau’s Confessions”, *SEEJ* 25.4, 1981.
 18. Livermore, G. “Stepan Verkhovensky and the Shaping Dialectic of Dostoevsky’s Devils”, *Dostoevsky: New Perspectives*, edit. Jackson R.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84.
 19. Miller, R. “Rousseau and Dostoevsky: The Morality of Confession Reconsidered”, *Western Philosophical Systems in Russian Literature*, edit. Milkotin A. Los Angeles: Univ. of Southern California Press, 1979.
 20. _____, “Dostoevsky and Rousseau: The Morality of Confession Reconsidered”, *Dostoevsky: New Perspectives*, edit. Jackson R.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84.
 21. Siddiqi, B. “Existentialism, Epiphany, and Polyphony in Dostoevsky’s Post-Siberian Novels”, *Religions* 10.1.59, 2019.
 22. Stelzig, E. “Poetry and/or Truth: An Essay on the Confessional Imagination”, *University of Toronto Quarterly*, 54.1, 1984.
 23. Zhernokleyev, D. “Dostoevskii, the Feuilleton and the Confession”, *Slavonic and East European Review* 99.1, 2021.

Abstract

A Study of Confessions in *The Possessed*

Lee, Sunyoung
(Korea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contrasting confessions of Stepan Trofimovich and Stavrogin in Dostoevsky's *The Possessed*. While one might initially interpret these confessions as embodying dichotomies – right and wrong –, they contain several ambiguous points which complicate such simplistic readings. In Dostoevsky's oeuvre, the confessional narrative or monologue is remarkable, as illustrated in notable works such as *Notes from Underground* and “A Gentle Creature.” The narrators in these texts rationalize their transgressions, although superficially presenting their statement as confessions of sin. This complexity undermines the possibility of genuine repentance, as the act of confession often becomes a mechanism for self-justification rather than a path toward true contrition. Dostoevsky's portrayal of distorted confessions thus serves as a cautionary example, prompting readers to remain vigilant against the potential for self-deception inherent in their own narratives. In *The Possessed*, Stavrogin's confession exemplifies a distorted confessional framework, wherein he seeks forgiveness and existential meaning from within himself. In contrast, Stepan Trofimovich's normative confession acknowledges his responsibility for a series of tragic events, expressing genuine remorse. However, due to his imminent death, this confession is constrained, remaining largely abstract in its implications. Considering the features of distorted confessional narratives in Dostoevsky's works, meaningful insights can still be drawn from Stavrogin's confession, which prompts a reevaluation of the reader's perspective on the nature of guilt and redemption within the text.

Key words : Dostoevsky, *The Possessed*, Confession, Stepan, Stavrogin

알렉세이 카레닌의 용서에 관한 소고: 기독교적 용서와 그 실패

이 영 수*

국문 초록

이 글은 『안나 카레니나』 제4부에 등장하는 일련의 사건을 ‘기독교적 용서’가 실패로 돌아가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해당 대목의 미학적 효과에 관해 탐구한다. 이 일련의 사건이란, 죽음의 문턱에 이른 아내 안나를 용서하고자 한 알렉세이 카레닌의 결심이 건강의 회복과 함께 그녀가 변심함에 따라 결국 무위에 이르게 되는 사건을 가리킨다. 이 대목에서 작가 톨스토이는 카레닌의 결심을 “자신을 낮춤으로써 높아지는 기독교 최고의 덕”을 구현하는 듯 보이는 용서의 행위로 심화하다가, 결국 두 사람의 화해가 극적인 정동의 산물이었음을 드러내며 일단락한다. 또한 이 대목에 앞서 카레닌이라는 인물의 성격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자면 작가가 그것을 자못 입체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용서(및 실패)의 가능성을 예비하고 있음이 드러나는바, 실로 이는 안나가 “죽지 않고 살아날 경우를 고려하지 않은 채” 행해진 거룩한 용서의 실패가 나타내는 것, 즉 성(聖)에서 속(俗)으로의 추락을 더욱 극적으로 만든다. 작가는 육체를 갱생해 인물의 영적 구원을 무효화하고 있으며, ‘생기’로부터 발현돼 온 욕망과 정념을 안나에게 채침투시킴으로써 8부의 최종적 죽음-파멸을 준비한다.

주제어 : 톨스토이, 『안나 카레니나』, 알렉세이 카레닌, 기독교적 용서, 생기

* 러시아국립인문대학교(PITy) 박사과정, ys99932@gmail.com

I. 서론

레프 톨스토이의 장편 『안나 카레니나(Анна Каренина)』는, 분량이 매우 방대함에도 작품 내적 요소들이 여러 층위에서 서로 정교하게 결합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²⁾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는 온갖 상징(사물, 복장, 신체적 표현 등)과 알레고리의 상호연관뿐 아니라 ‘공학적’이라고 할 수 있는 측면, 예컨대 각 인물과 장면이 대위법적으로 교차함으로써 만들어지는 리듬 및 단일 사건이 서사구조 전체에 있어 차지하는 (물리적인) 위치 등에 의해서도 달성된다. 후자의 경우 ‘위치’가 전체 구조와 맺는 관계 속에서 의미가 생성된다.

작가는 4부의 뒷부분에 등장하는 일련의 사건, 즉 안나가 출산 도중에 죽음의 문턱에 이르고 카레닌에게 용서를 구하는 장면을 작품의 중앙에 위치시킨다. ‘유사 죽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사건의 위치는 작품 내 다른 죽음들의 위치와 비교될 때 그 절묘함이 드러난다. 좁은 범위에서 보면, 안나의 ‘유사 죽음’은 레빈의 형인 니콜라이 드미트리예비치의 죽음(5부 20장)과 ‘데칼코마니’ 같은 위치에서 대비를 이룬다. 그리고 넓은 범위에서 보면, 그것은 서사의 본격적인 시작과 끝을 알리는 두 죽음, 즉 기차역에서의 철도 경비원의 죽음(1부 18장)과 기차역에서의 안나의 죽음(7부 31장)의 가운데에 자리한 채 서사 후반부의 방향을 안내하는 표지 역할을 한다. 죽음으로부터 돌아온 안나의 욕망은 이전보다 훨씬 노골적인 방식으로 나타나며, 점점 통제의 범위를 벗어나 그녀를 ‘진짜 죽음’으로 이끈다.

‘유사 죽음’이 니콜라이 드미트리예비치의 죽음과 이루는 데칼코마니적 대비가 강렬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해당 사건이 그것을 계기로 인물 사이에 형성된 믿음과 화해를 (스스로) 철저히 깨뜨리는 ‘위선과 거짓’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형의 죽음을 앞둔 레빈 역시 그 죽음을 직시하기를 힘들어하며 (자신을 포함한 사람들이) 거짓을 행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지만,³⁾ 이 순간은 레빈의 문제의식과 성찰이 심화하는 단계로서 그가 ‘선을

2) 브라우닝(Gary L. Browning)은 작품 전체를 (톨스토이가 스트라호프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을 인용해) “연결의 미로”로 규정한다. Browning G.L. A “Labyrinth of Linkages” in Tolstoy’s *Anna Karenina* (Academic Studies Press, 2011).

3) “사람들은 그가 틀림없이 이제 곧 죽으리라는 것, 벌써 반쯤은 죽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가 한시라도 빨리 죽기만을 바라고

행하는 진정한 삶'에 관한 8부의 최종적인 깨달음에 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레빈의 거짓은 형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이 사랑은 작품의 초반부터 일관성 있게 묘사된다. 반면 안나의 '유사 죽음'에 얽힌 일련의 사건에서는 인물들의 갑작스러운 태도 전환이 두 번이나 발견되며, 결국 모든 게 극적이면서도 일시적인 정동의 산물, 기만이자 거짓임이 드러나면서 끝난다.

이 극적인 전환 중 첫째는, 죽음을 직감한 안나가 남편인 알렉세이 카레닌에게 용서를 구하자 카레닌이 '진심으로' 그녀와 브론스키를 용서함으로써 이뤄진다. 냉담한 인물로 그려지던 카레닌은 심지어 아내가 죽기를 바란 적도 있지만, 막상 사경을 헤매는 아내를 마주하자 병자에 대한 연민을 느끼고 모든 일을 용서한다. 실로 놀라운 이 전환은 톨스토이의 작품세계에서 죽음의 인지가 불러일으키는 전형적인 변화(삶의 의미에 대한 깨달음과 화해) 중 하나인 것처럼 보인다. 예컨대 모슨(Gary S. Morson)은 카레닌의 용서야말로 기독교적 사랑의 진정한 구현이라고 평가한다.

세계 문학사상 기독교적 사랑을 인간 심리의 이치에 맞도록 보여주는 장면은 두 개뿐이다. 하나는 『전쟁과 평화』에서 안드레이 공작이 [죽음을 앞두고 괴로워하는] 그의 적 아나톨 쿠라긴을 사랑하는 장면이고, 다른 하나는 『안나 카레니나』에서 안나를 미워하고 그녀가 죽기를 바랐던 카레닌이 진정한 기독교적 사랑에 의해 감동함으로써 용서하는 장면이다. 심지어 도스토옙스키조차 그런 사랑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 이상의 일은 할 수 없었다.⁴⁾

그러나 모슨의 주장은 진정으로 극적인 '두 번째 전환'을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누구나 그것을 숨기고 그에게 병에 든 약을 주기도 하고 약이며 의사를 찾아 돌아다니기도 함으로써 그와 그들 자신을 속이고 또 서로를 속이고 있었다. 이러한 것은 모두 거짓이었다. 추악하고 모욕적인 독성의 거짓이었다. 레빈은 그 성격의 특이함에서, 또 이 병자를 누구보다도 깊이 사랑하고 있었던 데서 이 거짓을 특히 괴롭게 느끼고 있었다.” Толстой Л.Н.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90 томах, Т. 18* (М.: Гослитиздат, 1928–1958), с. 399. 이하 『안나 카레니나』의 인용은 해당 판본을 기준으로 출처를 간단히 밝히고, 다음을 참고해 번역문을 기재하기로 한다. 톨스토이(이철 옮김), 『안나 카레니나 하』(범우사, 1999), 91쪽.

4) Morson, G. S., “The Moral Urgency of Anna Karenina,” *Commentary* 139.4 (2015), p. 37.

있다. 용서 장면에서 이어 벌어지는 두 번째 전환, 즉 안나의 ‘육체적’ 갱생과 배신은 카레닌의 용서가 연출한 모든 화해와 화합을 무위로 돌리고 용서에 담긴 기독교적 가치를 무색하게 만든다.

이 글의 전제는 다음과 같다. 안나의 ‘유사 죽음’에 얽힌 일련의 사건, 즉 카레닌의 용서와 그에 뒤따르는 일들은 작품 후반부를 끌어내기 위해 작가가 적절히 배치한 고도의 서사적 장치다. 자신을 내려놓은 채 상대를 조건 없이 용서하는 카레닌의 행위는 (작가의 말을 빌리자면) “자신을 낮춤으로써 높아지는 기독교 최고의 덕”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기독교적 용서다. 안나(와 브론스키)가 화해를 거부함으로써 실패하는 기독교적 용서는 나름대로 실패의 원인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이 작품 전체의 주제와 관련해 의미하는 바도 뚜렷하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카레닌의 기독교적 용서가 행해지는 양태와 그 실패의 의미, 작품 후반부의 진행에 있어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는 데 있다.

II. 본론

II.1. 카레닌의 성격 구축

알렉세이 카레닌이 안나를 용서하는 4부에 이르기까지, 작가는 그의 성격을 나름대로 ‘탄탄하게’ 구축한다. 우선 그의 성격은 냉담함으로 특징지어진다. 그는 오로지 공직사회에서의 성공에만 몰두하고, 이미 ‘달성’된 목표인 결혼 이후에는 배우자에게 신경을 쓸 이유를 찾지 못하는 인물로 비친다. 일관된 냉소적 태도와 “찌르는 듯한 비꼼”으로 자신을 대하는 남편을 두고 안나는 (사람이 아니라) “인형”, “관청의 일을 하는 기계”라고 부르기까지 한다. (3부 23장) 이런 묘사로부터 구성되는 그의 냉담한 이미지는 ‘생기’에 바탕을 둔 안나와 브론스키의 연애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요소와 무척이나 대비되는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그의 이런 태도는 위선으로 비치기도 하는데, 예컨대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고 나서도 명예에 흠집을 내지 않기 위해 문제를 덮어 둔 채 겉보기에 ‘정상적인’ 부부로서의 형식을 유지한다는 점이 그러하다.⁵⁾ 안나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뭔가 느끼고 있다면 그이가 나하고 살고 있는 이런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그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뭔가를 느끼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부정한 아내와 한 지붕 밑에서 살 수 있겠어요? 그런 아내더러 ‘여보 하고 친근한 말을 할 수 있겠어요?’ (3부 22장)

여기까지만 보면 카레닌은 인간적 감정이 결여된 ‘평면적인’ 인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정당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차가운 평면성’을 특징으로 하는 카레닌의 형상은 결코 깊이가 없다고 하기 어렵다. 그가 냉담한 사람일지라도, 그의 개성인 ‘냉담함’ 자체는 4부에 이르기까지 서술자의 상당한 관심 속에서 구체성을 획득하기 때문이다. 둘째, 이것이야말로 중요한데, 그는 사회적 지위를 위해 벌이는 투쟁에 있어 상당한 수준의 열정을 보여준다.

이 두 가지 사항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카레닌의 ‘냉담함’에 대해 자세히 따져 물을 필요가 있다. 어쩌면 그의 냉담함은 모종의 이유로 형성된, 공격적이라기보다는 방어적인 성격을 띠는 특질일 수 있기 때문이다.⁶⁾ 업무상의 문제를 다룰 때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 달리, 확실히 그는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정면 돌파하기를 꺼린다. 아내의 불륜을 떠올릴 때 그는 “분노와 함께 에너지(энергия)를 소비할까 두려워한다.” (4부 4장) 즉, 그가 자신이 지닌 한정된 에너지가 소진될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방어적인 태도를 지니게 됐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비로소 그에게 자기를 보존하고자 하는 욕구가 대단히 크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종종 문제 상황을 사회 혹은 자신이 설정한 안전한 ‘테두리’ 안에 가둔 채 그 안에서 해결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규범을 심각하게 어기지 않는 선에서 현 상황을 유지해달라

5) 예컨대 조혜경은 카레닌이 “불륜에 빠진 아내 안나에 대한 증오와 원망을 감춘 채 자신의 명예를 위해 행복한 부부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위선적인 삶을 지속”하는 인물로 본다. 조혜경, 「“안나 카레니나”에 나타난 죽음과 위선의 문제 연구」, 『동서인문』10(2018), 65쪽.

6) 5부 21장에 등장하는 카레닌의 전사(前史)에서는 그가 이전에 안나에게 진심으로 애정을 느꼈다는 점과 그녀를 향한 애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애착을 가지려는 마음을 제거해 버렸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는 그가 태생적으로 냉담한 인물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다.

고 아내에게 요구하는 행위, 명예가 실추됐음에도 결투를 피한하는 행위,⁷⁾ 가정의 위기라는 발본적인 사건을 이혼이라는 합법적 절차를 통해, 그것도 제삼자(변호사)에게 위임한 채 처리하려는 행위는 모두 자기 보전만을 목표로 하는 소극적 대응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⁸⁾

이는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심지어 비폭력적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서의 자기 보전이 ‘최소한의’ 에너지만 들이는 방식으로 가능하다면, 카레닌이 몸담은 공직사회에서는 이야기가 다르다. 그의 실패를 바라는 인물들로부터의 위협이 실재하기 때문이다.

스트레모프는 지난번의 회의에서 따끔하게 약점을 찔렸다고 느꼈던 터라 위원회의 보고를 받게 되자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로서는 상상도 못 할 술책을 썼다. 스트레모프는 다른 몇몇 위원을 포섭하여 느닷없이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 편으로 돌변하여 그가 제안한 정책의 실행을 열렬히 옹호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취지의 극단적인 정책까지 제창했다. (4부 6장)

카레닌은 지위를 보전하기 위해 끝없이 투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

-
- 7) 작가는 다음의 장면에서 카레닌을 결투로 몰아넣지만, 그는 끝내 결투를 방법으로 채택하지 않는다. “‘프랴티니코프는 왜 결투를 신청했습니까?’ ‘아내 때문이죠. 사나이답게 행동했지요! 결투를 신청해 상대방을 해치웠으니까요!’ ‘허어!’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무관심한 듯이 말하더니 눈썹을 치켜올리고 객실로 갔다.” (4부 12장)
- 8) 상대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느끼는 데서 오는 만족감 역시 ‘테두리’의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 그 만족감이 어떤 행위에 대한 타자의 반응을 통해 확인된다고보다 자신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안나에게 편지를 보내는 다음의 장면은 그러한 만족감의 적절한 예시다. “그는 [자신이 쓴] 편지를 끝까지 읽어보고 그것에 만족했다. 특히 자기가 돈을 동봉한다는 것을 생각해낸 데 대해 만족했다. 단 한 마디의 무자비한 말도 비난도 없었으며, 그렇다고 해서 관용도 없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은 아내의 귀가를 위한 황금의 다리라는 점이였다. 편지를 접어 크고 두툼한, 상아 페이퍼 나이프로 반반하게 민 다음 돈과 함께 봉투에 넣고, 그는 잘 정돈된 필기 용구를 사용할 때면 언제나 느끼곤 하는 만족감을 맛보면서 초인종을 눌렀다.” (3부 14장) 한편 이 만족감은 곧이어 평판과 지위의 상승에 관한 만족스러운 상상으로 연결되며, 이것 역시 그의 ‘테두리’ 안에서 탄생한다. “그는 자기가 이전보다도 한층 더 깊이 이 복잡한 사건을 추구했다는 것, 그리고 자기의 머릿속에 이 사건의 전부를 밝혀내 관계에서의 자기의 지위를 높여 자기의 적들을 실각시키고, 따라서 국가를 위해 대단히 큰 이익을 초래할 근본적인 사상(이렇게 그는 스스로를 기만하지 않고 말할 수 있었다)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3부 14장)

며, 일견 부정적으로 보이는 행위와 사고는 이 경우에 적어도 그 근거를 획득한다. 지위를 보전하려는 카레닌의 노력은 결코 범속한 욕망의 발로인 것만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카레닌의 부르짖음은 따라서 어느 정도 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일찍이 그 누구도 미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4부 12장)

카레닌은 스트레모프의 공격에 대응하고자 현지 조사에 자기 직접 파견해달라는 파격적인 요청을 한다. 위원회 구성원들은 이러한 대처에 깜짝 놀란다. 이처럼 그는 업무에 있어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인간 관계에 있어 관찰되는 그의 우유부단함과 대비된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그의 무심하고 냉담한 성격은 결코 평면적으로 구성되지 않고 개성으로서의 깊이를 지닐 만한 묘사 분량을 확보한다. (이는 성격에 그만한 이유가 따라붙음을 뜻하기도 한다) 냉담함은 어느 정도는 인간관계에 있어 그가 보이는 미숙함의 한 모습이고, 어느 정도는 그에게 있어 본질적인 방어적 태도의 한 모습이기도 하다. 카레닌의 성격적 특성이 그가 지위를 유지하는 데 있어 느끼는 위기의식의 결과로 완전히 환원될 수는 없지만, 위기의 실재는 그가 실제로 정당히 ‘투쟁’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많은 것을 설명해 준다. 항상 위협에 대처해야 하는 그는 방어적인 태도와 (개인적 문제의 대처에 있어) 일정한 사회적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강박을 지닌 인물, (다시 작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에너지”를 사회에서의 투쟁에 집중시켜야 하는 인물이 된 것이다.⁹⁾

4부 뒷부분에 이르기까지 작가가 카레닌을 긍정적인 인물로 그리고 있지 않다는 점은 확실하나, 그가 이렇다 할 커다란 죄를 저지르도록 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확실하다. 범속한 악의 전형처럼 보였던 그의 성격과 행동유형은 앞선 논의에 따라 나름대로 내적 근거를 얻는다. 다시 말해 카레닌에게는 부족한 에너지를 갖고 자기를 지켜야만 하는 요구가 존재할 뿐이며,

9) 지위 유지에 대한 강박과 ‘에너지’의 정체는 앞서 언급한 카레닌의 전사(前史)에 의해 조금 더 뚜렷해진다. 숙부의 손에서 자라 정치적 야망에 몸을 내맡긴 그는 약혼녀 안나에게 “할 수 있는 한의 정을 모두 쏟았고” 그 결과로서 다른 이들과 교제하려는 요구는 모두 제거됐다. 인간관계는 훨씬 더 축소되고 “일정한 범위 [테두리]에 속한 사람들을 그 범위 밖으로 내딛게 할 수는 없었다.” (5부 21장)

그의 냉소는 공격용이라기보다 방어용이라고 볼 수 있다.

II.2. 첫 번째 전환: 카레닌의 용서

표면적으로 구축된 ‘냉담한’ 이미지가 그의 용서를 충격적인 전환으로 돋보이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면, 앞서 설명한 내적 근거는 그가 반드시 악한 인물이 아님을 밝혀 줌으로써 적어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의 ‘씨앗’을 지닐 수 있도록, 나아가 용서라는 전환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도록 한다. 요컨대 4부에 등장하는 카레닌의 용서 장면은 작품의 표면과 물밑에서 동시에 준비되고 있는 셈이다.

카레닌의 용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놀라운 결단이다. 표면적으로는 그의 ‘냉담한’ 마음이 녹아 모종의 인간성을 회복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더 깊은 차원에서는 인간관계에 대처하는 데 ‘테두리’를 넘어서는 법이 없는 그가 처음으로 그 테두리를 깨고 적극적인 행동을 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것은 여태까지 묘사된 그의 성격적 결함을 완전히 구제하는, 거의 메시아적인 사건이라고 할 만하다.

물론 용서를 촉발하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자극으로, 이는 기독교 윤리와 관련 있다. 카레닌은 돌리와 대화하면서 “너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라”라는 성서의 가르침을 상기한다. (4부 12장)¹⁰⁾ 그는 “나 자신이 미워하는 자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며 받아치나, 이 가르침은 그의 마음속에 각인된 채 결정적인 실현을 기다린다.

자신이 위독함을 알리는 안나의 전보(“죽을 것 같습니다. 부탁하건대 돌아와 주세요. 용서와 함께라면 마음 놓고 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부 17장))를 보고 그는 처음에 그녀가 이혼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전보를 읽자 “말의 참된 의미가 대뜸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4부 17장) 여기서 전보의 내용을 무시하는 일이 남들로부터의 비난뿐 아니라 그 “자신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어리석은 짓”임을 카레닌이 인지한다는 사실은 눈여겨볼 만하다. 그의 행동의 준거가 사회적 평판의 ‘테두리’로부터 벗어나 내적인 영역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주

10) 돌리의 충고는 신약성서 중 마태복음 5장 39절의 인용이다. 이는 용서에 기독교적 차원이 관계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는 뒤이어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기 때문이다. 그는 곧장 안나가 있는 페테르부르크로 떠날 준비를 한다.

카레닌은 페테르부르크로 이동하는 중에 아내의 죽음을 바라는 마음을 품기도 하고,¹¹⁾ 자신이 어느 정도는 의무감과 체면 때문에 아내를 보러 가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¹²⁾ 그러나 열에 들떠 지절이며 고통받는 안나의 모습을 보자 그의 마음 상태는 완전히 바뀌는바, 작가는 그의 얼굴에 “수난자 같은 표정(страдальческое выражение)”을 드리움으로써 이를 드러낸다.

카레닌의 마음을 돌린 것은 분명 죽어가는 이의 고통이다. 그는 “갑자기 지금까지 정신적 혼란으로만 여겼던 것이 그 반대로 일찍이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준 범열(блаженное состояние души) 같은 것임을 느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기독교의 가르침은 그가 평생 따르고자 노력했음에도 들리지 않았으나, 바로 그 원수의 생명이 소멸의 문턱에 닿아 있는 지금 체험되는 셈이다. “원수에 대한 사랑과 용서의 기쁨에 찬 감정이 그의 마음을 가득 메웠고” (4부 17장) 그는 아내 쪽으로 머리를 기울인 채 흐느껴 운다.

안나도 지금까지 품었던 증오의 감정을 내려놓고 용서를 구한다. 그녀의 참회는 다소 길지만, 자신에게 죽음이 가까웠다는 인식과 ‘남게 될’ 사람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고 있음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기에 아래 인용하기로 한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런 거예요. 제발 놀라지 마세요. 저는 여전히 이전과 똑같은 여자예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또 하나의 여자가 들어 있어요. 전 그 여자가 무서워요. 그 여자가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저는 당신을 미워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옛날의 제 자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여자는 제가 아니에요. 지금의 제가 진짜 저예요.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말이에요. 저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이제 죽는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저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지금도 커다란 쇠덩이가 손 위에도 다리 위에도 손가락 위에도 실려 있는 느낌이에요. 이 손가락도 보세요. 이렇게 크잖아요? 하지만 이것도 곧 끝장이 날 거예요...

11)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상상할 때마다 아내의 죽음은 자기 처지의 모든 어려움을 당장에 해결해 주리라는 생각을 도저히 뿌리칠 수 없었다.” (4부 17장)

12) “‘만일 그녀가 정말로 빈사 상태에 빠져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라면, 숨이 끊어지기 전에 만나면 용서해 주고 만일 시각이 늦을 경우에는 마지막 의무를 다해주자.’” (4부 17장)

다만 한 가지 바라고 싶은 것은 저를 용서해달라는 것, 깨끗이 용서해달라는 것뿐이에요! (...) 역시 당신은 용서하지 못하겠지요! 알고 있어요, 그런 일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니, 아니에요. 나가 주세요. 당신은 너무나 좋은 분이예요!” (4부 17장)

또한 카레닌의 용서는 원수인 브론스키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놓음으로써 완성된다. ‘오른뺨을 맞아 왼뺨도 돌려대는’ 카레닌의 용서는 겸허한 기독교적 용서의 방식이다.

“나는 깨끗이 용서했소. 나는 다른 한쪽 뺨까지 내밀고 싶은 심정이에요. [...] 다만 하나님을 향해서 용서해 주는 행복을 나에게서 빼앗아 가지 말아 달라고 빌고 싶소. [...] 이것이 나의 처지요. 당신은 나를 진흙탕 속에 짓이겨 버릴 수도 있고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들 수도 있소. 나는 저 사람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당신에 대해서도 결코 비난하지 않겠소.” (4부 17장)

몇몇 논자는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까지 안나와 카레닌, 브론스키가 위선적인 ‘연극’을 벌인다고 주장하지만,¹³⁾ 적어도 앞선 논의를 고려하면 안나와 카레닌이 지금까지의 모든 허물을 벗어 던진 채 진정한 화해에 도달하려고 하는 듯 보인다.¹⁴⁾

13) 예컨대 다음과 같은 서술이다. “안나의 출산 장면은 카레닌, 브론스키, 안나의 위선과 허위를 가장 극명하게 집약해 놓은 듯 보인다. 카레닌은 안나의 출산을 알리는 전보를 받고 그 내용을 확인하기도 전에 안나의 ‘거짓과 간계’를 의심하며 분노한다. 그리고 그는 아내의 죽음이 자신의 괴로운 상황을 한 번에 해결해 주기를 바라기까지 한다. 즉 카레닌은 생사의 갈림길에 선 아내와 아이를 걱정하기보다 자신의 상황만을 걱정하면서 위선적으로 ‘원수’를 용서하듯이 브론스키를 용서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의 교리를 실천함으로써 ‘적에 대한 사랑과 용서의 기쁨’을 누린다. 브론스키 또한 용서받는 자를 연기하며 눈물을 흘린다. 출산을 하며 죽을 고비를 맞은 안나의 부탁으로 두 명의 알렉세이(카레닌과 브론스키)는 죽어가는 안나 앞에서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자의 연기를 충실히 해내고 있는 셈이다. 이는 죽음 앞의 위선과 허위가 극에 달한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조혜경, 「“안나 카레니나”에 나타난 죽음과 위선의 문제 연구」, 68쪽.

14) 또한 다음 부분에서 안나가 보이는 신체적 반응은 분명 (종교적인 의미에서)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는 죄인의 그것과 비슷하다. “갑자기 안나는 몸을 움츠리고 입을 다물었다. 그러고는 겁먹은 표정으로 무슨 타격이라도 기다리는 듯(как будто ожидая удара), 또 그 타격으로부터 몸을 피하려는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4부 17장)

카레닌의 용서는 그의 승리를 뜻한다. 이 용서는 부덕한 자에게 선처를 베푸는 생각으로부터 오는 도덕적 우월감이 아닌 진정한 윤리적 승리다. 이 용서는 가장 낮은 곳(이를테면 “진흙탕”(4부 17장))으로 내려감으로써 높아지는 기독교적 원리와 맞닿아 있는 듯하다.

II.3. 두 번째 전환: 안나의 회복과 배신

문제는 안나가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면서부터 시작된다. 그녀는 “건강이 회복되어 감에 따라 점점 더 삶에 대한 욕구를 강렬히”(5부 8장) 느끼는데, 이는 작품의 중요한 제재이기도 한 생기(оживленность)가 끈질기게 안나를 붙잡은 결과이기도 하다.

작가가 썼듯, 카레닌은 “아내가 죽지 않고 살아날 경우를 고려하지 않았다.”(4부 19장) 죽음으로부터 돌아온 안나는 열에 들떠 있을 때 내뱉은 사죄의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전과 같이 욕망에 사로잡힌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는 매우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워진다.

‘육체’가 갱생함에 따라 모든 ‘영적’ 구원이 무효가 되는 이 사건은 톨스토이가 준비한 놀라운 전환이라고 할 만하다. 작가는 안나와 카레닌을 거의 구원에 이르게 했다가 다시 땅에 떨어뜨린다. 그들이 성(聖)에서 속(俗)으로 복귀하는 이 순간은 또한 『안나 카레니나』가 거룩한 회개와 속죄로 장식된, 이를테면 ‘그저 그런’ 교훈적 결말로 끝날 위기로부터 구원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갑작스러운 두 번째 전환으로 서사는 새로운 현실성과 필진함을 획득하는데, 이는 삶-속(俗)이 다시 무한히 펼쳐져 있음을 보게 된 안나가 지극히 선한 용서자인 카레닌에게 굴복한 채 남은 삶을 살아낼 수는 없다고 느낀다는 점으로부터 나온다. 그녀는 남편의 용서를 저버린 채 브론스키에게 돌아가고 곧 그와 함께 외국으로 도피한다.

죽음의 고비로부터 안나가 돌아오는 사건은 작품의 새로운 장을 연다. 작가는 이 사건을 작품의 정중앙에 위치시킴으로써 ‘삶-속은 계속된다’라는 무거운 진실을 담은 제스처를 취한다. 생기가 그녀를 죽지 못하게 했다는 것, 극도로 기만적인 그녀의 배신은 안나가 욕망에 휘둘리다가 죽음에 이르는 5부 이후의 비극적 서사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조건이다. 욕망과 정념은 이리저리 얹혀 안나에게 침투함으로써 4부의 ‘유사 죽음’보다 훨씬 잔혹하면서도 (서사적으로) 더 완성도 높은 8부의 죽음을 준비한다.

II.4. 기독교적 용서와 그 실패

카레닌이 행한 용서는 분명 종교의 차원과 관계한다. 용서를 통한 구원이 환영이었음이 드러나는 순간은 그들에게서 기독교적 용서가 최종적으로 무산됨에 따른다. 기독교적 용서는 근본적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해뿐 아니라 인간에 대한 신의 용서라는 또 다른 축을 전제한다. 잘 알려진 아래의 성경 구절은 용서에 관한 이런 이해를 잘 보여준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38-48 KRV)

이에 따르면, ‘원수를 사랑하는’ 행위인 용서를 통해 인간이 이룩하는 ‘온전함’은 신의 그것과 한가지다. 인간이 행하는 모든 용서 행위의 원본은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조건 없이 용서한 신으로부터 발견된다.¹⁵⁾ 요컨대 “죄인을 용서하는 근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에 기초한다.”¹⁶⁾ 게다가 신과 인간 사이의 용서는 상호적이기도 한데, 신이 베푸는 용서를 인간이 본받아 행하는 것과 인간이 용서를 의무로 다함에 따라 신의 용서를 받는 것은 둘 다 진실이기 때문에 무엇이 앞선다고 보기 어려운 셈이다. 이는 다음의 두 구절을 나란히 두고 볼 때 명확해진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15) 신학자 라이트(N. T. Wright)는 인간이 ‘[신으로부터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능력’과 ‘[타인에게] 용서를 베푸는 능력’은 한가지라고 봤는데, 이에 따르면 인간 사이의 용서가 행해지는 모든 순간에 신이 베푸 가장 근원적인 용서(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가 원리로서 ‘인용’되지 않을 수 없다. Wright N.T. *Evil and The Justice of God* (SPCK, 2006). 신웅철, 「기독교 문화해석학의 관점에서 본 용서」, 『인문사회 21』 9(2018), 215쪽에서 재인용.

16) [네이버 지식백과] 용서 (라이프성경사전, 2006, 생명의말씀사), URL: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395480&cid=50762&categoryId=51387> (검색일: 2024.09.16).

6:14-15 KRV)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32 KRV)

이렇듯 기독교적 용서의 개념은, 타인에 대한 모든 용서는 단순히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신의 용서와 근본적으로 관계하는 것임을 전제한다. 이를 고려하면 기독교적 용서로서 카레닌의 용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불완전하다.

첫째, 신과 만나 사이의 화해는 4부에서 온전히 이뤄지지 못한바, 그녀는 자신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사실을 부정하고 다시금 이전의 욕망에 빠져든다. 4부 이후 점점 더 욕망에 휘둘림에 따라 결국 자기를 완전히 상실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살은 사실 작품 내적으로 논리적인 귀결이다. 안나가 카레닌의 용서 장면에서 신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녀가 사망하기 직전에 신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점으로부터 명확히 드러난다. 그녀는 자신이 죽음에 가까이 이르렀다가 돌아왔을 때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오히려 더욱 빠져들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므로 다시금 신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거대한 것이 인정사정없이 안나의 머리를
쾅 하고 떠받고 그 등을 할퀴며 질질 끌고 갔다. ‘하느님, 저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안나는 저항이 헛된 일임을 깨닫고 재빨리 중얼거렸다. (7부 31장)

둘째, 4장에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용서조차 성립하지 못한바, 안나와 브론스키는 카레닌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했다. 안나가 사경을 헤맬 때 지냈던 참회와 사죄의 마음은 생기가 다시 회복되자 결국 사라진다. 또한 브론스키는 카레닌의 용서 이후에 “치욕을 견디기 어려워하며”(5부 18장) 권총 자살을 시도하는데, 이는 그가 ‘용서받는 자’의 입장을 겸허히 수용하고 신-인간, 인간-인간 사이의 용서에 참여하기를 거부한다는 뜻이다. 자신을 내려놓은 카레닌의 관대한 용서는 브론스키에게 “뭔가 숭고한, 자기의 인생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모욕당하고 천대받으면서도 그 굴욕을 씻을 힘마저 빼앗긴 죄 많

은 인간처럼” 느낀다. (4부 17장) 브론스키는 여태껏 그다지 높이 평가하지 않았던 상대가 정신적인 영역에서 예기치 못한 승리를 거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커다란 혼란을 겪는다.

지금까지는 자기의 행복을 방해하는 우연한, 약간 우스꽝스러운 가엾은 존재라고 여겨지던 배신당한 그녀의 남편이 갑자기, 그 누구도 아닌 바로 그 사람에 의해서 경건하게 느껴질 만큼 높은 위치로 끌어 올렸던 것이다. 더욱이 그 남편은 브론스키가 높은 위치로 끌어올려지자마자 이제는 악의에 찬, 위선적이고 우스꽝스러운 인간이 아니라 선량하고 솔직하며 성스럽기까지 한 인간이 되어버린 것이다. 브론스키는 그의 고결함과 자신의 비열함, 그의 정당함과 자신의 부정함을 통감했다. 그녀의 남편은 슬픔 속에서도 관대한 데 비해서 자신은 기만 속에서 비열하고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다고 느꼈다. (4부 18장)

브론스키는 카레닌이 자신을 낮춤으로써 높아지는 기독교적 원리를 구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하지만, 그 원리를 받아들일 능력은 없다. 자살 시도는 브론스키가 용서받고 감화된다기보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회피하려 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자살 시도마저 실패하고, 그는 이전보다도 가망이 없는 상태로 속(俗)의 세계로 돌아온다.

안나와 브론스키 두 사람의 ‘유사 죽음’ 경험은 어떠한 윤리적인 성찰의 태도도 심어주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다. 특히 그녀가 일시적으로 참회하도록 만들었던 죽음 경험은 결국 안나가 더욱 브론스키에 대한 욕망에 목매게 되는 계기가 된다. (“그에 대한 그녀의 미칠 듯한 기쁨은 자주 그녀 자신을 놀라게 했다.” (5부 8장)) 두 사람은 카레닌의 용서가 자신들에게 주는 고통과 부담을 의식적으로 거부하며, 외국으로의 도피는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남편에게서 벗어난 안나는 더없는 기쁨을 만끽한다.

안나는 자유의 몸이 돼 나날이 건강이 회복되던 당시에는 스스로도 미안하다고 여길 만큼 행복한 삶의 환희에 넘치고 있는 것 같은 자신을 느꼈다. 남편의 불행을 생각해 봐도 그녀는 조금도 마음이 언짢아지지 않았다. 그 회상은 한편으로는 생각하기에 너무나 끔찍스러운 일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큰 행복을 그녀에게 주는 것이었다. 앓고 난 뒤 그녀에게 일어난 가지가지의 사

건에 대한 회상(남편과의 화해, 결렬, 브론스키가 상처를 입었다는 소식, 그의 출현, 이혼 준비, 가출, 아들과의 이별 등)이 그녀에게는 브론스키와 함께 외국에 와서야 비로소 괴로운 꿈에서 깬 것처럼 여겨졌다. 남편에게 준 재액에 대한 회상은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한테 매달리는 사람을 뿌리쳐 버렸을 때 경험하는 것 같은, 무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지긋지긋한 느낌을 그녀에게 불러일으켰다. 그 사람은 죽었다. 물론 그것은 나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구출되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끔찍한 일은 차라리 생각해 내지 않는 편이 좋은 것이다. (5부 8장)

이 부분은 안나의 오빠인 스티바 오블론스키가 작품 전체에 걸쳐 보이는 ‘성찰의 부재’라는 속성이 그녀에게 완전히, 어쩌면 훨씬 더 노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대목이다. 안나는 작품 초반까지만 해도 윤리적 성찰의 감각과 능력을 지닌 인물이었으나,¹⁷⁾ ‘유사 죽음’을 겪고 용서를 거부한 이후 이 감각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된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전에 판단력과 결합해 있던 이 감각이 마비됨에 따라 그녀의 사고는 사실을 신랄한 비판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되지만, 한편으로 사실은 그녀 앞에 악의적으로 왜곡된 채 드러나게 된다. 이는 그녀를 자살이라는 비극적 최후로 이끈다.¹⁸⁾

그리고 셋째, ‘용서하는 자’인 카레닌마저 용서의 결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은 아마 그가 행한 기독교적 용서가 실패했음이 가장 처절하게 드러나는 부분일 테다. 그는 용서의 결과로 사랑이 충만한 합일이 아니라 분열(이혼으로 아내와 아들을 잃어야만 하는 상황)과 전략(상류사회와 공식 사회에서의 축출¹⁹⁾)을 경험한다. 독자는 감동적인 확신에 차서 타인 앞에

17) 예컨대 1장의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다. 안나는 철도 경비원의 미망인에게 브론스키가 위로금을 건넨 일에 뭔가 기만적인 부분이 있음을 지각한다. “그 순간 그녀는 그[브론스키]가 역에서 과부에게 2백 루블을 준 일을 상기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일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 그것을 상기하기가 웬일인지 싫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 속에 뭔가 자신과 관계가 있는, 더욱이 있어서는 안 될 그 뭔가가 숨겨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1부 20장)

18) 그녀가 기차에 몸을 던지기 직전에 이른바 ‘의식의 흐름’에서 잘 드러난다. 안나는 자신이 범속한 악과 허위를 행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지만, 뒤따르는 것은 윤리적 성찰이 아니라 세계에 대한 비탄과 절망,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서 자살만이 남아 있다는 결론이다. (7부 29-31장)

19) “사람들이 끊임없이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비난하기도 하고 조소하기도 하는 사이에, 그는 도중에서 붙든 참의원의 길을 가로막고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은 용서 행위가 카레닌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작중 처음으로) ‘테두리’ 밖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행위이기도 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용서가 실패로 돌아갔을 때 그가 느낀 배신감과 절망은 무척이나 큰 것이었고, 이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악하다”(5부 25장)고 보는 염세주의에 빠지게 된다.²⁰⁾

기독교적 용서의 실패를 경험한 카레닌이 기독교의 염세주의적 분파에 몰두하게 된다는 점은 이런 점에서 그다지 이상한 아이러니가 아니다. 리디야 이바노브나는 카레닌에게 “최근 페테르부르크에 퍼져 있는 기독교의 새로운 해석”을 전파하고, 그는 여기에 쉽게 빠져든다. 작가는 “부족한 상상력에 의해 도출된 관념”, 부정적으로 묘사한다. 독단과 이질성은 어느 정도는 종말론적 밀교에 가깝다.

[그들은] 무신앙자에게는 존재하는 죽음이 자기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그는 자신은 완전무결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곧 신앙의 심판관이므로 자신의 정신에는 벌써 죄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그리고 자신은 이미 이 지상에 있어서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고 있다는 데 대한 상상에 있어서도 무엇 하나 불가능이나 불합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5부 22장)

그러나 이 새로운 신앙 역시 카레닌을 완전히 구원하지 않을뿐더러, 의혹조차 사라지게 하지 못한다. 그는 자기가 새로이 받아들인 신앙이 다소 불완전하며 인위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다만 자신이 처한 굴욕적인 현실을 보상하는 환상, 즉 “모든 사람에게 멸시당하고 있는 자기가 거꾸로 거기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할 수 있을 만큼 높은 발판”이기 때문에 알면서 몰두한다는 점은 진정으로 비극적이다. 그는 “참된 구원에라도 매달리는 것처럼 가공의 구원에 매달리게 됐다.” (5부 22장)

그 사내를 놓치지 않을 양으로 한순간도 말을 끊지 않고 조목조목 자신의 재정 계획을 설명하고 있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곁에서 아내가 자취를 감춤과 거의 동시에 그에게는 관리로서는 가장 괴로운 현상, 요컨대 승진의 정지라는 현상이 일어났다. 모든 사람이 분명히 그것을 보고 있었다.” (5부 24장)

20) 구스타프슨(Richard F. Gustafson) 역시 같은 지적을 한다. Gustafson R. F. *Leo Tolstoy: Resident and Stranger*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p.127.

III. 결론을 대신해: 카레닌의 용서는 왜 실패했는가?

이렇듯 죽음 경험과 용서는 안나와 브론스키, 카레닌을 구원하지 못한다. 카레닌이 자신의 용서 행위를 후회한다는 사실은 기독교적 용서가 최종적으로 실패했다는 증거다.

아무에게도 필요하지 않았던 자기의 용서며 남의 자식에 대한 자기의 보살핌은 참괴(慙愧)와 회한으로 그의 심장을 불태웠다. (...) ‘그러나 도대체 나에게 무슨 죄가 있는 것일까?’ 그는 자문해 보았다. (...) 그에게는 자기가 이 일시적이고 하찮은 생활 속에서 저질렀다고 여겨지던 두서너 가지의 하찮은 잘못으로 인해 자기가 믿고 있던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없는 것 같아 괴로웠다. (5부 25장)

카레닌의 실패는 『안나 카레니나』에서 다른 위선적 기독교 ‘사상’이 겪는 실패와는 다르다. 예컨대, 온전히 이성적인 부분에만 몰두하는 시탈 부인의 경건주의(пиелизм)는 “기독교의 선량함과 상반되는 경멸적 미소”를 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²¹⁾ 그러나 이 경험은 작가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인물인 키티의 내면이 성숙하는 과정에서 건설적으로 지양(止揚)된다는 점에서 작품의 커다란 윤리적 기획 안에 있다. 카레닌의 용서는 경건주의처럼 인위적인 이성의 결과물도 아니고, 감화가 일어나는 순간에 인물들은 위선을 행하지도 않는다. 순간적으로나마 진실했다고 볼 수 있는 이 기독교적 감화가 무효가 되는 것은 어떤 윤리적인 목적을 띠다고 보기 어렵다.

카레닌의 용서가 실패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독교와 윤리를 무의식적으로라도 동일시하지 말아야 한다. 실로 작가의 관심은 ‘진정한 기독교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진정한 윤리적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있으며, 삶에서 견지해야 할 유일하게 ‘참된 신앙’의 판본은 8부의 마지막에 가서야 레빈에 의해 발견된다. “신과 진리를 위해 살고 선을 행하는 삶”을

21) “키티는 그녀의 친척들의 이야기를 물으면서 시탈 부인이 보인 기독교의 선량성과 상반되는 경멸적인 냉소를 봤다. 또한 키티는 언젠가 가톨릭 신부와 자리를 같이했을 때, 시탈 부인이 일부러 램프의 갓 그늘에 얼굴을 가리고 뭔가 의미심장한 웃음을 흘리고 있는 것을 봤다. 이 두 가지 발견은 지극히 사소한 것이었으나 키티를 당황하게 했고 또한 시탈리 부인에 대해 의혹을 품게 했다.” (2부 33장)

추구하는 이 신앙의 면면은 근대적 이성의 반대편에 있음은 물론, 기독교의 정통 교리와의 완벽히 일치하지 않는다. 단순한 삶의 태도와 타인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레빈의 신앙은 육체노동과 정신적 희열, 신과 인간, 농민과 지주가 유기적인 연결을 유지하는 목가적 농촌에서 가능하다.

따라서 카레닌의 실패는, 작품의 윤리적 결론이 발견돼 가는 과정 안에서 서라기보다 그것의 바깥에서, 이를테면 레빈의 구도(求道)가 거두는 성공과 대비되는 방식으로만 작품의 윤리적 목적 달성에 이바지한다. 유일하게 옳으며 따라서 유일하게 승리하는 (바흐친 식으로 표현하자면 ‘독백적인’) 레빈의 신앙은 카레닌의 실패한 기독교적 용서를 비롯해 무수한 ‘패배자’들을 필요로 한다. 그의 용서가 실패한 일은 내적인 결함 때문이라기보다 작가가 기획한 윤리적 위계질서 때문에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윤리적인 차원에서 용서의 실패가 지니는 ‘필요’는 예술적인 차원에서 ‘전환’이 행하는 놀라운 역할(앞서 적은 표현을 반복하자면 “‘그저 그런’ 교훈적 결말로 끝날 위기로부터 『안나 카레니나』를 구원하는”)에 비하면 그 중요성이 매우 작다고 할 수 있다.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둘 사이를 중재하려면 제3의 차원을 끌어들여야 할지도 모른다. 그것은 작품 외적인, 이를테면 역사적인 차원이다.

‘설교자’로서 톨스토이는 서구적 근대가 가져온 이질적인 것에 단호히 저항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뛰어난 직관으로 꿰뚫어 본 동시대 및 그것의 산물을 작품에 반영·도입한 ‘관찰자’ 톨스토이도 있다. 그가 작품에서 구현하는 동시대성은, 비단 ‘육체라는 새로운 영역’²²⁾이나 시사적 문제의 도입에 의해 구현될 뿐만 아니다. 다름 아닌 카레닌의 실패한 용서야말로 근대의 조건을 깊은 층위에서 드러내고 있다. 『안나 카레니나』는 전근대에 가능했던 유기적 총체성이 사라진 시대의 작품이다. 신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각자 제 위치에서 역할을 다하는’ 유기적 이상은 근대적 시공간에서 파괴된다.²³⁾ 따라서 신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합일은 더 이상 불가능

22) 이에 관해서는 메레지콥스키의 지적을 대표로 꼽을 수 있다. 메레지코프스키(이보영 옮김),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금문, 1996), 197쪽.

23) 러시아 문학의 예에서 이러한 인식은 대표적으로 『벚꽃동산』에 등장하는 늙은 하인 피르스의 대사로부터 발견된다. “지금도 기억이 새롭습니다만, 그때 모두가 즐거웠습니다. 무엇이 그렇게도 즐거운지 자신들도 잘 몰랐지만 말입니다. 농군들은 나리들에게 의지하고, 나리들은 농군들을 의지했는데, 지금은 모두가 뿔뿔이예요. 뭐가 뭔지 통 알 수가 없다니깐요.” 안톤 체호프(전훈 옮김), 『안톤

하며, 각 존재는 파편화된다.²⁴⁾ 카레닌의 기독교적 용서가 작품에서 ‘실패해야만 했던’ 가장 중요한 내적 근거도 여기서 발견된다. 각 존재는 서로 연결되고자 해도 연결되지 않으며, 서로 화해하고자 해도 화해하지 못한다.

체홉 4대 장막전』(신성출판사, 2007), 44-45쪽.

- 24) 『안나 카레니나』의 지향은 분명 서사시적인 것을 향해 있지만, 작품 자체를 이끄는 것은 개인적 주체들이며, 이들의 욕망은 철로 위를 달리는 기차처럼 멈출 줄을 모른다. (따라서 『안나 카레니나』의 기차는 주체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근대적 욕망의 메타포다.) 이에 관해서는 (근대) 소설의 발생 배경을 개인적 주체의 탄생으로부터 찾은 와트(I. Watt)의 분석을 참고할 수 있다. 이언 와트(강유나, 고경하 옮김), 『소설의 발생』(강, 2009).

참고문헌

1. [네이버 지식백과] 용서 (라이프성경사전, 2006, 생명의말씀사), URL: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395480&cid=50762&categoryId=51387> (검색일: 2024.09.16.).
2. 메레지코프스키(이보영 옮김),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 금문, 1996.
3. 신응철, 「기독교 문화해석학의 관점에서 본 용서」, 『인문사회 21』 9, 2018.
4. 안톤 체호프(전훈 옮김), 『안톤 체홉 4대 장막전』, 신성출판사, 2007.
5. 이언 와트(강유나, 고경하 옮김), 『소설의 발생』, 강, 2009.
6. 조혜경, 「“안나 카레니나”에 나타난 죽음과 위선의 문제 연구」, 『동서인문』 10, 2018.
7. 톨스토이 (이철 옮김), 『안나 카레니나 하』, 범우사, 1999.
8. Толстой Л. Н.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90 томах. Т. 18-19*, М.: Гослитиздат, 1928–1958.
9. Browning, G. L. *A “Labyrinth of Linkages” in Tolstoy's Anna Karenina*, Academic Studies Press, 2011.
10. Gustafson, R. F. *Leo Tolstoy: Resident and Stranger*,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11. Morson, G. S. “The Moral Urgency of Anna Karenina”, *Commentary* Vol. 139(4), 2015.
12. Wright, N. T. *Evil and The Justice of God*, SPCK, 2006.

Abstract

Alexei Karenin's Christian Forgiveness and Its Failure

Lee, Young Su

(Russian State University for the Humanities)

This paper defines a series of events in Part 4 of *Anna Karenina* as the failure of “Christian forgiveness” and explores the aesthetic effects of this passage. The events refer to Alexei Karenin’s decision to forgive his wife, who is on the brink of death, a decision that ultimately becomes futile as her recovery leads her to change her mind. In this story, Tolstoy deepens Karenin’s resolution as an act of Christian forgiveness, only to conclude by revealing that the reconciliation between the two was merely the product of heightened emotion. Examining the character formation of Karenin before this scene shows that the author constructs his character with depth, thereby foreshadowing the possibility of forgiveness (and also its failure). This highlights the dramatic nature of the failed forgiveness — one that was carried out “without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Anna surviving.” Indeed, this underscores the fall from the Sacred to the Profane. The author nullifies the spiritual salvation of the characters by restoring their physical lives and re-injecting desire and passion into Anna, preparing for the ultimate death and destruction in Part 8.

Key words : Leo Tolstoy, *Anna Karenina*, Alexei Karenin, Christian Forgiveness, Vitality

Sound Symbolism and Zaum': Transcendence through the Power of Sound

Lee, Taehun*

국문 초록

본고의 목표는 홀레브니코프와 크루초니호의 자음 시를 음성상징(sound symbolism)의 역사적 변천과 의의를 바탕으로 재평가하는 것이다. 두 시인은 언어를 자모라는 기본 소리 단위로 해체하여 새로운 세계어를 각자의 방식으로 창조하려 했다. 음성상징은 말소리가 실제 대응물과 상호 관련성을 보이는 현상을 뜻하며 고대 그리스나 인도에도 존재했던 오래된 개념이다. 18세기 러시아 시인 미하일 로모노소프도 음성상징을 기반으로 각 자모에 특정 의미를 부여했으며 이러한 연관성을 엄두에 두고 시를 짓곤 했다. 그러나 19세기 프랑스 언어학자 페르디낭 드 소쉬르가 기호학을 창시하며 기표(특정 소리나 문자)와 기의(그 의미)의 자의성에 대해 역설했다. ‘기호의 자의성’이라고도 불리는 이 이론은 음성상징을 반박하며 오늘날까지도 문헌학자 대부분이 정석으로 받아들이는 개념이 되었다.

그렇다면 홀레브니코프와 크루초니호의 자음 시와 그 안의 소리 상징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질문이 본 논문의 핵심 질문이라 볼 수 있다. 필자는 자음 시인들의 작품을 분석하기에 앞서 음성상징에 관해 지금까지 탄생한 이론과 진행된 연구를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홀레브니코프와 크루초니호가 어떠한 역사적 배경에서 소리로 실험했는지를 이해해야 그들 작품의 진가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두 시인의 대표작들을 분석하며 그들이 어떻게 소리와 의미를 연관 지어 세계어를 창조하려 했는지 재평가해 보고자 한다.

주제어 : 자음, 음성상징, 소리시, 세계어, 홀레브니코프, 크루초니호

*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초빙 연구원, silvereuro999@gmail.com

I. Introduction

Zaum' refers to linguistic experiments in sound symbolism by Russian Futurists such as Velimir Khlebnikov (1885) and Aleksei Kruchenykh (1886)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Sound symbolism establishes a perceptual association between sounds and concepts, and this idea had already existed in the eighteenth century among Russian poets, like Mikhail Lomonosov. However, the concept came under scrutiny in the nineteenth century when Ferdinand de Saussure founded semiotics, or semiology as he called it. Saussure's thesis on the arbitrariness between the signifier (pattern of sounds or letters) and the signified (the expressed meaning) contradicted sound symbolism, which represented a non-arbitrary link between word and meaning. Because of Saussure's immeasurable influence on modern linguistics, many philologists now take the notion of "the arbitrariness of the sign" for granted. This worldview may undermine the twentieth-century zaum' poets' efforts to convey some kind of meaning through sound units.

One must note that unlike their eighteenth-century Russian counterparts, Khlebnikov and Kruchenykh utilizes sound symbolism to deconstruct language to its bare sound units to create a universal sound system that will allow humans transcend to the superconscious. This new means of expression is not bound by culture or even language. I must clarify that I do not aim to subvert the now commonly accepted principles of semiotics founded by Saussure. My article rather intends to argue that some sound units may hold some inherent associations with certain meanings regardless of any particular language; thus, it may be worth reevaluating zaum' poetry and its power to convey meaning and overcome linguistic and cultural barriers through a universal sound system.

I shall first give an overview of the history of sound symbolism and the rise of semiotics. Then the article will offer examples of recent counter-evidence to the idea of the arbitrariness of the sign. I will conclude by analyzing some notable works by Khlebnikov and Kruchenykh in the

context of sound symbolism's evolution so that one may interpret zaum' poetry in a more meaningful way.

II. The History of Sound Symbolism

Zaum' poetry arises from the deconstruction of language. Therefore, most "words" become basic sound units that often sound like interjections. Let us take for example the following words in Russian: Akh (Ax)! Ekh (Əx)! Okh (Ox)! Ukh (Vx)! These interjections can express emotions ranging from surprise to disdain, and these expressions are not interchangeable. One single tweak of a vowel can completely change the meaning. While native speakers may find the meanings of these words self-explanatory, non-native speakers may struggle to grasp the associated emotions, especially if the same sounds denote different concepts in their respective languages. Nonetheless, something about the vowel 'a,' for which the mouth opens up to its lowest height while remaining unrounded, seems to signify the most intense degree of emotion – whether it be surprise, excitement, or anger. Thus, two opposing views arise. Do sounds inherently signify certain meanings? Or is one mistaken to think that they do?

One can paraphrase this debate as the clash between sound symbolism and Ferdinand de Saussure's theory of semiotics. I must note that other forms of symbolism, such as shape symbolism, have existed. Saussure indeed discussed orthography and body language in his course on general linguistics. However, I shall focus on the link between sounds and meanings. Sound symbolism represents the idea that sounds possess meaning in and of themselves while Saussure's theory counters this claim. The French linguist would argue that the Russian interjections above have completely arbitrary relationships to their meanings. The aim of the paper does not lie in providing a definitive answer to the eternal debate between sound symbolists and their opponents, but rather in exploring the history of sound symbolism to understand what Futurists, like Khlebnikov and

Kruchenykh, attempted to accomplish with the language of zaum', or "transration." To comprehend the transcendental and universal nature of their works, I will first survey examples of sound symbolism across different eras and cultures.

The questions of "lexical fittingness and phonetic mimesis" arose in Western consciousness by 300 B. C. when Plato wrote his dialogue, *Cratylus*, in which Socrates appears.²⁾ Here lexical fittingness and phonetic mimesis signify inherent reasons why certain phonemes arise from certain meanings. In the dialogue, *Cratylus* argues that names come about "naturally" from their objects while his opponent Hermogenes claims that names are "conventional." Socrates asserts that the sounds of words are related to the essential qualities of their referents and are "analyzable into their constituent phones."³⁾ Nevertheless, human language is imperfect, and, therefore, these sounds do not always capture the essence of their referents. Although the ancient Greeks had no conclusive opin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ignified and the signifier – or in their terminology: the referent and the word – they introduced the very idea of sound or phonetic symbolism, which seeks to draw links between semantics and phonetics.

Until the 19th century, many scholars took for granted the inherent bonds between sounds and meanings of words. I shall discuss one famous example from Russia. Mikhail Lomonosov was renowned for his contributions to linguistics and philology. In discussing poetic language and rhetoric, Lomonosov claims that some sounds naturally evoke certain feelings and meanings. For example, he notes that "soft" vowels, such as 'e (е),' 'i (и),' 'ia (я),' and 'iu (ю),' depict a sense of "tenderness, caress, and melancholy or small things." In contrast, "hard" vowels, such as 'o (о),' 'u (у),' and 'y (ы),' show "terrible and strong things: anger, envy, illness, and sorrow."⁴⁾

2) Smolinsky, Stephanie. *Brilliance, Energy and Size in Vowels: A Cross-Linguistic Study of Phonetic Symbolism* (Ann Arbor: City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1), p. 11.

3) Ibid., p. 12.

As one investigates Lomonosov's discussion of Russian consonants and their sound symbolism, his profound understanding of linguistics principles – before those linguistics terminologies even existed – becomes apparent. He first groups together the stop consonants (смычные согласные) and classify them as 'hard' (твёрдые) – k, p, t – and 'soft' (мягкие) – g, b, d – which in today's terminology would be called 'unvoiced' (глухие) and 'voiced' (звонкие). Lomonosov argues that these consonants have a "dull" (тупые) pronunciation and, therefore, portray "dull" (тупые) actions.⁵⁾ A skeptic, untrained in phonological principles, may dismiss Lomonosov's attempt to link sounds and their meanings as arbitrary and baseless. However, the philologist's careful alignment of consonants that share manners of articulation suggests that some logic may exist in associating similar meanings with similar sounds. Lomonosov analyzes all sounds of the Russian language in a similar manner. This kind of phonetic symbolism was widespread in the 18th century, and it impacted literary tradition in the 19th century. Considering this fact, one can only imagine how revolutionary Saussure must have seemed when he made a claim against phonetic symbolism.

In the famous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 Ferdinand de Saussure revolutionizes the field of linguistics in several aspects. Most notably, he founds semiology within the branch of semiotics. He defines a concept as "the signified"; a sound-image – basically some linguistic unit, like a word – as the "signifier"; and the combination of the two as the "sign." He claims that the bond between the signified and the signifier is arbitrary and, therefore, any linguistic sign is arbitrary.⁶⁾ For example, the succession of the

4) Ломоносов М., "Краткое руководство к красноречию. Книга первая которая, в которой содержится риторика, показывающая общие правила обоего красноречия, то есть оратории и поэзии, сочиненная в пользу любящих словесные науки", *Ломоносов М. В.: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М.: Академия Наук СССР, 1952), с. 173. Note that Lomonosov uses the terms "soft" and "hard" loosely here. One should not confused these descriptions with the "soft" and "hard" contrast that signifies palatalization in Russian.

5) Ibid.

6) Saussure, Ferdinand de.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 Translated by Wade Baskin

sounds “a-r-b-o-r” in Latin has no inherent link to the actual object that is the tree. Any orthographic unit (the written word), phonetic unit (the speech act), or sign language that represents “tree” in any language is arbitrarily constructed. In founding semiology, Saussure becomes the founder of structuralism in linguistics, and the movement by the same name arises in many fields of humanities, including literature. For example, Roland Barthes later asserts likewise: “Language is a system of contractual values (in part arbitrary, or, more exactly, unmotivated) that it resists the modifications coming from a single individual, and is consequently a social institution.”⁷⁾

Saussure’s thesis is considered revolutionary because he claims that absolutely all linguistic signs are arbitrary. Anticipating possible objections, he notes that the arbitrary nature of the sign may not be obvious in many situations. Polite gestures, such as bowing, may seem to have some intrinsic value of humility, but ultimately they are simply conventions established by society.⁸⁾ Saussure further refutes any attempts to show any kind of natural bond between the signified and the signifier.

Saussure anticipates two strong possible arguments against his theory and preemptively debunks them. He understands that many scholars may use onomatopoeia and interjections to disprove his hypothesis, but he counter-argues those possible objections. He argues that onomatopoeia are arbitrary signifiers because they are limited to the phonetic evolution of the language in question. One can see stark differences in onomatopoeia across languages. For example, a dog’s bark is “bow-wow” in English, “oua-oua” in French, “gaf-gaf” in Russian, “hav-hav” in Turkish, “wan-wan” in Japanese, “meong-meong” in Korean. Even in this short list, there exist phonemes that do not exist in some of the other languages. Saussure would highlight the noticeable discrepancies in the specific combinations of phonemes here because according to him these onomatopoeia are simply

(New York: McGraw-Hill, 1959), p. 67.

7) Barthes, Roland. *Elements of Semiology*, Translated by Annette Lavers and Colin Smith (New York: Hill and Wang, 1968), p. 14.

8) Saussure (1959), p.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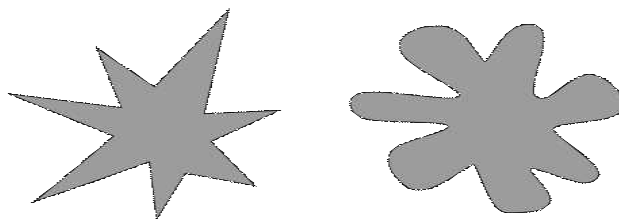
products of the conventions established by each language. Saussure uses a similar principle to dismiss any inherent bond between the signified and the signifier in interjections. They differ greatly cross-linguistically because they, too, are results of arbitrary conventions.

It is noteworthy that Saussure does not dwell too much on debunking these possible objections. He mainly uses the diversity among different languages to prove the arbitrariness of these words; however, he does not completely disprove the possibility of any intrinsic phonetic values that may exist outside of preconditioned conventions of a specific language. Here I would like to distinguish what “arbitrary,” or “arbitraire” in French, really means. The Latinate word, deriving from the word “arbitror” – meaning “to judge” – implies that a certain group of people decides which meanings are assigned to certain sound sequences. The notion that some arbitration is involved contrasts with another Latinate French word “aléatoire.” The latter derives from the word for “dice,” which implies pure chance. This word would be best rendered in English as “random,” as opposed to “arbitrary.” The very fact that the connection between the signified and the signifier is not purely random, but rather requires some degree of human control, suggests a possibility that those who decide on the signs may share innate tendencies to associate certain sounds with certain concepts. Indeed, some scholars have attempted to show exactly this point and refute Saussure’s theory.

While scholars of both linguistics and literature found Saussure’s logic fascinating and adopted his structuralist viewpoint, some have voiced arguments against Saussure’s analysis. For example, in 1929 and again in 1947, the German-American psychologist, Wolfgang Kohler, argued that some sounds have a natural link with certain ideas regardless of the speaker’s language. He tried to prove his point by showing that most people associate the non-sensical word “takete” with a jagged shape and another non-sensical word “baluba/maluba” with a rounded shape.⁹⁾ His

9) More information can be found in his book: Kohler, Wolfgang. *Gestalt Psychology: The Definitive Statement of the Gestalt Theory* (New York: Liveright, 1970).

study did not gain much attention, but in 2001, Vilayanur Ramachandran improved the scientific method and retested the experiment with the made-up words “bouba” and “kiki” with the following shapes:



<Image 1>

According to the experiment, 95% to 98% of people, regardless of their native language or culture, called the rounded shape as “bouba” and the spiky shape as “kiki.”¹⁰⁾ Even 2.5-year-old children who could not yet read and barely spoke their native tongue showed similar results. This finding is significant because it suggests that children already associate certain meanings with specific sounds before semantic values are attached to those phonemes as a result of language acquisition.¹¹⁾ Some scholars think that labial consonants and rounded or back vowels in “bouba” naturally evoke roundness while velar consonants and unrounded, front vowels in “kiki” suggest sharpness. Scholars have and still conduct similar experiments to this day to support phonetic symbolism.

I shall briefly mention some additional studies that support sound symbolism and dismiss Saussure’s semiology. Many scholars have pointed

10) Ramachandran, V. S. and Hubbard E. M. “Synesthesia: A Window into Perception, Thought and Language”, *Journal of Consciousness Studies* 8.12 (2001), pp. 5-6. To eliminate cultural or linguistic biases as much as possible, the survey was conducted in various parts of the world, ranging from countries, like Japan and Germany, to remote populations in Namibia with little to no exposure to Western influences. Regardless of the culture, the experiment yields similar results.

11) Maurer D., Pathman T., and Mondloch C. J. “The Shape of Boubas: Sound-shape Correspondences in Toddlers and Adults”, *Dev Sci.* 9.3 (2006), pp. 319-20.

out that certain sound combinations conjure certain sensations or images. For example, the phonetic combination 'gl' in English often signifies light or shimmer: e. g. "glimmer," "glisten," "glow," "glaze," "gleam," "glitter," etc. German linguist, Hans Marchand, even compiled a comprehensive list of such sound combination in English in his article, "Phonetic Symbolism in English Word formation."¹²⁾

Recently, another linguist, Gwilym Lockwood, has attempted to refute the Saussurian principle by showing Japanese ideophones – onomatopoeic words for describing actions or feelings – to Dutch speakers and making the them match the Japanese words to the correct meanings.¹³⁾ Lockwood demonstrates that, despite knowing no Japanese, the Dutch speakers correctly matched the Japanese ideophones to their meanings, and this finding directly opposes Saussure's dismissal of any natural bond between onomatopoeia and meaning. Some linguists also note that words for certain concepts contain similar phonemes cross-linguistically. For example, the word for "chicken" has a velar stop, like 'k' or 'g', in a disproportionately large number of languages. Even languages whose word for "chicken" has no velar stop often had such a phoneme earlier in history. Judging by all these exampl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ignifier and the signified may not be completely arbitrary.

III. Sound Symbolism in Literature

Saussure's founding of semiology certainly revolutionized the field of linguistics, but one might question how it affected literature. Firstly, the French linguist influenced the Prague school of linguists, including Roman

12) Marchand, Hans. "Phonetic Symbolism in English Word Formation", *Indogermanische Forschungen* 64 (1959), pp. 256-277.

13) See this article for more details on the experiment: Lockwood, Gwilym; Dingemanse, Mark; Hagoort, Peter, "Sound-Symbolism Boosts Novel Word Learning",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2016), pp. 1-8.

Jakobson and Nikolai Trubetskoi, both of whom also contributed to literary criticism. Their empirical approach to literary analysis led to Shklovsky's founding of Formalism. In a sense, Shklovsky liberated the literary form from the content — just Saussure freed the signifiers from their signified. After Formalism, semiology also inspired the rise of Structuralism, represented by scholars, such as Levi-Strauss. Then Structuralists who later became Post-Structuralists, like Roland Barthes, considered Saussure's semiology "the only way out."¹⁴⁾ Undoubtedly, Saussure's contribution to linguistics left a lasting imprint in literature.

However, just as oppositions to the Saussurian theory continued in linguistics, not all writers accepted the arbitrariness of the sign. Sound symbolism, which contradicts the former idea, became prevalent in some Russian Futurists, such as Aleksei Kruchenykh and Velimir Khlebnikov. In his article, "'Language of Presence' and Perceptual Meaning," Munsu Choi surveys the rise of sound poetry in the twentieth century across various languages and cultures.¹⁵⁾ I shall briefly summarize some key points he makes regarding the Russian Futurists. Firstly, Choi emphasizes the "physicality" of sound production, which contributes to the universality of sound poetry.¹⁶⁾ Then he highlights the difference between the Italian and Russian Futurists regarding their use of sounds. The Italian Futurists simply translate reality into onomatopoeic expressions while their Russian counterparts use innovative sound combinations to create new words that transcend the rationale, as the word "zaum'" suggests.¹⁷⁾

In some ways the zaum' poets were returning to the eighteenth-century tradition of sound symbolism. However, these Futurists added a whole new dimension to Lomonosov's model of sound symbolism, which had become

14) See Adam Phillips's Introduction in *Roland Barthes by Roland Barthes*, Translated by Richard Howard (New York: Hill and Wang, 2010), p. ix.

15) In Korean: 최문수(2011) 「소리시—'존재의 언어'와 지각적 의미」, 『영어영문학』 57(4)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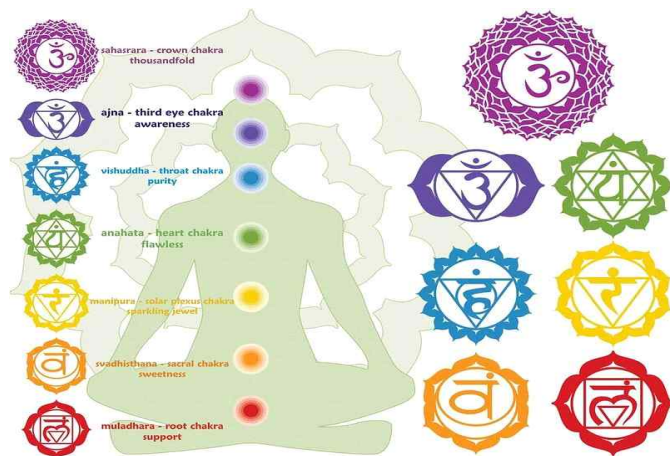
16) 최문수, 앞의 논문, 2011, 676쪽.

17) 최문수, 앞의 논문, 2011, 677-78쪽.

stale and hackneyed. For example, the sound “zh (ж)” was supposed to signify tenderness, and, the word “нежный (tender),” matching in sound and meaning, turned into a cliché when rhymed with other similar words with “zh (ж),” such as “снежный (snowy),” which represented a similar concept of purity. Eighteenth-century sound symbolism thus gave equal weight between the sound and the meaning. In contrast, twentieth-century sound symbolism severs the historically associated semantic value from the phoneme so that the sound units themselves are estranged. I will apply Hindu and Buddhist principles of mantras to examining a zaum' manifesto and poetry to understand better the transcendental nature of zaum' works.

III.1. Sound Symbolism in the Vedic Tradition

In Hinduism and Buddhism, a mantra consists of a syllable, word or phrase that is considered divine in origin and therefore repeated in religious rituals or meditations.¹⁸⁾ The word ‘mantra’ comes from Sanskrit and translates as “instrument of thought.” Originally, specific sounds in the language corresponded to certain colors, body parts, and spiritual energy or power.



<Image 2>

18) “Mantra,” *Chambers Dictionary of the Unexplained*, Edited by Una McGovern (Chambers Harrap, 2007).

Mantras first appeared in the collection of Hindu Vedic hymns and chants known as the Samhitas, which date from around the second millennium B. C.¹⁹⁾ Although mantras originated with Hinduism, and are particularly important in Tantrism, they were later adopted as a central element of Buddhism. In this tradition, one can recite mantras during meditation to achieve enlightenment, and in the branch of yoga known as “mantra yoga” meditation while chanting a mantra is said to allow the yogi to transcend the mind and emotions, and to experience the superconscious. This idea of transcendence into the superconscious becomes important when analyzing zaum’ poetry.

Below, I quote an explication of “mantra” in the *Chambers Dictionary of the Unexplained*:

In the Vedic tradition, sound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principles of existence, being both the source of matter and the means of attaining freedom from it. A mantra is believed to be a manifestation of ultimate reality as a sound form, the repetition of which has the power to bring into being the reality it represents. Repeating a mantra produces a physical vibration which is thought to bring about in the subtle body of the speaker a powerful resonance, which corresponds to the specific spirit energy frequency and state of consciousness represented by and contained within the mantra. By chanting the mantra, the practitioner is said to be able to produce a spiritual effect which is associated with the physical sensation of the vibration the chant produces, eventually leading to its physical manifestation.... Repetition of mantras, known as mantra japa, is an established practice in all forms of Hinduism, and through japa, the devotee seeks to achieve complete focus on the chosen deity or idea expressed in the mantra, with the ultimate aim of attaining moksha, or enlightenment and release from the cycle of death and reincarnation.²⁰⁾

19) Ibid.

20) Ibid.

Notice the emphasis on the physicality of chanting here. As the scholar Choi mentioned, it is crucial to note that the production of sound is a very “physical” process, which many forget out of habit. Focusing on the very physical sensation awakens us to the “life force.” A practitioner should feel the breathing, air flow, and vibration as he enunciates every phoneme, and this process opens up the third eye – the spiritual one, capable of seeing the truth. Furthermore, while some mantras, like Nama Sivaya (“homage to Siva”), have a linguistic meaning, others, such as bija (“seed mantras”) have no semantic value, but are believed to have even greater power.²¹⁾ The meanings of words in mantras yield themselves to the very sounds themselves.

III.2. Sound Symbolism in Russian Futurism

The Futurists, especially the poets of zaum', adopt a similar concept as the mantra and take it to the extreme. They deconstruct language into its most basic building blocks – the sound units – to awaken the readers from *byt* (быт) and allow them transcend to a higher realm. Just like the mantras, the zaum' poets “enlighten” the readers to the sheer physicality of sound production. This enlightenment allows them to experience something beyond their everyday reality. After all, the term “zaum” (“trans-rational”) implies transcendence beyond the human conscience or experience. There exists a spiritual aspect to what may initially seem like nonsensical strings of sounds.

Khlebnikov represents one of the most experimental Futurists and zaum' poets. Myung Hyun Lee states that no avant-garde artist in Russia or Europe conducted experiments with language that were as revolutionary as that of Khlebnikov.²²⁾ In 1919, Khlebnikov writes the manifesto, “To the Artists of the World! (Художники мира!),” in which he attempts to create a “common

21) Ibid.

22) 이명현, 「홀레브니코프의 세계어 창조 기획 I」, 『슬라브학보』 29(3) (2014), 155 쪽.

language shared by all the peoples.”²³⁾ This language would not be any conventional language, but rather a system of sounds and hieroglyphs that convey meaning in and of themselves. Thus, “words” of specific semantic values would not be necessary. Like Lomonosov, Khlebnikov lists the alphabets of Russian and describes what these sounds signify:

1) В на всех языках значит вращение одной точки кругом другой или по целому кругу или по части его, дуге, вверх и назад.

2) Х значит замкнутую кривую, отделяющую преградой положение одной точки от движения к ней другой точки (защитная черта).

3) З значит отражение движущейся точки от черты зеркала под углом, равным углу падения. Удар луча о твердую плоскость.

1) В in all languages means the rotation of one point around another or around the whole circle or part of it, an arc, up and back.

2) Х means a closed curve, separating with an obstacle the position of one point from the movement of another point towards it (a protective feature).

3) З means the reflection of a moving point from the mirror feature is at an angle, equal to that of the fall. An impact of a beam on a solid plane.

The above passage represents only a fraction of the manifesto, which continues to list the significance of specific consonants and combinations of a consonant and a vowel. Khlebnikov believed that language developed naturally from a few basic units of consonants and vowels.²⁴⁾ In this language, consonants and vowels contain completely self-sufficient meanings — which represent both the beginning and the end of the poet’s investigation of language.²⁵⁾ It is noteworthy that the Futurist uses

23) Khlebnikov, Velimir. *The King of Time: Selected Writings of the Russian Futurian*, Translated by Paul Schmidt, Edited by Charlotte Dougla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1985), p. 146.

24) Гофман В. *Язык литературы: Очерки и этюды*, Л.: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литература, 1936, с. 249.

consonants and vowels of the Russian language to make universal claims as one can see in phrases like “in all languages (на всех языках).” Of course, the poet’s over-generalization presents some shortcomings. Unlike Lomonosov, who specifically discusses Russian poetics and rhetoric, the Futurist poet assumes that these sounds imply same concepts in all languages without even offering examples of these sounds and their roles in other languages.

Nevertheless, Khlebnikov’s attempt to universalize language displays some transcendental quality. Instead of describing sounds with descriptive words, like “tenderness,” as Lomonosov did, the zaum’ poet expresses sounds spatially – often involving a point moving toward some space. Do note all the spatial words, such as “turning (вращение),” “movement (движени[е]),” and “moving (движущейся).” In light of mantras that have spiritual powers, Khlebnikov may be trying to “move” readers from the physical realm to a metaphysical one through the power of sounds.

The poet’s attempt at “universalization” parallels the most powerful mantra of all: the sound “om.” Among the basic mantras and their corresponding chakras, “om (ॐ)” lies at the crown of the person because it links one’s soul to the rest of the universe. The open sound “om” – notice that it does not even have an initial consonant – is considered to represent the entirety of the universe because it can physically be held eternally: both “o” and “m” are sonorants, meaning that the air flow is not obstructed. In fact, the “m” sound is often not clearly enunciated, but it rather nasalizes the previous vowel. The word “om” itself has no meaning, but because of the sound quality, it paradoxically means everything. The emphasis on the physicality of sound production parallels Khlebnikov’s incantations (пения) consisting of phonemes that have no apparent semantic value. Khlebnikov may strip sounds of semantic associations to their bare elements in order to

25) Винокур Г. О. “Хлебников: Вне времени и пространства”, *Мир Велимира Хлебникова: Статьи. Исследования 1911-1998*, М.: Языки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2000, с. 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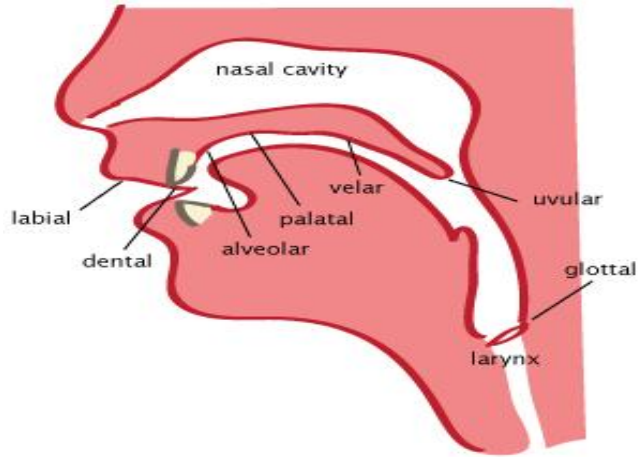
experience something beyond human conscience and something universal.

The transcendental nature of Khlebnikov's poetics is most noticeable in the poem "Bobeobi":

Бобэоби пелись губы,
Вээоми пелись взоры,
Пиээо пелись брови,
Лиэээй — пелся облик,
Гзи-гзи-гзэо пелась цепь.
Так на холсте каких-то соответствий
Вне протяжения жило Лицо.

In the entire incantation, the chanting agent is not a whole person, but a deconstructed part of the person, like his lips and glances. The poem ends with the word "Лицо," which of course can mean one's "face," but also a person or an individual. The capitalization of the word reinforces this double entendre with possibly an Orthodox Christian tinge — since the lyrical hero enters an incorporeal realm. Once a person's deconstructed parts recite these trans-rational chants/mantras, they are reassembled into a new being that has transcended the everyday realm and now lives beyond all dimensions.

In the first line we hear the lips sing "bobeobi (бобэоби)." It makes sense that the lips produce the voiced bilabial consonant "b." The sound is called "bilabial" precisely because it is produced by the two lips. Also, in terms of place of articulation, the bilabial consonants precede all other consonants, which are produced further back in the mouth. Thus, spatially, one starts from the most basic unit of sounds — from the lips. It is no coincidence that some variations of "mama" and "baba" — both of which contain bilabial consonants — represent the first sounds that babies make and therefore often become assigned to mean their parents. The fact that the lips produce the most basic and intuitive sound makes the first line of the poem the most "rational."



<Image 3>

Places of articulation. The first place is the “labial” position, or the lips.

By the end of the poem, it becomes clear that we have moved from the most physical realm – the production of labial sounds by the lips – to some space outside of everyday human conscience. In fact, the very last line signifies that the poem ends “beyond dimension (вне протяжения).” This shift suggests transcendence. The line before contains the word “correspondences (соответствий),” which refers to the connections made in sound symbolism that open up a path to enlightenment. The last word of the poem is “the Face (Лицо),” or the acting individual as I discussed above. The final enunciation of the stressed “o” serves as the bridge to the superconscious, just as the mantra “om” sits on the crown of the head and connects the human mind to the eternal.

Likewise, Kruchenykh also attempted to create a universal language through the use of sounds. He initially dismissed Khlebnikov’s wordplay with Slavic roots — such as the one in poems like “Invocation of Laughter (Заклятие смехом)” — because such an experiment with established associations between sound and meaning restricted one to the Slavic realm.²⁶⁾ Admittedly, Khlebnikov himself realized this limitation and continued

26) 이대우, 「크루초치흐 시의 유형학적 분류」,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39 (2012),

to deconstruct language as much as possible to reach some universal language.²⁷⁾

In any case, compared to Khlebnikov, Kruchenykh loved to play with vowels more than consonants.²⁸⁾ I already mentioned that the mantra “om” embraces the entire universe because both ‘o’ and ‘m’ or simply a nasalized ‘o’ is a sonorant that can be sustained perpetually. This notion aligns with the way in which Kruchenykh, in his manifesto “The Declaration of the Word as Such (Декларация слова, как такового),” argues that vowels create a universal language – as opposed to consonants, which restrict us to *byt*.²⁹⁾ For the poet, most consonants obstruct the airway and thus prevent an eternal flow of sound that can convey us to a higher realm. In fact, his *zaum’* poetry “The Heights (Высоты)” (1913) embodies this very concept:

е у ю
и а о
о а
о а е е и е я
о а
е у и е и
и е е
и и и и е и и

The word “Heights” in the title already suggests an experience that will

61쪽.

27) 이명현, 「홀레브니코프의 세계어 창조 기획 I」, 『슬라브학보』 29(3) (2014), 169쪽.

28) For more information on Kruchenykh, see Dae Woo Lee’s article, “Typological Classification of Kruchenykh’s Poetry.” In it he categorizes the poet’s chronological works into four categories: “orchestra-poetry,” “sound-poetry,” “vowel-poetry,” and “graphic-poetry.” In this article, I list one of Kruchenykh’s “vowel-poetry” as an example of *zaum’* poetry that differs from Khlebnikov’s mostly consonant-based *zaum’* works.

29) Lawton, Anna. *Russian Futurism through its Manifestoes, 1912-1928*, Translated and edited by Anna Lawton and Herbert Eagl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8), p. 67.

uplift the human soul to something above. Thus, one sees a parallel with the transcendental feature of Khlebnikov's poetry and similarities with mantras.

The only real words in the poem appear in the first line: "a Universal language (Вселенский язык)." Kruchenykh explicitly clarifies his intent to create a universal language, just as the other zaum' poet. Then comes a string of nonsensical vowel sounds. Because the first line ends in "u iu (y ю)," which sounds like a verbal or adjectival ending, it may initially seem like there lies some semantic logic. However, chanting the rest of the poem makes it clear that no semantics exists.³⁰ Nevertheless, reciting the poem starts to resemble a Hindu or Buddhist mantra, in which the sound and its air flow carry the reciter to a higher realm. From Kruchenykh's point of view, eliminating all the consonants or obstructions to vocal vibration truly creates a universal language, like "om," and allows one to reach spiritual heights beyond mundane human experience and conscience.

IV. Conclusion

The zaum' poets undoubtedly adopt sound symbolism of the eighteenth century, which was scrutinized in the following century when Saussure founded semiology. However, unlike their eighteenth-century counterpart, Khlebnikov and Kruchenykh utilizes sound symbolism to deconstruct language to the bare sound units to create a universal language that will help humans transcend to the superconscious. Admittedly, it would also be interesting to examine other early twentieth-century movements, like Symbolism, in light of sound symbolism. After all, Andrei Bely also believed that each sound represented certain ideas, and character names themselves, like Apollon Apollonovich and Lippanchenko, exhibit the author's play with the sounds 'p' and 'l.' One could also discuss the

30) Kruchenykh later provided a decipherment of "The Heights" by offering a Church Slavonic hymn in which the sequence of vowels matched that in his original poem. Nevertheless, the vowel-only version is meant to suffice in allowing one to experience a transcendental experience — as if he is chanting a hymn.

impact of synesthesia, which famous Russian musicians like Scriabin had. While comparing Futurists and artists of other movements and media regarding sound symbolism may yield some interesting insights, such comparative analyses lie beyond the scope of this article. Nevertheless, I hope that my investigation will encourage further exploration in this field.

참고문헌

1. 이대우, 「크루초네희 시의 유형학적 분류」,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39, 2012.
2. 이명현, 「홀레브니코프의 세계어 창조 기획 I」, 『슬라브학보』 29(3), 2014.
3. 최문수, 「소리시 — ‘존재의 언어’와 지각적 의미」, 『영어영문학』 57(4), 2011.
4. Гофман В. *Язык литературы: Очерки и этюды*, Л.: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литература, 1936.
5. Винокур Г. О. “Хлебников: Вне времени и пространства”, *Мир Велимира Хлебникова: Статьи. Исследования 1911-1998*, М.: Языки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2000.
6. Ломоносов М. “Краткое руководство к красноречию. Книга первая которая, в которой содержится риторика, показывающая общие правила обоего красноречия, то есть оратории и поэзии, сочиненная в пользу любящих словесные науки”, Ломоносов М. В.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М.: Академия Наук СССР, 1952.
7. Barthes, Roland. *Elements of Semiology*, Translated by Annette Lavers and Colin Smith, New York: Hill and Wang, 1968.
8. _____. *Roland Barthes by Roland Barthes*, Translated by Richard Howard, New York: Hill and Wang, 2010.
9. Khlebnikov, Velimir. *The King of Time: Selected Writings of the Russian Futurian*, Translated by Paul Schmidt, Edited by Charlotte Dougla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5.
10. Kohler, Wolfgang. *Gestalt Psychology: The Definitive Statement of the Gestalt Theory*, New York: Liveright, 1970.
11. Lawton, Anna. *Russian Futurism through its Manifestoes, 1912-1928*, Translated and edited by Anna Lawton and Herbert Eagl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8.
12. Lockwood, Gwilym, Dingemanse, Mark, and Hagoort, Peter, “Sound-

- Symbolism Boosts Novel Word Learning”,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2016.
13. “Mantra,” *Chambers Dictionary of the Unexplained*, Edited by Una McGovern, Chambers Harrap, 2007.
 14. Marchand, Hans. “Phonetic Symbolism in English Word Formation”, *Indogermanische Forschungen* 64, 1959.
 15. Maurer D., Pathman T., and Mondloch C. J., “The Shape of Boubas: Sound-shape Correspondences in Toddlers and Adults”, *Dev Sci.* 9(3), 2006.
 16. Ramachandran, V. S. and Hubbard E. M. “Synesthesia: A Window into Perception, Thought and Language”, *Journal of Consciousness Studies*, 8(12), 2001.
 17. Saussure, Ferdinand de.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 Translated by Wade Baskin, New York: McGraw-Hill, 1959.
 18. Smolinsky, Stephanie. *Brilliance, Energy and Size in Vowels: A Cross-Linguistic Study of Phonetic Symbolism*, Ann Arbor: City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1.

Abstract

Sound Symbolism and Zaum'
Transcendence through the Power of Sound

Lee, Taehu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article aims to reevaluate the zaum' poems of Khlebnikov and Kruchenykh based on the historical evolution and significance of sound symbolism. Both poets deconstructed language to basic sound units of consonants and vowels and tried to create a new universal language — albeit in their own ways. Sound symbolism represents the perceived connection between speech sounds and their meanings, and this concept has existed as far back as Ancient Greece and India. The eighteenth-century poet, Mikhail Lomonosov, also utilized sound symbolism to give particular meanings to certain sounds and wrote poems based on these associations. In the nineteenth century, however, the French linguist, Ferdinand de Saussure, founded semiotics (or semiology) and asserted the arbitrariness between the signifier (pattern of sounds or letters) and the signified (the expressed meaning). This idea of “the arbitrariness of the sign” directly contradicted sound symbolism and has been widely accepted by philologists to this day.

Given this situation, how should one interpret Khlebnikov and Kruchenykh's zaum' poetry and the sound symbolism within it? This question represents the focus of my article. Before diving into the poetry itself, I shall first briefly survey the theories and research on sound symbolism so far. One can truly appreciate Khlebnikov and Kruchenykh's works only after understanding in what historical context they started experimenting with sounds. Finally, I shall analyze some of the artists' major works to reevaluate how they attempted to create a universal language through connections between sounds and meanings.

Key words : Zaum', Sound Symbolism, Sound Poetry, Universal Language, Khlebnikov, Kruchenykh

The Sensual and Semantic Anointing in Andrei Platonov's *Chevengur*

Jung, Byungsam*

국문 초록

이 논문은 안드레이 플라토노프의 소설 『체벤구르』에서 나타나는 ‘기름 부음’의 주제를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비천(abjection) 이론을 통해 분석한다. 신학적 의미의 ‘기름 부음’은 육체성과 영혼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신체에 향유를 붓는 행위는 신의 섭리를 내면화하고 영적 공동체와의 통합을 상징하는데, 플라토노프의 소설에서는 체액이 그 역할을 한다. 크리스테바는 체액을 의미와 정체성의 붕괴를 초래하는 요소로 보지만, 플라토노프는 그것을 주체 간의 간극을 회복하는 매개체로 본다. 『체벤구르』에서 체액은 인간 영혼의 물질화를 나타내며, 이러한 액체를 몸에 붓는 행위는 이상적이고 원초적인 상호 주관적 관계의 상태를 회복시킨다. 본 연구는 플라토노프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도유의 형태를 이해하고, 이러한 ‘기름 부음’을 통해서만 ‘새로운 인간’이 완성될 수 있음을 규명한다. 이러한 변화는 플라토노프의 언어에서도 드러나는데, 단어는 모순되거나 예상치 못한 의미와 연결됨으로써 풍부해지며 변형되며 재정의된다. ‘의미적 기름 부음’이라 부를 수 있는 이 현상은 전체주의 체제가 강요하는 경직된 언어적 틀에 대립하는 플라토노프의 글쓰기이다. 이 논문은 도유가 인간을 변형시키듯 플라토노프의 독특한 언어 역시 인간과 사회를 변형시킬 힘을 갖고 있음을 주장한다.

주제어 : 기름부음, 비천, 크리스테바, 스탈린, 체액

* 시라큐스 대학교 언어, 문학, 언어학부 강의전담 조교수, byjung@syr.edu

I. Introduction

The interplay between corporeality and spirituality serves as a central structural framework in almost every Andrei Platonov's work. The binary opposition reinvigorates the meanings of these concepts by shifting them from fixed, traditional interpretation to more fluid, dialectical ones.²⁾ In Platonov's *Chevengur* (1928), the theological concept of anointing follows a similar dynamic, oscillating between the physical and metaphysical realms. By focusing on this dual nature of anointing, we can better understand how Platonov's vivid, often coarse language blurs the boundaries between the sacred and the profane, thereby challenging conventional distinctions.

This article explores the physical dimension of anointing in Platonov's novel *Chevengur* and investigates its ideological and theoretical foundations, particularly in relation to Julia Kristeva's concept of "abjection." In her monograph *Powers of Horror: An Essay on Abjection* (1980), Kristeva introduces the notion of the "abjection," which she defines as the subjective reaction to a breakdown in meaning triggered by the collapse of the boundary between subject and object. This reaction can be caused by substances like corpses, urine, blood, sperm, excrement, or even something innocuous as the skin that forms on the surface of milk, which Kristeva categorizes as "abject." The abject occupies a liminal space between the object and the subject. Initially, the abject is a part of the subject, but it is later expelled as it "disturbs identity, system, order."³⁾

2) Many Russian thinkers, including Andrei Platonov, were preoccupied with dualism, particularly the divide between abstract concepts (like spirit and matter, or God and man) and how this dualism plays out in language. Thomas Seifrid references Mikhail Bakhtin to show how these artists blurred conventional distinctions between categories like abstract and concrete, animate and inanimate. Seifrid argues that these distinctions are embodied in the very structure of the language, reflecting an effort to dissolve boundaries between different aspects of experience, such as the self and the external world. Seifrid, *Andrei Platonov. Uncertainties of Spiri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29–31.

3) Julia Kristeva, *Powers of Horror: An Essay on Abjection*, trans. Leon Roudiez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2), 4.

My argument centers on the idea that in *Chevangur*, human inner liquids are portrayed as the materialized human soul. However, unlike Kristeva's concept of the abject, where bodily fluids signify a breakdown of meaning, Platonov's depiction of these fluids leads to a restoration of meaning.⁴⁾ Specifically, the act of pouring the materialized soul over the body restores the primordial, ideal state of intersubjective relations, which can be identified, from the theological aspect, as the epistemological epiphany in perceiving and understanding the world and a literal transformation of the body.

In contrast to Kristeva's focus on the disruptive nature of the abject, I propose that Platonov's use of bodily fluids serves to reconnect individuals with a more elemental sense of meaning. Drawing on this process of restoration, I introduce a term "semantic anointment," which allows language to create and absorb new meanings by blurring the semantic boundaries—or more precisely, revealing their constructedness—in the existing linguistic system. This term refers to the process in which the meaning of a word or phrase is enriched, transformed, or redefined through its association with other contradictory or unexpected meanings, often challenging fixed interpretations. By accepting the abject, Platonov's language generates new thought, in contrast to the rigid linguistic frameworks imposed by totalitarian regimes. Through its analysis of

4) Analyzing Platonov's *Kotlovan*, Ra, Seung-do investigates the symbolic meaning of bodily fluids—sweat, tears, sperm—as representing labor, emotion, life, and as much as abstract concepts like time and thoughts. He argues that the imagery of "fluidity" signifies subversion of expectations, particularly linked to labor and futility in Soviet reality. Seung-do Ra, "The Semantics of Water: The Subversive Imagination in Platonov's *Kotlovan*," *Foreign Literature Studies* 19 (2005): 157–177. Similarly, he analyzes various water imagery, including human fluids, in Platonov's *Chevangur*. He juxtaposes fluid and stagnant water, arguing that this contrast forms part of Platonov's distinctive narrative strategy, which illustrates both the physically ambiguous utopia of *Chevangur* and the chaotic psychology of its leader Chepurnyi. Seung-do Ra, "The Narrative Discourse of Water: The Hydrological Imagination in A. Platonov's *Chevangur*," *The Journal of Slavic Studies* 21, no. 3 (2006): 159–183. While Ra focuses on the subversive potential of fluidity, my approach highlights restoration and intersubjectivity through anointing and bodily fluids.

Platonov's coarse but vivid language, this article argues that *Chevangur* reclaims the transformative power of language and bodily fluids, suggesting that meaning is renewed through connection to the abject, rather than its expulsion.

This article begins by exploring the theological and symbolic roots of anointing, followed by an analysis of how Platonov reinterprets these concepts in *Chevangur*. Subsequently, I examine how these themes intersect with Mikhail Bakhtin's concept of becoming the other and Kristeva's notion of abjection, arguing that Platonov redefines the role of bodily fluids as a transformative, rather than destabilizing, force. In the final section, I analyze Platonov's depiction of Iosif Stalin's linguistic policies, arguing that Platonov's use of coarse language subverts Stalin's rigid view of language as a fixed system for controlling thought and society. Through this destabilization of language, or semantic anointment, Platonov undermines the political forces that sought to standardize and control the production of meaning.

II. Theological Meaning of Holy Unction and Its Variations

Holy Unction, or the Sacrament of the Anointing of the Sick, is defined as "ritual application of oil or fat to the head or body of a person."⁵⁾ In the tradition of the Orthodox Church, however, Holy Unction is not only administered to those suffering from physical illness but is also intended for spiritual healing and the forgiveness of sins. The power and the new life initiated through Baptism are further developed and sustained through Unction.⁶⁾

Nicholas Cabasilas, a Byzantine mystic and theologian, argues that in the

5) Britannica, T. Editors of Encyclopaedia. "anointment." *Encyclopedia Britannica*, September 20, 2011. <https://www.britannica.com/topic/anointment>.

6) Ioniță Apostolache, "The Unification Mystery of Christ in Church: The Orthodox View on the Preparation for Receiving of the Holy Eucharist," *Liturgia Sacra* 25 (2019), 503.

act of unction, people are anointed and washed by Christ Himself. Through this sacrament, Christ “activates the energies of the Spirit” and “entirely changes him, and transforms him into His own state.”⁷⁾ The Sacrament of Holy Unction thus signify the “hope that Christ suffer[er]s together with the sick give the strength of repentance and of physical and spiritual rehabilitation that restores the man in the presence of God.”⁸⁾

This rite carries two key meanings that are relevant to my analysis. First, the anointing of the sick symbolizes consecration—an integration into the spiritual community. Second, it signifies a change in status, both socially and biologically. Socially, anointing can elevate a previously secular individual, such as transforming a common person into a king. Biologically, it marks transitions, such as from life to death. These dual aspects of anointing are deeply rooted in biblical tradition.

First, anointing allows the chosen individual to transcend physical desire and become part of the holy communion. Anointing leaves a physical vestige of God’s providence on the human body. Through tactile and olfactory perceptions, the anointed person absorbs the aromatic liquid, internalizing its metaphysical significance as a connection to the divine. In Romans 11:24 (the New King James Version), the parable of the olive tree serves as an allegory of consecration: “. . . you were cut out of the olive tree which is wild by nature, and were grafted contrary to nature into a cultivated olive tree. . .”⁹⁾ Here, the wild olive branch represents the Gentiles, who, though initially unworthy, were newly grafted into the holy communion, or as represented in this verse, into a cultivated olive tree. Paul the Apostle emphasizes here how the Gentiles were unqualified to become God’s people, and it was God’s grace that allowed the Gentiles to

7) Nicholas Cabasilas, *The Life in Christ*, trans. Carmino J. deCatanzaro (New York: St. Vladimir’s Seminary Press, 1998), 113.

8) Cătălin Vatamanu, “The Specificity of Orthodox Mariology Reflected in the Sacrament of Holy Unction. A Biblical, Liturgical, and Patristic Argumentation,” *Teologie și Viață* 9 (2012): 46.

9) Hereafter, all Bible quotes are from the New King James Version.

transcend their nature. In this respect, the symbol of consecration, symbolized by anointing, can be understood as the suppression of natural desire and integration into the spiritual community.

In addition to its spiritual meaning, anointing also implies a significant change in status, which carries strong political implications. The idea that a previously secular individual can be transformed into a king through anointment is inherently subversive, as it confronts the established power structure. The term “messiah,” meaning “the anointed one,” underscores this transformative potential. In Matthew 10:34-35, the messiah declares, “I did not come to bring peace but a sword. For I have come to set a man against his father, a daughter against her mother, and a daughter-in-law against her mother-in-law.” According to this verse, the role of the anointed one is to disrupt the existing order and authority, paving the way for a new spiritual order. The accusation against “Jesus of Nazareth, the King of the Jews,” centered on this challenge to the status quo. This transformation applies not only to social status but also to life’s biological cycles. In extreme unction,¹⁰⁾ for instance, the anointing of a sick person with oil provides comfort and courage as they approach death. Thus, the act of pouring aromatic liquid over the body presupposes the eventual dissolution of existing systems, whether political or biological.

In *Chevangur*, Platonov presents variations on this theological concept of anointing, shifting its focus from the spiritual to the corporeal realm. While the act of anointing retains its theological overtones, these spiritual meanings are reframed within Platonov’s exploration of human relationships. His depiction of anointing emphasizes the creation of a new kind of person and the blurring of boundaries between life and death. Valery Podoroga argues that a figure in Platonov’s worldview does not equal to the sum of

10) The anointment was not called as extreme unction in the Eastern Orthodox, since the sacrament was administered even to healthy persons to prevent illness. The healing aspects of anointment have been considered most important. Britannica, T. Editors of Encyclopaedia. “anointment.” *Encyclopedia Britannica*, September 20, 2011. <https://www.britannica.com/topic/anointment>.

its parts; it functions as a site of transformation, where the visible shifts into the invisible, the living into the dead. Thus, the figure embodies the passage from one form of existence to another.¹¹⁾ This transformation is central to Platonov's discourse on forging visible connections between people.¹²⁾ Numerous examples from *Chevengur* illustrate this idea.

The most obvious and relevant example of anointing in *Chevengur* is the instructor's (*nastavnik*) death. Before he dies, the instructor requests that petroleum be poured over his head, turning it black. This act of anointing evokes the ritual of extreme unction, yet its biblical meaning seems hollow in this context. The instructor neither internalizes divine providence nor prepares for death. The smearing of his wound with the coal oil merely changes the color of his hair, without imparting any deeper spiritual transformation.

Later, Platonov depicts a second stage of anointing, this time involving the instructor's own blood:

Машинист-наставник закрыл глаза и подержал их в нежной тьме; никакой смерти он не чувствовал — прежняя теплота тела была с ним, только раньше он ее никогда не ощущал, а теперь будто купался в горячих обнаженных соках своих внутренностей. Все это уже случилось с ним, но очень давно, и где — нельзя вспомнить.¹³⁾

11) Валерий Подорога, *Мимесис. Материалы по аналитической антропологии литературы в двух томах*. Том 2 (Москва: Культурная революция, 2011), 297.

12) Valery Podoroga indicates that Platonov does not approve human-centered space, where the things make up everyday reality; because those things do not connect people, but instead, act as barriers, separating and fragmenting human existence into dust. Rather, Platonov approves the very cracks and flaws within that space, which reveal how it could “leak” or fall apart. Platonov is more attuned to the destructive, hollowing forces within space—those that drain life. Подорога, 296. Podoroga mentions the “eunuch’s gaze of the soul,” which Platonov directs at the world, sensitive to the “void qualities” of the visible world. This gaze seeks out the original emptiness that human experience, time, and objects cannot fill.

13) Андрей Платонов, *Сочинения*. Том третий. 1927–1929. *Чевенгур. Роман* (Москва: ИМЛИ РАН, 2021), С. 45. Hereafter, block quotations from *Chevengur* will be cited from the academic edition: Андрей Платонов, *Сочинения*. Том третий.

In this moment, the instructor experiences his body in a new way. The warmth of his blood, which had previously gone unnoticed, now envelops him as if he were submerged in the raw, exposed fluids of his own being. This visceral sensation evokes a return to a primordial state, though the memory of where or when this experience previously occurred remains distant and unclear. Before the anointment, the instructor was unaware of the warmth of his body. However, through the ritual, he becomes attuned to this warmth—feeling his life and energy in their raw, physical form, in their materiality. This newfound sensation brings the abstract concept of warmth into vivid, sensory reality. It evokes the feeling of being submerged in his mother's womb, and this hazy memory suggests to him the possibility of rebirth. The anointing thus blurs the line between life and death, allowing the instructor to believe that he will transition from one existence to another, as though he is preparing for a new life cycle.

What stands out in Platonov's depiction of anointing is the material used in the ritual. Platonov presents bodily fluids—specifically, the human's inner liquid—as essential to the act of anointing. This raises the question: Does Platonov suggest that these bodily fluids, typically considered waste, can connect people in a way that mirrors the original, sacred meaning of anointing? An example from *Chevengur* offers a clue. Gopner sarcastically asks Chepurnyi whether he has bound the Chevengurians together with spittle or dictatorship: “Только чем тогда люди друг около друга держатся – неизвестно. Что ты, их слюнями склеиваешь иль одной диктатурой слепил?” (269). Here, Gopner equates dictatorship with the crude act of lubricating people together using spittle. This comparison suggests that the anointing motif in *Chevengur* registers a negative

1927–1929. *Чевенгур. Роман* (Москва: ИМЛИ РАН, 2021). Block quotations from *Happy Moscow* and “Rubbish Wind” will be cited from the *Vremia* edition: Андрей Платонов, *Собрание. Счастливая Москва: Роман, повесть, рассказы*. Том 4 (Москва: Время, 2011). Platonov's note will be cited from: Андрей Платонов, *Записные книжки. Материалы к биографии* (Москва: ИМЛИ РАН, 2000). Quotations will be followed by parentheses indicating the respective titles and page numbers.

connotation, associating the physical act of anointing with something degrading. To explore this further, we must consider Platonov's own notes and Kristeva's theoretical insights on the abject.

In his eighth notebook (1931–1932), Platonov reflects on the purpose of art, concluding that it should drive a person beyond the confines of their own mind, which he describes as being filled with “pathetic, liquid, and exhausted substance”:

Очень важно!! Всё искусство заключено в том, чтобы выйти за пределы собственной головы, наполненной жалким, жидким, усталым веществом. Субъективная жизнь - в объекте, в другом человеке. В этом вся тайна. (underline in original, *Записные книжки*, 101–102)

For Platonov, the rationale for subjective life lies in other people. The question, then, is how one can transcend the limitations of the self and reach beyond one's own corporeal boundaries to connect with other people? Platonov asserts that the ultimate goal is to transform oneself into another person—a new kind of person, wholly different from oneself:

Оч. важно. Самое лучшее – перейти в другого человека, в нового человека – ударника, большевика, в противоположность «кантианцу», «полубуржую», «пошляку себялюбия» и пр. – в ночного мыша (вспомни – другое, совсем другое, чем ты). Для романа моего. (102)

In these passages, Platonov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becoming the other” as a motif for his novel *Chevengur*. Here, “becoming the other” implies transforming into a completely different, new being: into a shock worker, into a Bolshevik, and even into a night mouse (an ungrammatical construction intentionally used by Platonov to emphasize transformation into something “entirely different”). Then does Platonov suggest a new way of transformation, or are there any theoretical background to his idea?

Bakhtin's Event of Being and Kristeva's Abject

The idea of “becoming the other” may seem to hark back to Mikhail Bakhtin's concept of the “event of being” (*sobytie bytiia*). Applying Bakhtin's concepts to Platonov's works requires a careful examination of both authors' ideas. While many of Bakhtin's concepts resonate with Platonov's themes, they do so in a more ironic manner, as many scholars have indicated.¹⁴⁾

The event of being concerns the relationship between one person and another.¹⁵⁾ As Thomas Seifrid indicates, Bakhtin's understanding of overcoming the self/other or mind/world dichotomy was influenced by the Orthodox kenotic tradition—a theological concept of the self-emptying of Jesus Christ—which emphasized the “dialogic relationship between spirit and corporeality,” and envisioned the restoration of this binary opposition through transfiguration.¹⁶⁾ However, while Bakhtin's concept of self-transformation is rooted in an epistemological process,¹⁷⁾ Platonov's

14) Natalia Skradol demonstrates that Bakhtin's theory helps us understand the subversions present in *Chevengur*, but its application is complex. According to Skradol, Platonov diverges from Bakhtin by focusing on the tragic consequences of social inversion in a literal sense—an approach Bakhtin likely would not have envisioned in a true carnival setting, where actions are performed “as if” rather than taken literally. Natalia Skradol, “Non-Working, Communism and Carnival: Reading Andrei Platonov's *Chevengur* with Bakhtin,” *The Slavonic and East European Review* 87:4 (2009): 610. Seifrid highlights that Bakhtin and Platonov, inhabiting a Soviet culture shaped by materialist views, delve into the complexities of individual consciousness and its interaction with the world. However, as Seifrid indicates, their approaches diverge subtly in focus. For Bakhtin, he extends the neo-Kantian tradition by acknowledging aspects of reality that cannot be fully integrated into individual consciousness. Platonov takes this idea further by exploring a more radical dissolution of selfhood in favor of unity with the other. Seifrid, 29.

15) Сергей Бочаров, “Событие бытия,” *Новый мир* 11 (1995): 218.

16) Seifrid, 29.

17) In discussing Bakhtin's notion of truth, Erik Dop explores the distinction between an object's properties in-itself (inherent qualities) and for-itself (how it is perceived in a specific context, which can change over time). He explains that the perception of an object for-itself is shaped by both the object's inherent qualities and the external conditions surrounding it, as defined by the perceiving subject. Because the

idea of “becoming the other” centers on the kenotic tradition of accepting foreign substances, signaling a more physical and literal approach to transformation.

In *Toward a Philosophy of the Act* (ca. 1919–1921), Bakhtin elucidates the structure of the “event,” which consists of the dialogic interrelationship between “I” and absolute “other,” which can be formulated as “I-for-myself” (*ia-dlia-sebia*), “I-for-the-other” (*ia-dlia-drugogo*), and the “other-for-me” (*drugoi-dlia-menja*).¹⁸ In *Author and Hero in Aesthetic Activity* (ca. 1920), Bakhtin discu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I” and “other” in terms of self-observation, suggesting that the self is intertwined with the perception of the other; everyone gets used (*vzhit'sia*) to the possibility of others overlapped in the mirror image of oneself:

<...> наше положение перед зеркалом всегда несколько фальшиво: так как у нас нет подхода к себе самому извне, то мы здесь живаемся в какого-то неопределённого возможного другого, с помощью которого мы и пытаемся найти ценностную позицию по отношению к себе самому, из другого пытаемся мы и здесь оживить и оформить себя <...> я не один, когда я смотрю на себя в зеркало, я одержим чужою душой.¹⁹

Bakhtin’s “I-for-myself” lacks an external standpoint from which to observe the totality of the individual, a wholeness that includes the overtone of otherness. This external standpoint, provided by the “I-for-the-other,” involves a dialogical process within the psyche. A pertinent example of this is found in Bakhtin’s *Problems of Dostoevsky’s*

object’s properties are determined by the interaction between its inherent characteristics (in-itself) and the conditions of perception (for-itself), the moment in which these properties are realized within their co-determinate context can be understood as an event. Erik Dop, “A Dialogic Epistemology: Bakhtin on Truth and Meaning,” *Dialogism* 4 (2000), 10.

18) Михаил Бахтин,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семи томах*. Том 1. *Философская эстетика 1920-х годов* (Москва: Русские словари. Языки славянской культуры, 2003), С. 49.

19) Там же. С. 112–113.

Art (1929), where the “I-for-the-other” is framed through the lens of self-reflection. Here, Bakhtin illuminates the notion of “I-for-the-other” in terms of mirror image:

Человек из подполья ненавидит свое лицо, ибо и в нем чувствует власть другого над собою, власть его оценок и его мнений. Он сам глядит на свое лицо чужими глазами, глазами другого. И этот чужой взгляд перебойно сливается с его собственным взглядом и создает в нем своеобразную ненависть к своему лицу.²⁰⁾

Bakhtin’s concept of the “event of being” presupposes the existence of external elements within the individual’s psyche. While Bakhtin’s transfiguration involves an epistemological and hypothetical realization of the perspective within oneself, Platonov’s idea of “becoming the other person”—or becoming a completely new man—is presented in a more material form, one that necessarily involves the elimination of bodily fluids and sharing of them.²¹⁾

In the same notebook along with the aforementioned two passages, Platonov offers a clue about how the transfiguration from one person into another occurs. He writes: “Человек, как хуй – он сбрасывает нечистоты и производит будущее. Хуй – самое яркое выражение жизни” (*Записные книжки*, 102). Here, Platonov suggests that a person creates the

20) Михаил Бахтин,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семи томах*. Том 2. «Проблемы творчества Достоевского», 1929. Статьи о Л. Толстом, 1929. *Записки курса лекций по истории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1922–1927* (Москва: Русские словари, 2000), С. 135.

21) According to Podoroga, Platonov does not depict individual bodies in isolation. Instead, he represents figures, figurations, and configurations—interconnected patterns formed by bodies that transform within a larger mass. The emptying of individual bodies and their “thing-like” surrounding become a form of *strannichestvo*. This wandering is an existential journey where the scattered individual seeks an elusive, unattainable, figure—a lost unity that would restore the missing fragments of life and identity. Подорога, 298. While Podoroga suggests the emptying force of space as crucial in this quest for completeness, I argue that it is the emptying force of the body that is crucial in the quest for completeness.

future by expelling waste. If we follow Platonov's logic described in his notebook, we can conclude that the transformation of the man—or becoming a “new man”—is only possible when one purges the waste, which generates new possibilities and necessitates the acceptance of others' bodily fluids. This process of dejection echoes Kristeva's concept of abjection, where the act of expelling what is considered impure or alien to the self plays a crucial role in defining identity and maintaining boundaries.

In her monograph, Kristeva defines the human body as a “fragile container” that struggles to maintain “the integrity of one's ‘own and clean self.’”²²⁾ To establish a pure sense of subjectivity, the abject must be purged from the body. According to Kristeva, the first abject that one must reject in life is the mother's womb. This idea resonates with Platonov's description of state officials and the other people (*prochie*) in *Chevengur*:

<...> те создали вокруг себя подобие материнской утробы и посредством этого росли и улучшались, словно в покинутом детстве; прочие же сразу ощущали мир в холоде, в траве, смоченной следами матери, и в одиночестве, за отсутствием охраняющих продолжающихся материнских сил. (*Чевенгур*, 239)

According to Platonov, government officials who have constructed an artificial version of the mother's womb are able to thrive in this world, remaining safe and secure as they did in their childhood. In contrast, the *prochie*, who are cast into the world without this protection, have to confront life in solitude—much like Kristeva's concept of the “own and clean self.” While the process of developing subjectivity in Platonov's work shares similarities with Kristeva's notion of abjection, there is a key difference: Platonov's vision of subject formation is retrospective.

At the moment of birth, the *prochie* touched the grass, which was damp with their mother's liquid. This contact with maternal fluid can be seen as their initial experience of anointing. For Platonov, the mother's physical

22) Kristeva, 53.

trace—her liquid—serves as both the first and final sign of her love for the *prochie*, marking a formative moment in their understanding of the world and their place within it.

I argue that in Platonov's works, the notion of anointing the human body with human liquids serves as a way of recovering that initial experience of anointing and primordial state of subjective perfection. In *Chevengur*, a person's "own and clean" subjectivity can only exist in close connection with the first "abject"—the mother's liquid. While Kristeva's abjection centers on the rejection of bodily fluids as a means of maintaining identity, Platonov reframes these same fluids as essential to the formation of intersubjective relations. In *Chevengur*, bodily fluids, rather than being expelled as something abject, are treated as the materialization of the human soul, facilitating a reconnection with the primordial state of being. Where Kristeva emphasizes the breakdown of meaning caused by the abject, Platonov presents bodily fluids as central to the restoration of meaning and the return to an ideal, intersubjective state.

This idea, however, seems to contradict what Platonov writes in his notes, indicating the notion of liquid as waste: "Разговор в бане: «Человек, как хуй — он сбрасывает нечистоты и производит будущее. Хуй — самое яркое выражение жизни»" (*Записные книжки*, 102). How do we reconcile this apparent contradiction between the notion of liquid connecting people and liquid as waste?

First,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is passage is not Platonov's own phrasing; he is quoting someone else, which means the term "*nechistoty*" (waste) may carry a different connotation for him. Second, in Platonov's works, even the dirtiest forms of liquid waste are often imbued with a sense of sublime existence. Even the filthiest things do not provoke any disgust (*brezglivost'*) or abjection in Platonov's characters. For example, in *Happy Moscow* (ca. 1934, 1991), Sartorius perceives Chestnova's waste as a part of her own being, something that can be touched, appropriated, and even tasted:

<...> теперь Москва Честнова и все, что касалось ее, даже самое нечистое, не вызывало в Сарториусе никакой брезгливости, и на отходы из нее он мог бы глядеть с крайним любопытством, потому что отходы тоже недавно составляли часть прекрасного человека. (*Счастливая Москва*, 48)

Moreover, there are certain moments in Platonov's works where characters consciously try to share their bodily fluids, viewing these liquids as the materialized essence of the human soul. A striking example is Sambikin in *Happy Moscow*, who becomes obsessed with the idea that a cistern of immortality exists within the bodies of the dead, and that injecting this fluid into a living person can bring happiness.

However, we must acknowledge that the act of anointing in Platonov's works carries both positive and negative connotations. The negative aspect is tied to the physical side of anointment—when one person pours their bodily fluid onto another's body. This form of anointment is often violent, provoking feelings of grotesqueness and revulsion in the observer. In contrast, the positive connotation emerges from the spiritual dimension of anointment, where the act is seen as a symbol of consecration and a way of joining with others.

For Platonov, it is crucial that the “victim” of this ritual perceives the other's violent acts as a distribution of the other's essential being. By absorbing this essence, the anointed one is transformed into a totally “new man.” This duality—between violence and spiritual consecration—shapes the extraordinary motifs of anointing the human body with inner liquids in *Chevengur*.

Motifs of Anointing in *Chevengur*

The motifs of anointing permeate *Chevengur* and manifest in various forms. One of the most striking examples is the episode where the

cabinetmaker's sons urinate on the sleeping old man, Zakhar Pavlovich. Another instance occurs in Zakhar's dream, where his mother pours her breast milk over his dying father. Finally, there is a scene in which the cabinetmaker's sons deposit their snot into Zakhar's dish. In each of these cases, we see a deliberate act of sharing bodily fluids with others, which highlights Platonov's recurring theme of bodily anointment. These acts are not isolated; they occur within a single, condensed episode, suggesting that Platonov intentionally groups these scenes to emphasize the significance of covering the body with human liquid as a form of anointing.

Это он сказал верно: в первую же ночь сыновья столяра — ребята от десяти до двадцати лет — облили спящего Захара Павловича своей мочой, а дверь чулана приперли рогаком. (*Чевенгур*, 15)

Он начал видеть сны: будто умирает его отец — шахтер, а мать поливает его молоком из своей груди, чтобы он жил; но отец ей сердито говорит: “Дай хоть свободно помучиться, стерва”, — потом долго лежит и оттягивает смерть <...> (15–16)

Сыновья столяра бросили в отдельную чашку Захара Павловича на первый раз соплей, но отец встал и с размаху, без всякого слова, выбил на скуле старшего сына бугор. (16)

All of these examples involve either violence or death. The ostensible violence in these episodes, however, can obscure the deeper significance of human liquids in Platonov's philosophy of life. This perspective becomes clear in the second episode, where Zakhar's mother pours her breast milk onto her dying husband. Her breast milk symbolizes the power to generate life, and in pouring it over her husband, she attempts to suspend the moment of death. At the same time, this act also evokes the sacrament of extreme unction. Her husband, however, resents this attempt to postpone his death, angrily spitting on the ground before dying. In this context, sharing human liquids is equated with sharing life, while expelling liquid from the body (as in the husband's spitting) symbolizes death.

A similar understanding applies to the actions of the cabinetmaker's sons. Zakhar, living in their household, perceives himself as an earthworm—and empty, hollow pipe that has nothing within it: “человек произошел из червя, червь же — это пустая страшная трубка, у которой внутри ничего нет” (15). The metaphor of a hollow pipe—it is hollow because it is waterless—reflects Zakhar's own emptiness, his lack of water or life force. It is therefore no surprise that the sons pour their liquids over him—an act of anointing that serves as a ritual of acceptance, welcoming Zakhar into their communion. Before arriving at the cabinetmaker's house, Zakhar had not worked or participated in the world; he existed like a hollow earthworm, devoid of purpose or connection. After the physical anointing, Zakhar begins to contemplate physical labor.

But did this anointing truly transform him into a new person? My answer is no. While it is undeniable that the physical anointing is marked by violence, it is difficult to argue that this violent rite alone has a transformative power over the person. Zakhar's change does not stem from the physical anointing itself, but from a deeper, more significant spiritual anointing that lies concealed beneath the outward physical act.

The best example of spiritual anointing can be found in Aleksandr Dvanov. Dvanov identifies his heart with a dam, which releases a stream of emotions:

Дванов опустил голову, его сознание уменьшалось от однообразного движения по ровному месту. И то, что Дванов ощущал сейчас как свое сердце, было постоянно содрогающейся плотиной от напора вздымающегося озера чувств. Чувства высоко поднимались сердцем и падали по другую сторону его, уже превращенные в поток облегчающей мысли. Но над плотиной всегда горел дежурный огонь того сторожа, который не принимает участия в человеке, а лишь подремывает в нем за дешевое жалованье. Этот огонь позволял иногда Дванову видеть оба пространства — вспухающее теплое озеро чувств и длинную быстроту мысли за плотиной, охлаждающейся от своей скорости.

Тогда Дванов опережал работу сердца, питающего, но и тормозящего его сознание, и мог быть счастливым. (*Чевенгур*, 127-128)

The source of these liquified feelings comes from Dvanov's impression of the world. He tries to absorb everything he sees and senses: "он хотел бы деревья, воздух и дорогу забрать и вместить в себя" (66). Dvanov is literally immersed in this liquified lake of experience, which Platonov describes as an embodiment of heavenly order: "озеро неба" (136), "на берегу небесного озера" (24). As Dvanov observes the world, he also absorbs it, and in doing so, perceives the divine order within it. This profound recognition is the essence of spiritual anointing—an epistemological epiphany experienced by the anointed in tandem with physical immersion.

It is this epiphany that allows Dvanov to sense true communion in Chevengur, despite Kopyonkin's frustrated characterization of the town as "communism and back." It is also why Zakhar Pavlovich does not resent the cabinetmaker's sons, as he can perceive their adapt skill. Lastly, it explains why Dvanov is drawn toward Lake Mutevo, toward the real source of water, after the spiritual wellspring, or Chevengurians, dries up following the invasion of the unknown cavalry.

To summarize, Kristeva defines the abject as the breakdown of meaning that arises from the unstable distinction between subject and object. She explores the shift in the concept of abject from external to internal, 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Christian thought. In the Jewish tradition, impurity was often considered external, something located outside the self. However, through her analysis of Jesus' message, Kristeva argues that impurity is redefined as an internal condition, no longer tied to external factors but residing within the individual.²³⁾ According to her, only by expelling the abject can one secure a stable identity and enter the Symbolic

23) Kristeva, 113–115.

Order, the social realm of language and intersubjective relations that shapes how individuals perceive themselves and their place in the world. In this system, language acts as the connector between subjects. However, Platonov rejects the Symbolic Order and instead views the abject as the very medium that unites people.

For Platonov, the act of anointing—being covered in another's inner liquids—restores a primordial connection with others that is essential to forming one's identity. In this sense, Platonov's use of coarse language becomes significant. His statement, “Мы разговариваем друг с другом языком нечленораздельным, но истинным” (*Записные книжки*, 176), is an explicit rejection of the Symbolic Order. The language of his works can be viewed as “the abject,” and we, the readers, are anointed by his pre-symbolic or Real language. As a result, this anointing invites us to experience an epistemological epiphany, compelling us to become “new men” through this transformative, pre-linguistic encounter with Platonov's world.

Inarticulate Language in *Chevengur*

Just as bodily fluids in *Chevengur* signify a return to primordial meaning, Platonov's use of coarse language reflects a similar drive toward renewal. His language mirrors the process of anointment, embracing what is typically considered abject or base and transforming it into a source of meaning. By using coarse language, Platonov destabilizes traditional distinctions between the sacred and the profane, demonstrating that meaning can emerge from *nechlenorazdel'nyi iazyk*, or inarticulate language. The term *nechlenorazdel'nyi* (literally, “partially-indivisible”) contains a linguistic pun suggeseting that a “part”—whether linguistic or human—cannot be divided into separate entities; instead, it exists in a cohesive and intertwined state, resembling a primordial condition.

This partially-indivisible or inarticulate language reflects the transformative

effects of anointment. In this stage, individual syllables are neither fully separated nor entirely separable from each other. At the same time, they do not form clear, connected links—appearing almost disjointed. This state reflects the way meaning operates as an amalgam of opposing concepts, a characteristic feature of Platonov’s language.

A vivid example of Platonovian inarticulate language can be found in the scene where Proletarskaia Sila, Kopyonkin’s horse, licks Kopyonkin’s blood, seemingly mourning his death. Here, conflicting meanings are intertwined, and the reader is confronted with a fusion of oppositional concepts within a single action. In this moment, the boundary between subject and object also becomes blurred:

Лошадь обнюхала скончавшегося и с жадностью начала вылизывать кровь и жидкость из провалов ран, чтобы поделить с павшим спутником его последнее достояние и уменьшить смертный гной. (*Чевенгур*, 341)

In this scene, Platonov adopts the phrase “with greed” (*s zhadnost’iu*) to describe the horse’s eager licking of Kopyonkin’s wounds while simultaneously framing the act as one of charitable sharing (*podelit’*). The juxtaposition of “with greed” with the notion of sharing creates an oxymoron, as the horse ardently engages in an act that should be benevolent yet is marked by greed. This single action of Proletarskaia Sila encapsulates both benevolence and malevolence, blending opposing intentions into one gesture.

Furthermore,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 and object is inverted in this passage. Proletarskaia Sila attempts to share Kopyonkin’s “last asset” (*poslednee dostoianie*)—which had initially belonged to Kopyonkin—with Kopyonkin himself. This blurs the distinction between giver and receiver, obscuring their roles. Additionally, while the action is ostensibly intended to “reduce the mortal pus,” it underscores the irony that Kopyonkin is already dead, rendering the act futile.

Meaning in this passage does not emerge from the removal of abject elements from Kopyonkin's body. Rather, meaning exists in a liminal state where contradictory ideas coalesce, forming a hypothetical unity. This unity links Proletarskaia Sila and Kopyonkin, life and death, and even sense and nonsense, all of which coexist within this surreal moment.

A similar instance can be found even on the morphological level of Platonov's language. In describing how Chepurnyi wakes up from an "irritating cold" (*razdrazhaiushchii kholod*) of cooling saliva, Platonov writes:

Сперва Чепурный только улыбался — щенок щекотал, а потом начал просыпаться от раздражающего холода остывающих слюней. (209)

For Platonov, it is impossible to definitely articulate whether it is the cold saliva that irritates (*razdrazhat'*) Chepurnyi or if the coldness itself causes him to tremble (*drozhat'*) and awaken from his dream. The unconventional phrase "irritating cold" constantly reminds the reader of the physical reaction of trembling in response to cold. Platonov blurs the line between emotional irritation and a physiological response, leaving it ambiguous as to whether it is emotional discomfort or a bodily reaction that rouses Chepurnyi. Rather than providing a clear explanation, Platonov keeps the experience in a primordial state of trembling, where the ostensible cause—whether emotional annoyance or physical response—remains unsolved.

One of the most famous and frequently quoted passages from *Chevengur* exemplifies this ambiguity, which Platonov elevates to the level of absurdity. In this passage, each word does not strictly adhere to a single meaning; rather, the meanings exist fluidly, swimming alongside a school of other possible interpretations:

Скоро человек возрос до того, что Дванов стал бояться, что он

мог лопнуть и брызнуть своею жидкостью жизни, и Дванов отступил от него, но человек начал опадать и светлеть — он, наверное, уже давно умер, в нем беспокоились лишь мертвые вещества. (62)

Here, Platonov describes the bloating of the dead soldier's body as though it is growing (*vozros*). In Platonov's perspective, decomposition and growth are intertwined. The bloating body seems poised to burst and sprinkle Dvanov with the "liquid of life" (*zhidkost'iu zhizni*). However, the body soon begins to "deflate" (*opadat'*) and "brighten" (*svetlet'*), and Dvanov realizes that what had been "stirring" (*bespokoilis'*) in the body were merely "dead substances" (*mertvye veshchestva*), which had caused the bloating. In this moment, when the potential for anointing with the "liquid of life" is at its peak, Dvanov perceives it as life itself. Yet, as soon as the bloating ceases, it reverts to its state as dead matter. Seifrid interprets this passage as nature reclaiming the body, suggesting that life only temporarily interrupted the natural state of matter.²⁴⁾ I argue, that what allows Platonov to depict this reclamation by nature is the concept of semantic anointing, where one meaning is intertwined with another (e.g. "growing" vs. "bloating," "deflating" vs. "brightening," and "stirring" vs. "dead"), and one meaning fluidly transforms into another, as seen in the transition from the "liquid of life" to "dead substances."

Platonov's notion of transformation is predicated on the possibility of becoming one's opposite—of turning into a completely different being. Similarly, meaning in his work undergoes a continuous process of transformation. For Platonov, the act of signification resembles the filling and refilling of a hollow pipe with different fluids, each time creating new meaning. A drought—caused by the inability to fill this hollow pipe—leads to cracks in the pipe, rendering language inert and lifeless. In Platonov's worlds, the object is not something to be expelled in order to preserve meaning; instead, it is the acceptance of the object that fosters the creation

24) Seifrid, 112.

of a transformative new language, and through this, the emergence of Platonov's "new men."

Stalin's and Platonov's Perspectives on Language

In stark contrast, totalitarian regimes, as Stalin articulates, rely on rigid linguistic frameworks to enforce control, ensuring that language serves only as a functional means of communication. However, Platonov's vision of language—and, by extension, of humanity—is one of fluidity and creative potential. His "new men" are not bound by rigid definitions imposed by language; instead, they emerge from the breakdown of such structures. By embracing linguistic ambiguity and flexibility, Platonov allows language to generate new meaning, challenging totalitarianism's insistence on clarity and control.

The tension between linguistic freedom and political authority is explored in Platonov's story "Rubbish Wind" (1934), where the protagonist Albert Lichtenberg reflects on the fluid relationship between thought and language.

Lichtenberg reflects on the nature of thought, remarking: "Мысль — вот проститутка, и даже хуже ее: она бродит обязательно там, где в ней совсем не нуждаются, и отдается лишь тому, кто ей ничего не платит!" ("Мусорный ветер," 279). The protagonist likens thought to a prostitute in order to highlight the close relationship—one imposed by the authoritarian regime—between thought and language, and between content and form. The leader of the totalitarian state fears the rupture of this "stable" chain between thought and language, content and form, as the breakdown of this chain could lead to the collapse of communication between people, and subsequently, to the disintegration of social cooperation and, ultimately, the destruction of societal production. The leader's logic implies that language forms the foundation upon which all the superstructures of a society's cultural life are built. This perspective contradicts Nikolai Marr's thesis, which argues that language functions as a

superstructure reflecting the development stage of society. Marr posits that languages evolve in tandem with societal changes and shifts in the mode of production, with each language corresponding to a particular historical stage—an idea aligned with Marxist theory.²⁵⁾ Remarkably, the leader's logic in Platonov's work aligns with Stalin's views, which were explicitly articulated in his work *Marxism and Questions of Linguistics* (1950).

Stalin asserts that “обмен мыслями является постоянной и жизненной необходимостью” and that “без языка, понятного для общества и общего для его членов, общество прекращает производство, распадается и перестает существовать как общество.”²⁶⁾ He further claims that rules are necessary to give language a coherent, meaningful character: “именно благодаря грамматике язык получ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облечь человеческие мысли в материальную языковую оболочку.”²⁷⁾ Stalin, like the leader in Platonov's story, evaluates language in such a way that without a specific material form, thought becomes meaningless.

It is worth noting that for Platonov, the year 1933 was one in which he was deprived of a public voice. The leader, as the “organized head” in “Rubbish Wind,” destroyed the “depraved,” “meaningless,” “formless” thought and stripped Platonov of his language. It seems no coincidence that

25) The idea of language as a class phenomenon of the superstructure was not originally created by Nikolai Marr. This view was already well-established within Soviet Marxist thought, having been promoted in earlier influential works by figures like Nikolai Bukharin and Georgii Plekhanov. *Iazykfront*, a group of young linguists with Marxist views, however, criticized Marr's theory as un-Marxist, especially his application of class concepts to early human societies where class distinctions did not yet exist. Following a 1930 debate between Marrists and *Iazykfront*, Marr admitted that his use of the term “class” did not align with the traditional Marxist definition. Unlike the Marxist view, where “class” is specifically determined by economic factors, Marr used “class” more broadly to refer to any organized social group not based on family or ethnic ties. This broader use of the term was one of reason why his views were criticized as lacking alignment with Marxist principles. Mika Lähteenmäki, “Nikolai Marr and the Idea of a Unified Language,” *Language & Communication* 26:3–4 (2006): 288–289.

26) Иосиф Сталин, *Марксизм и вопросы языкознания* (Москва: Госполитиздат, 1953), С. 22–23.

27) Там же. С. 24.

Platonov inserts the leader's perspective into his story, indirectly revealing his own position in response to the critique from the leader and other writers.

I argue that Platonov prophetically suggests that totalitarianism requires clarity in language in order to preserve the totalizing nature of the regime. However, this clarity of language—clarity imposed by political intentions—inevitably leads, in Platonov's view, to the deprivation of language's ability to generate new thought. Therefore, by employing such inarticulate language, Platonov blurs the boundary between fixed referents and every word in Platonov's narrative begins to resonate with figurative meaning, forming new ideas. The tropes Platonov uses in his works cease to function as mere rhetorical figures and instead emerge as symbols of unknown, new thoughts. This perspective suggest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word and referent is no longer defined as something established by political and social conditions, but rather as something generative, producing new thought through this very relationship.

III. Conclusion

In all the examples from *Chevengur*, Platonov demonstrates that language—much like the body—can be a site of creative potential and transformation. The seemingly random connection can actually create a semantic overflow: the rigid chain between word and referent is broken, allowing new meanings to emerge. Platonov suggests that it is precisely through the acceptance of what is abject, coarse, or grotesque that new meanings can emerge, challenging not only political regimes but also traditional structures of thought and language.

Yet, a question arises: does this perspective truly align with Platonov's idea of language? In his 1941 essay "On the Centennial of Lermontov's Death," Platonov states: "Всё это нужно не тольк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нас поняли другие, чтобы возможно стало общение людей,—это нужно для

происхождения мысли.” Here, Platonov emphasizes the word as the creator of thought. Platonov’s argument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language is not a mechanical collection of diverse words. He insists that words “должны быть достаточно податливы, пластичны, для формирования живой, движущейся мысли.”²⁸⁾ Platonov’s remark directly refutes Stalin’s later ideas and views. Words generate new thoughts only through semantic anointment, absorbing the residue or “waste” of other words. This is because the connection between thought and word is forcibly constructed by political circumstances, which suppress language’s ability to generate new thought. Platonov’s works are the “shot” to the language that has “lost the ability to give birth.”

In *Chevangur*, Platonov redefines traditional notions of abjection, anointing, and transformation. Through the material exchange of bodily fluids, Platonov challenges the boundaries between purity and impurity, life and death, offering a new perspective of subjectivity and interconnection. Semantic fluidity that restores a primordial and collective meaning critiques authoritarian control over language and meaning. *Chevangur* invites us to reconsider the relationship between language, power, and the body in the context of transformation and renewal.

28) Андрей Платонов, *Собрание. Фабрика литературы: Литературная критика, публицистика*. Том 8 (Москва: Время, 2011), С. 540.

참고문헌

- 라승도, 「물의 서사담론: 플라토노프의 체벤구르에 나타난 수력학적 상상력」, 『슬라브학보』 21, 제 3호 (2006): 159–183.
- _____, 「물의 의미론: 플라토노프의 코틀로반에 나타난 전복적 상상력」, 『외국문학연구』 19 (2005): 157–177.
- Бахтин Михаил,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семи томах*. Том 1, *Философская эстетика 1920-х годов*, Москва: Русские словари. Языки славянской культуры, 2003.
- _____,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семи томах*. Том 2, «Проблемы творчества Достоевского», 1929. Статьи о Л. Толстом, 1929. Записи курса лекций по истории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1922–1927, Москва: Русские словари, 2000.
- Бочаров Сергей, “Событие бытия”, *Новый мир* 11 (1995): 211–221.
- Платонов Андрей, *Записные книжки. Материалы к биографии*, Москва: ИМЛИ РАН, 2000.
- _____, *Сочинения*. Том третий, 1927–1929. *Чевенгур. Роман.* Москва: ИМЛИ РАН, 2021.
- _____, *Собрание. Счастливая Москва: Роман, повесть, рассказы*. Том 4, Москва: Время, 2011.
- _____, *Собрание. Фабрика литературы: Литературная критика, публицистика*, Том 8, Москва: Время, 2011.
- Подорога Валерий, *Мимесис. Материалы по аналитической антропологии литературы в двух томах*. Том 2, Москва: Культурная революция, 2011.
- Сталин Иосиф, *Марксизм и вопросы языкознания*, Москва: Госполитиздат, 1953.
- Apostolache Ioniță, “The Unification Mystery of Christ in Church: The Orthodox View on the Preparation for Receiving of the Holy Eucharist”, *Liturgia Sacra* 25 (2019): 503–521.
- Britannica T. Editors of Encyclopaedia, “anointment.” *Encyclopedia Britannica*,

- September 26, 2011. <https://www.britannica.com/topic/anointment>.
- Cabasilas Nicholas, *The Life in Christ*, Translated by Carmino J. deCatanzaro, New York: St. Vladimir's Seminary Press, 1998.
- Dop Erik, "A Dialogic Epistemology: Bakhtin on Truth and Meaning", *Dialogism* 4 (2000): 7–33.
- Kristeva Julia, *Powers of Horror. An Essay on Abjection*, Translated by Leon Roudiez,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2.
- Lähteenmäki Mika, "Nikolai Marr and the Idea of a Unified Language", *Language & Communication* 26:3–4 (2006): 285–295.
- Seifrid Thomas, *Andrei Platonov. Uncertainties of Spiri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 Skradol Natalia, "Non-Working, Communism and Carnival: Reading Andrei Platonov's *Chevengur* with Bakhtin", *The Slavonic and East European Review* 87:4 (2009): 601–628.
- Vatamanu Cătălin, "The Specificity of Orthodox Mariology Reflected in the Sacrament of Holy Unction. A Biblical, Liturgical, and Patristic Argumentation", *Teologie și Viață* 9 (2012): 45–55.

Abstract

**The Sensual and Semantic Anointing in Andrei
Platonov's *Chevengur***

Jung, Byungsam
(Syracuse University)

This article explores the intersection of corporeality, spirituality, and language in Andrei Platonov's novel *Chevengur*,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theological concept of anointing and its relationship to bodily fluids. By comparing Platonov's depiction of bodily fluids with Julia Kristeva's theory of "abjection," this article argues that, whereas Kristeva views bodily fluids as symbols of a breakdown of meaning and identity, Platonov presents them as agents of restoration. In *Chevengur*, bodily fluids represent the materialization of the human soul, and the act of pouring these fluids over the body restores an ideal, primordial state of intersubjective relations. Just as the body accepts oil during anointing and is transformed into a new being, words in Platonov's language are enriched, transformed, or redefined through their association with contradictory or unexpected meanings. This process, which I term "semantic anointment," enables language to absorb new meanings. By accepting the abject, Platonov's language generates new thought, in contrast to the rigid linguistic frameworks imposed by totalitarian regimes. Through its analysis of Platonov's coarse, vivid language, this article argues that *Chevengur* reclaims the transformative power of language and bodily fluids, suggesting that meaning is renewed through connection to the abject, rather than its expulsion.

Key words : Anointing, Abject, Kristeva, Stalin, Human Fluids

Gogol's Colorial Empire

Kim, Eric*

국문 초록

본 논문은 니콜라이 고골이 단편 소설 「소로친스카야 시장」에서 러시아 제국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다채로운 공간을 구축할 때 색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론에서는 정량적인 분석과 데이터의 시각화가 이루어지고, 이 두 가지는 이야기의 시작, 중간, 끝에서 등장하는 일련의 색채 집합체를 보여줍니다. 고골은 작품 전반의 내러티브 구조에 색채를 분포함으로써 우크라이나라는 배경에 대한 다채로운 기억 또는 유산을 구축한다. 그 결과, 이러한 수사적 효과는 고골의 동시대 독자뿐만 아니라 이 텍스트를 읽게 될 미래의 독자에게도 도달하게 된다. 이와 같은 다각적인 접근법은 게오르기 코로트코프가 제안한 ‘폭로의 읽기(disclosed reading)’를 실천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문헌학적 방법과 정량적 방법을 결합하여 텍스트에 대한 해석을 생성하고 시험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식민지적 기억과 제국 관계를 다시 돌아보고자 한다.

주제어 : 니콜라이 고골, 소로친스카야 시장, 디칸카 근교 마을의 야화, 색채, 디지털 인문학

* 스탠포드대학교 슬라브어문학 전공 박사과정, kimer@stanford.edu

I. Methodology

To collect data for this project, I first used a program to lemmatize Nikolai Gogol's short story "Sorochinskaia iarmarka" ("The fair at Sorochyntsi"), a process which converts all words to base forms (verbs to infinitives, nouns to nominatives) whenever possible. I then processed the treated text through Voyant to provide analytical data. The primary data of interest for this project were the counts for words denoting color within a specific partition of the text. The program divided the text into 10 partitions of the same length in terms of word count in order to visualize color density. To contextualize these counts, I re-plotted the data using Tableau. The comparison of graphs accounts for differences in chapter lengths, with shorter chapters possibly containing fewer colors on account of having fewer words. In terms of methodology, all work could have been completed manually, that is, without automated methods; this project showcases two tools essential to many digital humanities projects: data collection and data visualization.

Furthermore in terms of data collection, I have opted to count adjectives that refer to a single color in my calculations, such as *krasnyi* (red) or *belyi* (white). While it may currently be impossible to determine if all people perceive the verbal sign *krasnyi* as the same red, and indeed a historical argument can be made about how rhetorically invoked red in twenty-first-century Ukraine might differ from the literarily imagined red in nineteenth-century Russian Empire, I chose to prioritize single hues over flexible tones or patterns, such as *temnyi* (dark), *pestryi* (motley), or *tsvetisty* (bright, multicolored), which do not index a specific color despite indicating colorfulness. In this consideration, I have chosen to include body-specific adjectives, such as *rusyi* or *karii*, as these words stabilize rather than destabilize the invocation of a single color. I recognize some subjective selectivity in including the adjective *zagorelyi* (tanned), which refers to a recognizable skin tone in Gogol's construction of Ukraine, in

the imaginations of Russian readers. In consideration of this Russian imagination, the Ukrainian *zelenen'kyi* was included as a recognizable color adjective because of its proximity to the Russian diminutive adjective *zelenen'kii*. As for materially derived adjectives, I only counted instances of metaphorical adjectives that conveyed the color in addition to approximating texture of an object, like *mramornaia sheia* (marble cheek), as opposed to modifiers that directly indexed a substance, such as *mednye kresty* (copper crosses). The distinction between these uses lies in a marked, poetic, or otherwise peculiar instrumentalization of material to color an object. All physical objects have some type of color, but this project prioritizes the objects that Gogol explicitly colors in abstract terms like *zelenyi* (green) or metaphorical ones like *lileinyi* (lily-like).

Finally, related nouns, verbs, and otherwise derivative words, such as *blednet'* (to pale), were not included to maintain consistency. Because of the high productivity of etymological roots in Russian, in which roots like *kras-* can be found in words *krasota* (beauty), *prekrasnyi* (beautiful), and *krasnyi* (red), this project prioritized adjectives that communicate color directly. Furthermore, as Andrei Bely points out, Gogol employs a variety of techniques to invoke color, such as metaphors and similes that can import sensations of color by likening something to fire, *plamennyi*, or to blood, *kak krov'*.¹⁾ By including these instantiations of color, Belyi develops further his concept of the “sound metaphor,” *zvukovaia metafora*, a central concept in his analysis of Gogol's color palette. Activating sensations or perceptions in the reader of a word, “the sound metaphor applies color beyond the spectrum; its perception is at the threshold of consciousness.”²⁾ For instance, while a burning room might not necessarily invoke a color, one can imagine the warm red-orange glow imbued upon the space. While I recognize a greater comprehensiveness to Bely's theorization and data

1) Белый А. *Мастерство Гоголя* (М.; Л.: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1934), с. 120.

2) Там же, с. 116.

collection, I limit my calculations to adjectives of traditional colors or adjectives of material objects to establish a strictness to my statistical analysis. In doing so, I avoid potentially subjectively ambiguous conceptions of color, ahistorically applied understandings of colorations, or otherwise semantically gray zones of interpretation. To supplement numerical data, the close reading to follow will address some more colorful and color-based language in the story.

By using quantitative methods to analyze “Sorochinskaia iarmarka,” I present another way to consider and understand a formal device found in this canonically colorful text.³⁾ Comparable studies in color include Andrei Bely’s work on color in Gogol,⁴⁾ Boris Yarkho’s analysis of color in medieval epics,⁵⁾ and Ben Blatt’s *Nabokov’s Favorite Word is Mauve*.⁶⁾ My project differs in the scope of both its corpus and argument: I am not making any comprehensive claims about the Russian nineteenth century or even about Gogol himself, but rather this article focuses on a single text by Gogol. By focusing on a single story in Gogol’s cycle, I aim to maintain what Georgii Korotkov refers to as “disclosed reading”: the practice of combining traditional philology with quantitative methods to perform simultaneously distant and close readings of a text.⁷⁾ All colors are not meant to be equated in a simplified way, but instead the total aggregate of colors effects a certain formal device in “Sorochinskaia

3) This canonicity is recognized in, or perhaps reinforced by, the film adaptation *Sorochinskaia iarmarka* (1938), an experimental Soviet musical comedy that was one of the first films in color in the Soviet Union, in addition to being the first color motion picture film produced in Ukraine.

4) Bely opts for a broader vision of color, with his terminology “spectral color,” *spektral’nyi tsvet*, which focuses on words operating the spectrum of electromagnetic wavelengths discernable to the human eye. Белый. *Мастерство Гоголя*, с.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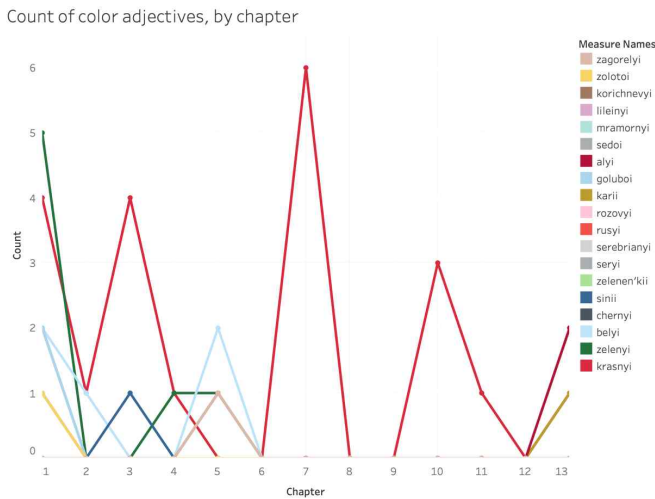
5) Ярхо Б. *Методология точного литературоведения: избранные труды по теории литературы*, Изд. подгот. М. В. Акимова, И. А. Пильщиков, и М. И. Шапир (М.: Языки славянских культур, 2006), с. 138-139.

6) Blatt, Ben. *Nabokov’s Favorite Word is Mauve* (New York: Simon & Schuster,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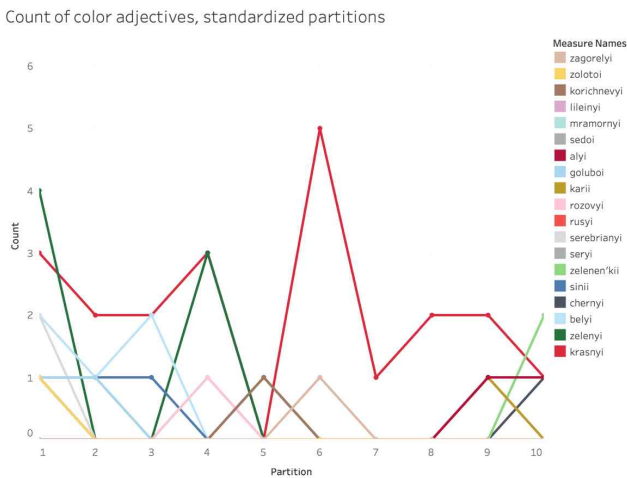
7) Korotkov, Georgii. “Disclosed reading: network analysis in comparing periodical models” (presentation, Association for Slavic, East European, & Eurasian Studies Annual Convention, Boston, MA, November 22, 2024).

iarmarka.” Some colors and color words not reflected in my visualizations will still be considered in my close reading to fol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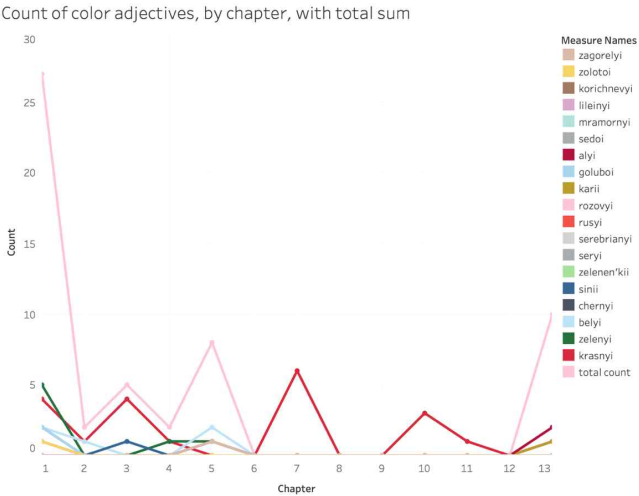
A visualization of the appearance of color words shows a relative decline in color beginning in the middle of the story.



To account for the different chapter lengths, I include another visualization of the same data, only plotted with respect to partitions of text standardized according to word length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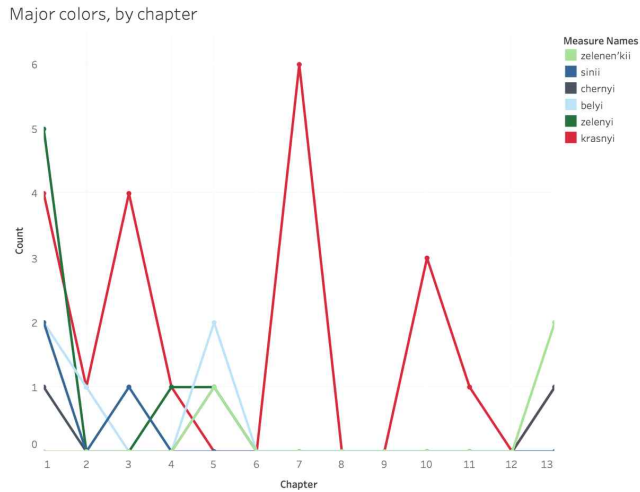


To better illustrate the shifting aggregate use of colors throughout the story, another plotted variable of total color count requires a different scale of axes. Included below is a table with the distribution of colors across the chap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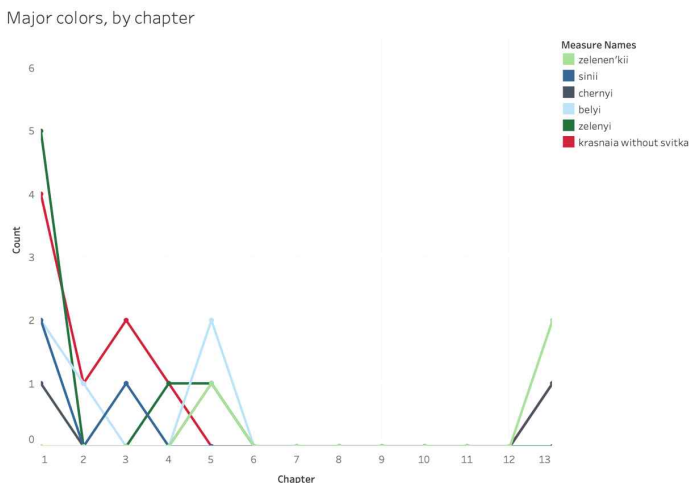


Chapte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zolotoi	1	0	0	0	0	0	0	0	0	0	0	0	0
zelenen'kii	0	0	0	0	1	0	0	0	0	0	0	0	2
serebrianyi	2	0	0	0	0	0	0	0	0	0	0	0	0
zagorelyi	0	0	0	0	1	0	0	0	0	0	0	0	0
lileinyi	1	0	0	0	0	0	0	0	0	0	0	0	0
korichnevyi	0	0	0	0	1	0	0	0	0	0	0	0	0
mramornyi	1	0	0	0	0	0	0	0	0	0	0	0	0
sedoi	1	0	0	0	0	0	0	0	0	0	0	0	0
alyi	0	0	0	0	0	0	0	0	0	0	0	0	2
goluboi	2	0	0	0	0	0	0	0	0	0	0	0	0
karii	1	0	0	0	0	0	0	0	0	0	0	0	1
rozovyi	1	0	0	0	1	0	0	0	0	0	0	0	0
rusyi	1	0	0	0	0	0	0	0	0	0	0	0	1
seryi	2	0	0	0	0	0	0	0	0	0	0	0	0
sinii	2	0	1	0	0	0	0	0	0	0	0	0	0
chernyi	1	0	0	0	1	0	0	0	0	0	0	0	1
belyi	2	1	0	0	2	0	0	0	0	0	0	0	1
zelenyi	5	0	0	1	1	0	0	0	0	0	0	0	0
krasnyi	4	1	4	1	0	0	6	0	0	3	1	0	1

Once the colors that appear thrice or more are isolated, one can see the limits of Gogol's primary palette, which consists mostly of five colors. I refer to these adjectives as the "major colors." This graph shows more clearly the most frequently deployed colors in "Sorochinskaia iarmarka."



The removal of *krasnaia* whenever in reference to *svitka* and its symbolism illustrates an almost complete lack of color adjectives for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story.



II. To the Text

As Roman Koropecyj and Robert Romanchuk note in their exploration of triangulated interactions between the writer and groups of readers, Gogol's *Vechera na khutore bliz Dikan'ki* simultaneously reflects and distorts Ukrainian aesthetics in a way that ultimately launches the career of the culturally hybrid author. To conclude their theoretical comparison between affective consequences resulting from Gogol's performance of Ukrainian identity and blackface minstrelsy in United States history, Koropecyj and Romanchuk underline the linguistic disjointedness of the epigraphs in "Sorochinskaia iarmarka."

Let us return for a moment to the epigraphs to the 'Fair.' For a public such as the Petersburg typesetters or, for that matter, any Russian reader who did not have 'the patience,' as Andrii Tsarynnyi wrote in his review of *Dikan'ka*, 'to first learn a glossary so that he could later understand' works published in Ukrainian, these disembodied, fragmented, and (to most of his readers) unintelligible voices constitute something akin to an empty signifier for Ukraine, a world in which Kotliarevs'kyi, Hulak, and anonymous Ukrainian folksingers dance and drink and mount each other together on the same stage with Cherevik, Tsybulia, and Golopupenko.⁸⁾

In their "double take" on the story, Koropecyj and Romanchuk extract an "emptiness" within the thirteen identifiably Ukrainian epigraphs, whose language clashes with Gogol's primarily Russian text with Ukrainian words.⁹⁾ "Stick[ing] out" and "irrupting from the signifying fabric of the

8) Koropecyj, Roman and Romanchuk, Robert. "Ukraine in Blackface: Performance and Representation in Gogol's 'Dikan'ka Tales,' Book 1," *Slavic Review*, 62(3), 2003, pp. 546-547.

9) The majority of Gogol's indexed terms consist of nouns, which might more easily lend for objective display and appropriation. In this way, Gogol vacillates between ethnographically charged spaces of a provocative public museum for educating non-Ukrainians and of an eclectic living room for impressing guests.

Russian-language fabula,” these epigraphs ossify throughout the various publications of Gogol’s story, which itself might adapt to contemporary orthographic standards, while the Ukrainian excerpts will range from “(mostly) correct Ukrainian orthography” to “Ukrainian with all manner of misspellings.”¹⁰⁾

I hope to perform my own triple take, following in the steps of Koropec'kyj and Romanchuk, but instead of relying on performance theory and history, I will draw on observations gleaned through data collection to reveal another narratorial device in “Sorochinskaia iarmarka,” namely Gogol’s selective use of color adjectives. Throughout this story, the author systematically applies color to inculcate certain sensory associations with Ukraine, and in this manipulation of the audience through colorial implementation, Gogol achieves a lasting cultural model that influences cultural memory through the course of the Soviet Union up to our current day. Because the audience remembers this first story from *Dikan'ka* through this Gogolian coloration, the text in this sense represents a colorialized space of a constructed Ukraine, reimagined and repackaged for a Petersburg audience. My term “colorial” refers to the mixed colonial and pigment-based applications of color in the text. Gogol’s marked use of color reinforces a certain imperial dynamic imagined and performed between Russia and Ukraine, a specific relationship recognized, manipulated, and exploited by the consciously hybridized author.

Opening with a relatively dense confluence of colors, “Sorochinskaia iarmarka” initially saturates the visual imagination of the reader with its “blue, immeasurable ocean,” “gray stacks of hay,” and “gold sheaves of grain,” and “river in its green, proudly raised frame.”¹¹⁾ In addition, nonphysical objects, such as “silver songs” acquire a level of tangibility through color,¹²⁾ which further multiplies through plurally destabilized

10) Koropec'kyj and Romanchuk, “Ukraine in Blackface,” pp. 546-547.

11) Гоголь Н. “Вечера на хуторе близ Диканьки: повести, изданные пасичником Рудым Паньком (часть первая)”,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14-и т.*, Т. 1 (М.: Изд-во АН СССР, 1940), с. 111-112.

instantiations of “picturesque masses of leaves” and “multicolored gardens.”¹³⁾ The aggregate effect of these colors enliven the Ukrainian countryside, where everything from the concrete to the abstract, the natural to the artificial, has color.¹⁴⁾ Presented as a pastoral landscape painting, the Ukrainian countryside exudes a palette simultaneously initiating and overwhelming the reader with this introduction. In his review of Boris Yarkho’s work on applying statistical methods to literary research, Mikhail Gasparov notes how such a methodology necessitates relative sensibility for feasible analysis.¹⁵⁾ “The aesthetic efficacy of each element of a literary work is evoked by its unusualness — quantitative or structural.”¹⁶⁾ To illustrate this point, Gasparov provides the example of the sound “p”: while “p” itself is not an extraordinary sound, if used in a line such as Pushkin’s “Pora, pero, pokoia prosit,” an aesthetic effect emerges.¹⁷⁾ Similarly in this story, the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this first paragraph and the rest of

12) The use of this adjective “silver,” *serebriannyi*, produces some ambiguity as the word can refer to being made of the precious metal material, bearing the associated color, or sounding melodiously. However, despite this third usage appearing in Dahl’s dictionary (Даль В. *Толковый словарь живого великорусского языка* (М.: А. Семен, 1863), s. v. “serebro”), it appears rarely with regards to songs, *pesnia*, outside of Gogol’s writings according to the Russian National Corpus. Bely also takes note of this use of “silver,” which he unabashedly counts in his color words to further illustrate the previously described “sound metaphor.” For Bely, the coloration of music through words like “silver” presents a fusion of senses, emblematic of sound metaphors. Белый. *Мастерство Гоголя*, с. 128.

13) Гоголь. “Вечера на хуторе близ Диканьки”, с. 112.

14) Drawing stylistic and rhetorical comparisons between Gogol’s prose and Golden Age poetry, Mariia Virolainen points out the thoroughly “rhetorical, rhythmically-musical” aspect of Gogol’s countryside, where “the physical laws of nature are not observed.” Виролайнен М. “Проза Гоголя как поэзия”, *Феномен Гоголя: Сб. статей: Материалы Юбилейной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освященной 200-летию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Н. В. Гоголя*, Под ред. М. Н. Виролайнен и А. А. Карпова, (СПб.: Петрополис, 2011), с. 55.

15) Gasparov calls this aspect the “what to observe,” *chto nabliudat’*. Гаспаров М. “Работы Б. И. Ярхо по теории литературы”, *Избранные труды в 3-х т.*, Т. 2 (М.: Языки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1997), с. 470.

16) Там же.

17) Там же.

the story reveals an unusual use of color: in terms of verbal densities, these adjectives constitute about 3 percent of the first paragraph while only about 0.9 percent of the whole story.¹⁸⁾ For reference, Aleksandr Pushkin's *Povesti pokoinogo Ivana Petrovicha Belkina* (The tales of the late Ivan Petrovich Belkin), another collection of short stories published in the same year as "Sorochinskaia iarmarka" and around the same length as Part One of the *Dikan'ka* cycle,¹⁹⁾ as has an overall verbal color density of 0.28 percent throughout the whole work.²⁰⁾

The skew in distribution of colors throughout the story, precisely at the very beginning of the text, disarms the reader, and a colorial memory of, and by extension legacy within, the text prevails. In reality however, color appears less abundantly throughout the text than in this introductory paragraph. Beginning in Chapter VII, the primary, and sometimes only, color that appears in the text is "red," often in reference to the accursed *krasnaia sviatka* that proliferates by local folklore.²¹⁾ If one were to accept the exceptional nature of this adjectival employment, the next chapter to significantly utilize color adjectives in a way comparable to the initial paragraph in Chapter I would end up being in Chapter XIII.

Colors tend to flock or pair up throughout "Sorochinskaia iarmarka," as shown by the verbal densities of color adjectives in the text. Between "the green and blue forest," Khivria's "green cardigan and red boots," Grits'ko's

18) To further illustrate this pigmented density occurring towards the beginning of the story, the first chapter uses 15 of the 19 colors present in the story — approximately 79 percent of the story's colors are invoked in this first chapter. The chapters with the closest amount of colorial diversity are Chapters V and XIII, with 7 colors used in each chapter, less than half the palette observed in Chapter I.

19) Part One of the *Dikan'ka* stories contains 23,961 words compared with the 19,091 words in the *Belkin Tales*.

20) To illustrate further the sharpness in contrast, the first story of the *Belkin Tales*, has a verbal color density of 0.11 percent.

21) In the larger context of Gogol's "first phase," as termed by Bely, red is the dominant color, making up 26.6 percent of the colors in the *Dikan'ka* stories, *Taras Bul'ba*, and *Vyi*. The next most popular colors are gold at 11.6 percent, black at 11 percent, and dark blue at 10.7 percent of the palette invoked. Белый. *Мастерство Гоголя*, с. 120-121.

“white jacket” and “gray hat,” and Paraska’s “crimson lips” accompanying her “dark eyebrows” over “bright, hazel eyes,” Gogol rarely employs a singular or singularly colorful object, and wherever one color is instantiated, another is soon to follow in the same or an adjacent sentence.²²⁾ Colors love company in this story. Because Gogol clusters these adjectives in such a marked manner, the accumulative effect absorbs once more the reader’s attention, now inundated by visual cues and signs. The placements of the most dense clusters of color, in Chapters I, V, and XIII, approximately at the beginning, middle, and the end of the story, underscore a deliberate structure. While having already discussed the initial colorial priming in the first paragraph, I will return later in this article to the repetition of this color-filled device in the last chapter.

The major exceptions to this cumulative claim are the colored jackets, *svitki*. Colorful *svitki* prove to be independent, without needing to be with other adjectivally colorialized objects. A diminutive of the word *svita*, a type of outer coat, and etymologically derived from the verb of twisting, *viti*, the garment’s name refers to the woven-together-woolen material. There exist two recurring *svitki*: the white *svitka* that Grits’ko wears and the red *svitka* that haunts Cherevik. Able to stand on their own, these *svitki* imbue metaphoric color through ethnographic function: *svitka* imparts a local coloration through its visible Ukrainianness, further indexed in the cycle’s preface where he explicitly provides a definition for this untranslatable term:

Свитка,
Svitka,

род кафтана.
a type of Kaftan.²³⁾

By glossing this term by such visible means, Gogol packages and fetishizes the word for his Russian-reading audience, and as the third most

22) Гоголь. “Вечера на хуторе близ Диканьки”, с. 113; 119; 134; 133.

23) Там же, с. 109.

used word in the entire story, after the reflexive adjective *svoi* and *ruka*, meaning “hand” or “arm,” *svitka* strikes the reader with a comparable frequency to that of the color adjectives. In this usage, the colors of the *svitki* serve as epithetic units inseparable from the associated wearer or mythology. Any instance of red cloth terrifies Cherevik, just as most instantiations of *parubok* Grits’ko, the young bachelor, necessitates his white jacket.²⁴⁾

The Ukrainian word *parubok*, which Gogol glosses as “guy,”²⁵⁾ *paren’*, heightens this exotic presentation. With the exact phrase “*parubok v beloï svitke*” appearing four times,²⁶⁾ the colorialized image of a Ukrainian lad sporting a white jacket sets a trope within the reader’s imagination. Thus Gogol’s specifically colorized prop, frames Grits’ko as an iconic type. When the reader finishes the story, a certain cultural imagination emerges from the discursively rehearsed whiteness of Grits’ko’s jacket. Amelia Glaser similarly comments on the objective materiality of Grits’ko’s jacket: “Hrytsko’s coat, in Gogol’s semiotic system, taints Paraska’s innocent reverie,” notes Glaser, specifically because “coats can, after all, be stolen, shredded and dispersed.”²⁷⁾ However, again we encounter an inauthenticity to this seemingly exotic icon: Glaser points out “the absent trappings of traditional Ukrainian weddings,”²⁸⁾ and thus the white *svitka* can be read as inappropriate, out-of-place, to a Ukrainian reader or a reader familiar with Ukrainian customs. But still, the local effect works on the impatient reader in Saint Petersburg, at best familiar with the word *svitka* through Gogol’s

24) After establishing the link between individual ideas and myths with clothes and colors, Gogol prepares the reader to interpret Grits’ko in the white garment and spectrality in the red cloth. Once initiated, the reader extracts both a Ukrainian character and folk legend from this color coding.

25) Гоголь. “Вечера на хуторе близ Диканьки”, с. 108.

26) Five, if one includes an instance in which a prepositional phrase and past participle separate the *parubok* from his preposition, “in.”

27) Glaser, Amelia. *Jews and Ukrainians in Russia’s Literary Borderlands: From the Shtetl Fair to the Petersburg Bookshop*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2012), pp. 54.

28) Ibid.

glossary from the introduction. While reading the color of the *svitka* differently, Glaser still takes into account the materiality of the clothing itself,²⁹⁾ which imports a sense of tangible, or in my reading marketable, Ukrainian reality.

In addition to the consistently colored and Ukrainianly named objects, such as coats and guys, the names of the characters carry a colorializing effect.³⁰⁾ Bestowing upon this initial frame narrator the colorful and dialectal meaning of “red” with regards to hair, *rudyi*,³¹⁾ Gogol implicitly imbues his story with local pigmentation in his foreword, signed by “Pasichnik Rudyi Pan’ko.” Again, the reader encounters the markedly Ukrainian term *pasichnik* instead of the standard Russian *pasechnik*, and Gogol anticipates confusion with yet another gloss:

Пасичник,
Pasichnik,

пчеловод.
a beekeeper.³²⁾

Framed by the red-haired *pasichnik* Pan’ko, the first story of the *Dikan’ka* cycle already is steeped in color before the first paragraph.

Furthermore, using the hybridized Ukrainian-Russian linguistic system constructed by Gogol, one could argue for a dual coloration in Cherevik’s name, one metaphorical in its visible Ukrainianness and another mistaken by eager but impatient Russian readership. Directly repurposed from the Ukrainian word for “shoe,” Cherevik’s name appropriates the Ukrainian language in a classically Gogolian way. Similar uses of the speaking name

29) Glaser specifically uses the phrase “material excitement” in reference to this coat. Ibid.

30) This attention to linguistic detail reflects a level of component consciousness recognized by other scholars for hybrid and hybridized nationalistic dynamics in Gogol. See Bojanowska, Edyta. *Nikolai Gogol: Between Ukrainian and Russian Nationalism*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31) Dahl’s dictionary locates *rudo* and other variants, such as *rudyi*, as particular to southern Russia and Ukraine, which he refers to as “Little Russia.” Даль. *Толковый словарь живаго великорускаго языка*, s. v. “*rudo*.”

32) Гоголь. “Вечера на хуторе близ Диканьки”, с. 108.

appear in *Igroki* (The gamblers) with Ikharev, who becomes fatally intoxicated by his wild successes as a grifter, and in “Nos” (Nose) with Kovalev, whose flat face reminds the reader of an anvil. Although he frequently relies on this rhetorical device of the speaking name, or charactonym, naming in Gogol acquires often ironic or even absurd undertones which twist any straightforward interpretation to the names and possibly full sincerity within the text. Bringing this device to the attention of readers, Gogol invites laughter in “Shinel” (Overcoat) with Akakii Akakievich Bashmachkin’s name, constructed from “little shoe,” *bashmachka*.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Gogol returns to naming one of his characters after another word for “shoe,” *bashmak*, in a short story comparably centered around an article of clothing, the overcoat.

Фамилия чиновника была Башмачкин. Уже по самому имени видно, что она когда-то произошла от башмака; но когда, в какое время и каким образом произошла она от башмака, ничего этого неизвестно. И отец, и дед, и даже шурин и все совершенно Башмачкины ходили в сапогах, переменяя только раза три в год подметки.³³⁾

The surname of the clerk was Bashmachkin. Already by this very name it is evident that it came sometime ago from shoe [*bashmak*]; but when, at what time and in what way it came from shoe, none of this is known. Even his dad, and grandfather, and even brother-in-law, and virtually every Bashmachkin walked in boots, changing the soles only three times a year.

However, a specific type of linguistic absurdity appears in some of the *Dikan'ka* names, which at times consist of simple Ukrainian nouns. Instead of adding the nominativizing suffixes *-kin* or *-ev*, Gogol opts for straightforward borrowings, such as “Shoe,” *Cherevik*, or “Onion,” *Tsibulia*. Thus, while Bashmachkin’s

33) Гоголь Н. “Шинель”,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14-и т.*, Т. 3 (М.: Изд-во АН СССР, 1938), с. 142.

name threads materially into the story's title "Shinel'," Cherevik's and Tsibulia's names resonate culturo-linguistically with the geographical marker referenced in the title, Velyki Sorochyntsi, the birthplace of Gogol.

With regards to *cherevik*, the root contains a conveniently false cognate for the Russian audience, *chernyi*, from the Proto-Slavic *čьrnъ*. While the etymology of *cherevik* in reality follows from the Proto-Slavic *červъjbъ*, I maintain the possibility for a Russian-speaking reader to draw the loose connection between *chernyi* and Cherevik, primarily because of the visible foreignness and rarity of this word in the Russian language at the time.³⁴⁾

-
- 34) The various dictionary entries for the word *cherevik* reveal the local particularities of this word, findings which support the potential inaccessibility of the term. Viktor Vinogradov, in his *Slovar' iazyka Pushkina* (Dictionary of Pushkin's language), uses an example sentence marked by its Ukrainian and Southern Russian influences.

Черевик (1). Женские сапожки на высоких кабулах. Пугачев на хуторе Шелудякова косил сено. В Уральске жива еще старая казачка, носившая черевики его работы. (Виноградов В. *Словарь языка Пушкина* (М.: Азбуковник, 2000), s. v. cherevik)

Max Vasmer more clearly identifies Ukrainian as the linguistic source for this word in his etymological dictionary.

укр. черевік, блр. черевік, др.-русск. черевикъ, русск.-цслав. чръвини ѡлодиѣа, болг. чре́ве мн. "башмаки", сербохорв. црѣвља, словен. črēvəl̥j м., чеш. střevíc, třevíc, др.-чеш. trěví, словц. črevíc, польск. trzewik, в.-луж. črīj, н.-луж. crěw, crěj

Праслав. *červī- считается производным от *červo "брюхо, живот", первонач. и.-е. *(s)ker- "отрезанное, кожа" (см. корá, скорá); ср. Соболевский, AfslPh33, 610; РФВ 71, 444; Педерсен, KZ39, 459; Перссон 786; Бернекер I, 151; Младенов 682; Шрадер – Неринг 2, 354. При условии эпентезы -и- сравнивают праслав. *červī- со ср.-ирл. cuaran "башмак", кимр. cuan- то же; см. Цупица, KZ37, 399; Педерсен, там же; против см. Бернекер, там же. (Фасмер М. *Этимолог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М.: Прогресс, 1964), s. v. cherevik)

While this word does not properly carry any colorful connotations, *cherevik* nonetheless is a reasonably obscure and dialectical word beyond the ken of a typical reader in Saint Petersburg. As a word just vaguely sounding southern or even Ukrainian, *cherevik* sonically activates the adjective *chernyi* for the voyeuristic Russian readers.

However, unlike *tsibulia*, for which Rudyi Pan'ko provides a gloss in his foreword, the Ukrainian word *cherevik* remains undefined in the part of *Vechera na khutore bliz Dikan'ki* containing "Sorochinskaia iarmarka."³⁵⁾ Thus, for Gogol's reader in Petersburg, it becomes highly possible that the orthographic proximity to contemporary Russian root *chern-* might serve a more readily accessible connection than the more philo-logically sound Ukrainian insertion.³⁶⁾

Beyond the possible linguistic misdirect embedded in Cherevik's name, Gogol tests the margins of color instantiation and naming by constructing new words and drawing on uncommon vocabulary. When the sun sets over the Ukrainian village, the "exhausted" celestial body covers the white tents and stalls of the fair with "some type of barely visible fiery-pink light."³⁷⁾ This compound color, *ognenno-rozovyi*, appears very infrequently in nineteenth-century Russian, and in its database of sampled texts, the Russian National Corpus registers Gogol as a relatively early user of this term in 1831.³⁸⁾ "Polychromatish," *pestriadevyi*, similarly stands out as an unusual, arguably neologicistic color. Once destabilized, Gogol's creatively de-constructed and re-combined pigments broaden the scope of his palette in the story. Thus, by supplementing the major color adjectives with his own creations, Gogol expands the effect of exoticized colorialism, now marked by a markedly novel, possibly foreign, element, which readers

The color black appears only three times as an adjective throughout the story, and while two of the three mentions refer to the hair and eyebrows of Cherevik's daughter, Cherevik himself receives one attribution of the adjective, with reference to his "black eyes" as he watches his daughter pine for Grits'ko.

- 35) Curiously *cherevik* is glossed in the second part to this collection, further reinforcing the probability that the Saint Petersburg reader did not, in fact, recognize the semantic components or etymological root within Cherevik's name.
- 36) Recall the impatient reader described by Andrei Tsarynni in his review of *Dikan'ka*, as further speculated by Romanchuk and Koropec'kyj. If this reader was too impatient to learn the words from Gogol's glossary, it would also be we could expect such a hasty reader to not look into the etymology of the Ukrainian word *cherevik*. Koropec'kyj and Romanchuk, "Ukraine in Blackface," pp. 546-547.
- 37) Гоголь. "Вечера на хуторі біля Диканьки", с. 120.
- 38) The majority of results in the Russian National Corpus occur in the twentieth century.

might mistake for Ukrainian. However, with the recognition of this device, the reader can uncover the constructed nature of Gogol's exoticism,³⁹⁾ and colorial impulse is laid bare.

While Gogol implements most of his color adjectives in the first half of his story, it is also worth noting the slight resurgence of color adjectives in the final pages. After seven chapters lacking in the majority of color adjectives,⁴⁰⁾ Chapter XIII contains four color adjectives in total.⁴¹⁾ Thus, one can begin to make the argument that Gogol uses color in this last chapter to remind the reader of the aggressive pigmentary influx in Chapter I, particularly in the opening paragraph. Sitting under Cherevik's burning "black eyes," reminiscing over Grits'ko's iconic "white *svitka*," and reveling in the sight of her "red cotton wool," Paraska conjures a flurry of colors in a single paragraph of her thoughts and actions.⁴²⁾ In this same paragraph, we encounter another colorially dense passage:

Много грез обвивалось около русой головы. Иногда вдруг легкая усмешка трогала ее алые губки, и какое-то радостное чувство подымало темные ее брови; то снова облако задумчивости опускало их на карие, светлые очи.⁴³⁾

Many dreams coiled around her fair-haired head. Sometimes a light grin suddenly touched her crimson lips, and some type of happy feeling lifted her dark brows; then a cloud of pensiveness sank down onto her hazel, bright eyes.

39) As Juri Lotman demonstrates in his analysis of the role of spatial boundedness and the types of Gogolian spaces, Gogol constructs Dikan'ka with a theatrical and depictive sensibility; that is, the literary environment confronting the reader in these stories is necessarily and markedly distinct from any natural or real environment found in Ukraine. Лотман Ю. "Проблема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в прозе Гоголя", *Избранные статьи в 3-х т.*, Т. 1 (Талинн: Александра, 1992), с. 419-421.

40) In fact, the only color adjective to appear from Chapter VII through Chapter XII is red, *krasnyi*, in reference to the mythic red *svitka*.

41) Two instances of *belyi*, one instance of *chernyi*, and one instance of *krasnyi*.

42) Гоголь. "Вечера на хуторе близ Диканьки", с. 134.

43) Там же, с. 133.

Achieving a rhetorically similar effect to that found in the introductory paragraph of the story, Gogol again packs seven colors into the first paragraph of Chapter XIII. Despite a lower density of color than in the first paragraph of Chapter I, about 2 percent compared to 3 percent, this figure is still considerably larger than the total textual density of about 0.9 percent. Once again colonialized, the text now shifts from the vibrant features of Ukrainian nature to the colors of a Ukrainian face, notably one actively engaging in the contemplation and figuration of another Ukrainian body. As colors abound both on her face and in her reflections, all forms of Ukrainian being exists in a markedly colonial state. Thus, Gogol makes use of this privileged opening paragraph of each chapter, both at the beginning and at the end of his story, to establish and reinforce a constructed imagination of a colorful Ukraine.

That Gogol's *Dikan'ka* stories contain more or brighter colors than his Petersburg texts does not require statistical analysis. Mariia Virolainen in her consideration of Gogol's prose in the context of Golden Age poetics differentiates the constructed worlds found in Gogol.

Яркие краски «Вечеров» гаснут в петербургск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не потому, что здесь действительно не имеется цветовой гаммы, а лишь потому, что цветопись Гоголя семантична, она отталкивается не от реальной раскраски предметов, а от символизируемых ею значений. Скучность петербургской цветовой палитры — результат вполне умышленной авторской скупости, в «Шинели» даже специально подчеркнутой Гоголем: ведь сколь жарко ни обсуждают герои, какого цвета сукно следует подобрать для новой шинели, цвет ее так и остается не названным.⁴⁴⁾

The bright colors of “Evenings” go out in the Petersburg space not because there really is no range of color, rather because Gogol's colorscape is semantic, it proceeds not from a real coloration of subjects, rather from meanings symbolized through it. The scarcity of

44) Виrolайнен М. “Проза Гоголя как поэзия”, с. 56.

the Petersburg color palette is the result entirely of deliberate, authorial scarcity, even specially underlined in “The Overcoat”: after all, how often do the characters passionately not discuss what color cloth it is necessary to pick up for the new overcoat, and its color thus remains not named.

Similarly noticing the bright coloration of Gogol’s Dikan’ka compared to his Petersburg, Virolainen argues that Gogolian prose uses language in a self-consciously artistic way. Gogol, the ever-conscious writer, uses certain themes, such as color, for a deliberately creative purpose.

III. Conclusion

With my use of color distribution and verbal density, I have examined more closely a mechanism of Gogol’s artistic consciousness, namely the colorial language that establishes Ukraine as a lively and bright setting. As I hoped to argue, the statistical analysis supports how Gogol distributes his colors and prioritizes certain ones, such as red, to highlight this consciously, maybe even aspirationally, imperially minded aesthetic. This specific literary coloration of the text suggests a certain vision, or possibly even mythology, of Ukraine purported by this author to an audience in Saint Petersburg. As Amelia Glaser illustrates with the popularity of M. Maksimovich’s 1827 anthology of Ukrainian folk songs,⁴⁵⁾ such a production and transmission of Ukrainian culture was fairly common in the early nineteenth century. However, beyond the cultural trends at the time of Gogol’s writing, this analysis of Gogol’s colorial device illustrates how Gogol’s depiction of Ukraine may have influenced not only his contemporary readers, but also future ones, who might similarly remember Ukraine in a more color-filled manner after reading “Sorochinskaia iarmarka.”

45) Glaser, *Jews and Ukrainians in Russia’s Literary Borderlands*, p. 15

참고문헌

1. Белый А. *Мастерство Гоголя*, М.; Л.: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1934.
2. Виноградов В. *Словарь языка Пушкина*, М.: Азбуковник, 2000.
3. Виролайнен М. “Проза Гоголя как поэзия”, *Феномен Гоголя: Сб. статей: Материалы Юбилейной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освященной 200-летию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Н. В. Гоголя*, Под ред. М. Н. Виролайнен и А. А. Карпова, СПб.: Петрополис, 2011, С. 50-59.
4. Даль В. *Толковый словарь живаго великорускаго языка*, М.: А. Семен, 1863.
5. Гаспаров М. “Работы Б. И. Ярхо по теории литературы”, *Избранные труды в 3-х т.*, Т. 2, М.: Языки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1997, С. 468-484.
6. Гоголь Н. “Игроки”,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14-и т.*, Т. 5, М.: Изд-во АН СССР, 1949, С. 65-101.
7. _____. “Нос”,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14-и т.*, Т. 3, М.: Изд-во АН СССР, 1938, С. 47-75.
8. _____. “Шинель”,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14-и т.*, Т. 3, М.: Изд-во АН СССР, 1938, С. 139-174.
9. _____. “Вечера на хуторе близ Диканьки: повести, изданные пасичником Рудым Паньком (часть первая)”,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14-и т.*, Т. 1, М.: Изд-во АН СССР, 1940, С. 101-191.
10. Лотман Ю. “Проблема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в прозе Гоголя”, *Избранные статьи в 3-х т.*, Т. 1, Талинн: Александра, 1992, С. 413-447.
11. Пушкин А. “Повести покойного Ивана Петровича”,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10-и т.*, Т. 6, М.; Л.: Изд-во АН СССР, 1950, С. 77-170.
12. *Сорочинская ярмарка*, реж. Николай Екк, 1938, СССР: Национальная киностудия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фильмов им. Александра Довженко.
13. Фасмер М. *Этимолог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М.: Прогресс, 1964.
14. Ярхо Б. *Методология точного литературоведения: избранные труды*

- по теории литературы*, Изд. подгот. М. В. Акимова, И. А. Пильщиков, и М. И. Шапир, М.: Языки славянских культур, 2006.
15. Blatt, Ben. *Nabokov's Favorite Word is Mauve*, New York: Simon & Schuster, 2017.
 16. Bojanowska, Edyta. *Nikolai Gogol: Between Ukrainian and Russian Nationalism*,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17. Glaser, Amelia. *Jews and Ukrainians in Russia's Literary Borderlands: From the Shtetl Fair to the Petersburg Bookshop*,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2012.
 18. Ilchuk, Yuliya. *Nikolai Gogol: Performing Hybrid Identity*,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21.
 19. Koropec'kyj, Roman and Romanchuk, Robert. "Ukraine in Blackface: Performance and Representation in Gogol's 'Dikan'ka Tales,' Book 1," *Slavic Review*, 62(4), 2003, pp. 525-547
 20. Korotkov, Georgii. "Disclosed reading: network analysis in comparing periodical models." Paper presented at the Association for Slavic, East European, & Eurasian Studies Annual Convention, Boston, MA, November 2024.

Abstract

Gogol's Colorial Empire

Kim, Eric
(Stanford University)

I demonstrate how Nikolai Gogol employs color in the short story “Sorochinskaia iarmarka” to construct a deliberately colorful space for his Imperial Russian reader. To support my close reading, I provide quantitative analysis along with data visualization, both of which reveal marked clusters of colorations at the beginning, middle, and end of the story. By distributing colors throughout the work along a narratologically methodical schema, Gogol establishes a colorful memory of or legacy for this Ukrainian setting; as a result, this rhetorical effect reaches not only Gogol’s contemporary readers but also future readers of this text. This multilateral approach to the story practices what Georgii Korotkov refers to as “disclosed reading,” or the combined use of traditionally philological and otherwise quantitative methods to produce and test readings of a text. Through this act of disclosed reading, I revisit the colonial memories of and imperial relations between Ukraine and Russia.

Key words : Nikolai Gogol’ , Sorochinskaia iarmarka, Vechera na khutore bliz Dikan’ ki, Color, Digital Humanities

История и жизнь Корё-сарам центрального и южного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после 1904 года: на основе «Исследование истории Корё-сарам центрального и южного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изданного казанским федеральным университетом

Ко, Ен Чоль*

국문 초록

2016년 6월 1일, 카잔 연방대학교 한국학 센터는 한국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해외 한국학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2023년 11월 30일까지 러시아 연방 서부 우랄산맥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역사와 현재 생활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의 결과는 2024년 4월, 중부 및 남부 러시아 지역 고려인의 역사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이 글은 연구를 통해 발굴된 고려인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 및 학문적으로 가치 있는 자료들을 소개하고, 주요 핵심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1980년 이후 러시아 중부 및 남부 지역으로의 한국인 이주 시기와 목적, 그곳에서 경험한 억압과 어려운 현지 적응 과정, 그리고 현재 그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후손들의 삶이다.

주제어 : 한국인, 고려 사람, 러시아, 억압, 강제 이주, 카잔 연방대

* Professor of Department of Chinese and Asia-Pacific Studies, Kazan(Volga region) Federal University, komgus@mail.ru

Введение

В 1990 году после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ей начались полноцен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корё-сарам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бъектом и областью которых являлся период с 1860-х годов, когда корейцы начали иммигрировать на российскую территорию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а также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ый образ жизни корейцев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после их принудительного переселения в различные регионы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в 1937 году.

«Центральный и Южный регионы России» не выделяются отдельным названием. Однако, употребляемое в данной работе выражение «Центральный и Южный регионы России» используется в следующих двух значениях.

Во-первых, необходимо провести различие между Уральским регионом России, начиная с Уральских гор, и западных и южных регионов от него, которые еще не были рассмотрены в ранних исследованиях.

Во-вторых, это является лишь названием, обозначающим область исследований НОЦ «Центр исследований Кореи «Корееведение» Казанск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 площадь исследуемого региона составляет 4000 км в ширину и 2000 км в длину.

В ходе исследования для данной книги использовались такие методы, как изучение архивных материалов, изучение конкретных случаев и проведение интервью. Иными словами, это результат исследования сохранившихся документов в архивах Центральных и Южны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сбора материалов и проведения интервью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корейских ассоциаций в Южных и Центральных регионах и местными корейцами об их жизни на местах.

В частности, исследования проводились в архивах 13-ти городов: Казань, Екатеринбург, Нижний Тагил, Уфа, Пермь, Челябинск,

Волгоград, Ростов-на-Дону, Астрахань, Элиста, Краснодар, Уссурийск, Владивосток.

Книга состоит из трех глав и 510 страниц. Первая глава посвящена миграции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ю в конце династии Чосон, вторая глава освещает период принудительной миграции корё-сарам в 1937 году и распад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В третьей главе представлены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й, проведенных в регионах, и текущая ситуация [1, С. 1-510].

В конечном итоге данная тема имеет практическую значимость в контексте изучения корё-сарам, так как выявление исторических фактов о корейцах в России может помочь следующему поколению исследователей и широкой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оценить факты и события прошлого и сформировать собственное мнение о них.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я

Книга содержит много новых материалов и исторических фактов, которые не были раскрыты в истории корё-сарам.

Первая глава освещает ранние этапы корейской миграции в Россию, начиная с конца XIX века. В ней подробно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архивные материалы Уссурий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региона, которые дают представление о первых волнах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Вторая глава охватывает трагические события 1937 года, когда многие корейцы были вынуждены покинуть свои дома, а также исследует положение корейской общины после распада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в 1990-х годах. Эта часть книги проливает свет на трудности и испытания, с которыми столкнулись корейцы в этот период.

Третья глава посвящена современному положению корейцев в различных регионах России.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ено Республике Татарстан, Уральскому региону, Волгограду и другим южным

регионам. Здесь представлены исследования местных архивов, документирующие жизнедеятельность корейских общин и их вклад в экономическое и культурное развитие регионов [2, С. 73-85].

Среди них мы рассмотрим основные аспекты, обладающие исторической и фактической ценностью.

1. Обзор архивных материалов, посвященных факту обучения корейских студентов из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в Казанской учительской (инородческой) семинарии в 1890-е гг. и их деятельности в Приморском крае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учебы

Эти данные были выявлены в процессе изучения корейско-русских словарей в отделе рукописей и редких книг Казанск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 в материалах о Казанской учительской (инородческой) семинарии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архиве Республики Татарстан [3, С. 234-247].

- Среди изученных документов были: ходатайство о приеме корейцев, жизнь в общежитии, документы и квитанции об оплате обучения, учебная программа по группам, предметы и расписание выпускных экзаменов, оригиналы аттестатов из российских школ и т.д. В особенности, оригиналы аттестатов можно признать редкими материалами.

- Существует 2 русских учебника для корейцев, изданные в 1901 и 1902 годах, а также 5 корейско-русских словарей, изданных в 1904 году.

- По данным предыдущ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российских ученых, количество корейских студентов составляло 7, но фактически были установлены имена 19 человек, и, хотя не было указано подробной информации об их группах и т.д., было выявлено фактическое количество зачисленных студентов.

- Русско-японская война привела к изданию корейско-русского словаря для облегчения действий русских солдат в зоне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в Корее, и были найдены доказательства того, что более семи студентов корейцев, которые учились в Казани, были направлены на работу в качестве переводчиков для российских военных, а также четверо были направлены в российские воинские части.

- В найденных документах содержалась информация о таких корейских студентах, как Ким Яков Андреев, первый зять Чхве Джэ Хёна, который оказал наибольшее влияние на движение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в России, он учился в учительской семинарии в 1898 году, Хан Андрей Абрамов (корейское имя Хан Мён Се) –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й активист, член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и член Временного центра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Иркутской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он участвовал в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не в 1904 году, Огай Василий Васильевич, который 18-го апреля 1918 года по инициативе своей жены Ким Александры Петровны, вместе с Ли Дон Хви, Ким Нип и т.д. основал Корейскую социалистическую партию, и прочих.

2. Свидетельства о первой трудовой миграции корейцев в Пермский и другие уральские регионы в 1904 г., тяжелые условия их жизни и последующее переселение на Южный Урал и в остальные южные и западные районы России

- Записка от 31 мая 1904 г., где корейцы Ким Сон Ир и Ян Бон Хан написали петицию губернатору Перми с просьбой: **«Я граждане Кореи, но работы не имею, в связи с чем прошу разрешения переехать из Пермского края в другой регион»**. Китайские иероглифы «金成日» и подпись на корейском ‘양봉한’ написаны от руки [4, С. 27-58].

3. Материалы о репрессиях, уголовных наказаниях и реабилитации корейских жителей на Урале в Пермской и Свердловской областях (ныне включает г. Екатеринбург) и в Челяб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1930-е гг.

- Обвинения: шпионаж, диверсии, контрреволюционн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антисоветская агитация и деятельность в пользу Японии.
- Период ареста: 1935 -1942 гг.
- Реабилитация: все реабилитированы в период с 1958 по 1989 гг.
- Места рождения: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Владивосток, Томск, Корея.
- Возраст: от 19 до 63-х лет.

Таблица 1. Сводка репрессии среди корейцев по регионам

Регион	Количество арестованных	Приговор	Деятельность
Свердловск (Современное название области, адм.центр - Екатеринбург)	77 человек (Обвинение в шпионаже: 19 человек, другие обвинения: 58 человек)	Смертная казнь: 60 человек, лишение свободы на срок от 3 до 5 лет: 11 человек, исправительно-трудовые работы: 11 человек	Члены организаций, таких как «профсоюз», крестьяне и их семьи, рабочие и их семьи, студенты, милиция, торговцы
Челябинск	31 человек (30 мужчин, 1 женщина)	Смертная казнь: 17 человек, лишение свободы на срок от 5 до 10 лет: 10 человек, ссылка в Казахстан на 5 лет: 1 человек, оправданы: 3 человека	Крестьяне из колхозов, шахтеры, слесари, составители поездов
Пермь	25 человек	Смертная казнь: 9	Рабочие,

		человек, лишение свободы на срок от 5 до 10 лет: 4 человека, домашний арест (2 года): 1 человек, оправданы: 11 человек	студенты, пенсионеры
Всего	133 человека	86 человек казнены	

В Екатеринбурге им посвящен мемориальный комплекс «жертв политический репрессий». Его еще называют «12-й километр», так как он находится на 12-м километре Московского тракта к западу от Екатеринбурга. Находится на месте массовых захоронений людей пострадавших от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прессий 1930-х годах. Список корейцев, расстрелянных в 1937-1938-х годах: на установленных плитах, на которых перечислено более чем 18 500 имен, были обнаружены имена корейцев (Хан Ге Бон, Хван В.А., Хван Н.) [5, С. 45-56].

4. Документы, подтверждающие принудительное переселение в 1937 г. 520 семей корейских рыбаков из Владивостока и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в Волгоградскую область

В результате исследования материалов, касающихся корейцев,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архиве Волгоградской области был обнаружены материалы, которые подтвердили, что «корейцы были вынуждены переехать в район Астрахани, чтобы заниматься рыболовством и сельским хозяйством».

В дополнение стоит упомянуть, что нынешняя Волгоградская область была Сталинградской в 1938 году, а нынешняя Астраханская область также была частью Сталинградской области, поэтому исторические

фактические данные о миграции и истории жизни корейцев хранятся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архиве Волгоградской области.

4.1 Следующие приказы и документы касаются депортации к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в Центральную Азию.

21 августа 1937 г. на основании Постановления Совета Народных Комиссаров и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Центрального исполните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указанием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совета народных комиссаров,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массовой высылке.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в архивах Волгоградской области обнаружены документы, связанные с депортацией корейцев в Волгоградскую область, содержание которых следующее [6, С. 73-85].

- Согласно внутренним документам № 5, 24, 77 и 110, есть вероятность того, что может существовать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о корейцах, проживавших в Волгоградской области. Это внутренний документ по чистке внутри партии, и упоминание о корейцах могут быть включены во внутренний документ № 1 (Сталинградский областной комитет ВКП(б) (1917–1928) и внутренний документ № 76 (областной комитет Всероссийской партии большевиков в Волгоградском регионе).

Секретно

Заместителю Председателя СНК СССР Чубарю В. Я. ⁶

5 ноября 1937 г.

Из состава переселенцев-корейцев **500** семей рыбаков размещены в районе Астрахани Сталинградской области. Так как средства на освоение и расплату с колхозниками-корейцами переведены КазССР и УзбССР, прошу приказать Казахской конторе Сельхозбанка перевести в Астрахань кредиты на **500** семейств 100 тыс. руб.

Замнаркома внутренних дел Союза ССР

Чернышев

ГАРФ, ф. Р-5446, оп. 29, д. 48, л. 20.

<Рис.1> Документ с требованием, чтобы для 500 семей рыбаков перевели средства поддержки из Казахстана в Астрахань, поскольку они проживают в районе Астрахани Сталинградской области

4.2 Документальные материалы, подтверждающие факт проживания принудительно переселённых корейцев в Астрахани Волгоградской области.

Всего в Волгоград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архиве имеются два дела о корейцах – библиография № 1265 (внутренний документ № П-2115 №1) и библиография № 209 (внутренний документ № П-537 №1).

Во-первых, удалось собрать данные о культуре и образовании среди этнических меньшинств на территории Сталинграда. Можно узнать, что в период с 1936 по 1937 год в Сталинграде учились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трое корейцев. Среди них двое учились в Сталинградском механическом институте, а третий посещал Сталинградский медицинский институт.

Во-вторых, в библиографии № 209 (внутренний документ № П-537 №1) собраны данные с целью проверки готовности 1) предприятий Волго-Каспийского госрыбтреста и 2) систем колхозов к рыболов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весенний период. Это включает планы, объяснительные записки, информации, акты).

В результатах проверки подготовки к промысл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Каспийском море в весенний период в народных рыб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предприятиях и коллективных хозяйствах, во внутреннем документе №29 на странице 3 (оборотная сторона) о корейцах упоминается следующее.

*«Некоторые помещения нижнего уровня были заняты **корейцами**, и это место должно быть реконструировано как место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абочих после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в этом районе, в другие места».*

Согласно исследованию эту информацию сообщил начальник Николаев 13 марта 1938 г.

На странице 79 упоминаются корейские рабочие на рыбозаводе «Молодая Гвардия», расположенном в Икрянинском районе

Астраханской области.

«Большинство взрослых и детей на фабрике уязвимы к заражению гриппом, также наблюдаются головные вши.

Внутри нет ни купальных принадлежностей, ни умывальников, ни ванн, ни дезинфекционных комнат»

В заключение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что принудительное переселение, которое, как утверждалось, происходило в 1937 году на товарных поездах только в Центральную Азию, 31 октября прибыло на железнодорожную станцию Астрахани в Сталинградской области (ныне Астраханская область) в южной части России, затем 2 871 человек из 520 семей были перевезены в село Увары.

В одном эшелоне перевозили 5-6 семей, также 10 семей. Увары расположен в 43 км к югу от Астрахан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центра Астраха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сле прибытия в Увары, 1-го ноября 1937 г. их насильно переселили на рыбницах в рыбацкие деревни Котьяевка, Чертамбай, Кудряшево и Сафоновка и другие в Денгизском районе Гурьевской области.

По свидетельствам потомков: «Существовавшие местные жители были переселены в другие районы, а крестьянские дома в этих деревнях были переданы корейским семьям». Кроме того, к ним относились уважительно, и, хотя корейцы были ограничены в свободе передвижения, им разрешалось учиться в университетах, работать в колхозах, на заводах, крупных промышленных предприятиях, использующих технику, в школах и на други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должностях.

В то время Гурьевская область, как и Астраханская, входила в состав Сталинградской области СССР.

5. Обнаружение оригинальных журналов учета работы

корейских рабочих на астраханских рыбоперерабатывающих заводах после 1938 г.

-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архиве Волгоградской области обнаружены свидетельства «принудительного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в Астраханскую область для занятия рыболовством и сельским хозяйством».

Данные собраны на основе документов из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архива Астраханской области, таких как «местоположение заводов, архивы».

Тридцатая строка на странице 80 гласит:

«23 марта 1938 г. Трудфронт в Глубокой тоне переселил корейцев в семейное общежитие, специально подготовленное для них»

Здесь корейцы были связаны с рыбозаводом, расположенном в районе «Трудфронт». Рыбозавод «Трудфронт» являлся дочерним предприятием национальной рыбной фабрики «Волга-Каспий», был расположен в поселке Трудфронт в Икрянинском районе Астраханского округа Сталинградской области.

На странице 82 описывается следующее: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роводится ремонт – семейное общежитие для корейцев окрашивается в белый цвет. Однако в данный момент ремонт и покраска не производятся, потому что невозможно переселить людей в другую часть общежития.

В некоторых общежитиях остановились работники Марлова.

Общежитие было переполнено из-за нехватки жилой площади, но сейчас эта проблема решена».

13 предложение на странице 82 гласит следующее:

«20 марта 1938 г.,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ремонта общежития для корейских семей, переселение продолжилось»

Информацию о рыбном заводе Трудфронт можно найти во внутреннем документе № Р-2376.

Место хран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Астраха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РФ, г. Астрахань, ул. Академика Королева, д. 39.

Часть принудительно переселенных корейцев была направлены на два завода Волго-Касп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Рыбопромышленный Треста для переработки рыбы, добытой в Каспийском море [7, С. 81-107].

Корейские рабочие были направлены на два завода по вылову и переработке рыбы. Для удобства разделим их на Завод №1 и Завод №2.

Согласно предыдущим исследованиям, проведенным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архиве Волгоградской области, Заводом №1, на котором упоминаются корейские рабочие, был рыбзавод «Молодая Гвардия», расположенный в Икрянинском районе Астраханского округа. Однако от завода осталось лишь его название, он исчез без следа.

Название Завода №2 было «Трудфронт» (ныне – рыбзавод «Трудфронт»). Второй завод, впервые созданный в 1921 г., назывался «Александровским рыбокомбинатом». В 1923 г. его название было изменено на «Трудфронт». В 1967 г. его переименовали в «Александровский осетровый завод». На 1967 год он был известен как «Александровский осетровый завод»,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называется «Главрыбвод».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я документов по Заводу №1 следующие:

- Название предприятия: Волго-Касп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Рыбопромышленный Трест / Завод №1: рыбзавод Молодая гвардия.
- Были исследованы данные в архивах с августа 1937 г. по декабрь 1938 г.
- Первое имя, Чагай Дин Су, который 27 декабря 1937 г. начал работать пожарным.
- Всего было выявлено 17 человек: Ча Дин Су, Чои Андреи, Ким

Тасякук, Ким Борис, Ким Тя гер, Чои Андреи, Ча-О-Гюн, Хан-Ден-Е, Шин Владимир, Ли-Игнати, Цои-Дон-Чири, Ча-О-Тан, Хан-Ден-Еп, Пак Анна, Ха-Ун- Сен, Ли-Хан-Юн, Сен-Ен-Хве(16 мужчин, 1 женщина).

- Профессии: 2 пожарных, 2 электрика, 1 бухгалтер, 1 автомеханик, 11 рабочих.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я документов по Заводу №2 следующие:

- Название предприятия: рыбзавод «Трудфронт» Волго-Каспи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Рыбопромышленного Треста.

- Были исследованы данные в архивах с декабря 1937 г. по декабрь 1940 г.

- Первое записанное имя, Юн Джин Бом, который в январе 1938 года начал работать на этом заводе бригадиром.

- Всего в списках зафиксировано 32 корейца:: Юн Чим бом, Ким Чан Сен, Ким Чан Хван, Ким Ил Хвар, Ким Чен Сун, Лис Ден Сек, Хим Дя Сек, Ким Мен Сек, Ким Ем Хи, Ким Дон Сик, Ким Пен Ок, Югей Чим Ок, Ким Иннокентий, Ли Мария, Ли Сен Дюк, Пя Анна, Дэ Сун Ок, Ли Сен Хи, Чан О Гюн, Ли Чан Хо, Ли Дон Фир, Ли Дон Дюн, Юн Василий, Ким Си Хон, Ку Ча Нюр, Ку Андрей, Цой Па Нам, Ча О Гюн, Ли Чен Чан, Ку Се Нин, Ку Анатолий, Им Пем Ок (30 мужчин, 2 женщин).

- По роду деятельности: бригадирами работали 26 человек, временными рабочими 6 человек.

Помимо вышеизложенного, полное содержание «Исследование истории корё-сарам Центрального и Южного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включает документы о преследовании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вших в Волгоградской области в 1920-1930-х гг., истории корейской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миграции в Краснодарский край после 1920 г., истории и современной ситуаци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миграции из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и Сахалина в Калмыкию после 1950 г., данные пр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сфере торговли между предприятиями Ур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в 1950-х гг., и про современные условия жизни корё-сарам на юге и центральной части России.

Вывод

В книге собраны исторические очерки, документы, статьи, архивные материалы, эссе, интервью, сведения о наиболее важных событиях в жизни корё-сарам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и, в особенности в Центральном и Южном регионах, начиная с их прибытия и по сей день.

Это издание основано на обширных исследованиях документов, связанных с корё-сарам, в различных южных регионах России, включая Татарстан, Урал, Волгоград и т.д. Из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 местных архивов, университетов и корейских ассоциаций были собраны документы и книги, созданные более чем за полвека, с конца XIX века до конца 1950 года, среди них документы о принудительном переселении и депортации корейцев в 1930-е годы, записи, показывающие тот удивительный факт, что корейские студенты из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учились в Казанской учительской (иностранческой) семинарии с 1890 годов, корейско-русские и русско-корейские словари, изданные для русских солдат, отправленных на службу во время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ны. Все они представляют собой ценные свидетельства, дающие конкретные представления о миграции и жизн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Помимо того, что это важное историческое исследование, оно также послужит ценным источником для понимания межкультурных взаимодействий и интеграционных процессов, происходивших в России на протяжении более века. Включённые в книгу архивные материалы, документальные свидетельства и первоисточники позволяют читателям глубже понять динамику и последствия миграционных процессов, а также их влияние на формирование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го и многокультурного 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Исследования образа жизни корё-сарам в этих регионах станут полезным материалом для

раскрытия и систематизации истории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Мы надеемся, что книга станет важным ресурсом для историков, социологов, студентов и всех, кто интересуется историей корейской миграции и её влиянием на развитие страны. Она способствует лучшему пониманию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и истории в российском контексте, обеспечивая глубокий и всесторонний взгляд на этот важный аспект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ы ожидаем, что материалы, собранные в этой книге, будут полезны в исследованиях в различных областях, включая историю.

참고문헌

1. НОЦ «Центр исследований Кореи «Корееведение» Казанск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сследование истории корё-сарам Центрального и Южного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энциклопедия*, Казань: Издательство Каза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2024.
2. Ко Ен Чоль, “Науч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Центра корееведения Казанск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введение в изучение «Корё-сарам Центрального и Южного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Корееведение в России: направление и развитие*, Т. 5, № 22, 2024.
3. Ко Ен Чоль, Ким Енсук, Буланова А.А. “Поиск и анализ материалов по прибыванию корейцев на территории ур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начало XX в.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Корееведение в России: направление и развитие*, Т. 2. № 4, 2021.
4. Ко Ен Чоль, “Первое появление корейцев на территории Пермского края”, *Корееведение в России: направление и развитие*, Т. 4, № 1, 2023.
5. Ко Ен Чоль, “Положение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в России и вынужденно мигрированных корейцев на юг России в связи с вынужденным переселением корейцев в 1937 г.”, *Корееведение в России: направление и развитие*, Т. 3, № 3, 2022.
6. Ко Ен Чоль, “1937 г. Астраханский Волго-Касп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рыбоперерабатывающий завод. Исследование процесса вынужденного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Корееведение в России: направление и развитие*, Т. 4, № 3, 2023.
7. Ko Young Cheol, Kim Youngsuk, E. K. Khabibullina, “The History of Korean Students’ Education in Kazan, Russia, 1890-1910”,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Vol. 25, No 1, 2022.

Abstract

History and Life of Koryo People in Central and Southern Regions of Russia since 1904: Focusing on 'Research on Koryo-saram in the Central and Southern Regions of Russia' Published by Kazan Federal University

Ko, Young Cheol
(Kazan Federal University)

The Center of Korean Studies at Kazan Federal University, with the support of 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began its overseas Korean studies project on June 1, 2016 and conducted research on the history and current lives of the Koryo-saram in the western Ural Mountains of the Russian Federation until November 30, 2023.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ere published in April 2024 as "Research on the History of the Koryo People in the Central and Southern Regions of Russia."

This article aims to present the historical facts and academically valuable materials related to the Koryo people unearthed through this research, as well as the main core content.

The main content will cover the timing and purpose of Koreans' migration to the central and southern regions of Russia since 1980, the oppression they endured there and the difficult life of adapting to the local area, and the lives of their descendants currently living there.

Key words : Koreans, Koryo-saram, Russia, Oppression, Forced Migration, Kazan Federal University

Корейские переселенцы на юге России: практики хозяйственной и социокультурной адаптации

В. Н. Ракачев*

국문 초록

역사적으로 러시아는 넓은 영토, 다국적 인구 등의 요인을 통해 발전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 내 거주민의 이주 과정, 새로운 영토에서의 적응에 관한 연구는 큰 중요성을 지닌다. 본 논문은 러시아 남부에 거주하는 러시아 고려인(고려사람)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적응 과정을 연구한 성과다. 최초의 한인 이민자 그룹은 농업 현대화를 위한 국가 프로그램의 하나로 이곳에 이주했으며, 그들이 맡은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이 지역의 새로운 농작물인 쌀을 재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이 지역에서 이루어진 고려인의 이주는 소비에트 연방 내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과정, 그리고 유리한 기후 조건을 갖춘 남부 지역에 정착하려는 고려인의 열망과도 관련되었다. 본 논문의 저자는 이를 연구하기 위해 러시아 연방 중앙 및 지역 기록 보관소의 다양한 문서, 통계 데이터, 사회학 연구 자료를 활용했다. 그 결과, 고려인 지역 정착의 여러 단계와 그에 따른 적응 모델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자연·생태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공간에 깊이 침투하는 고려인의 적응 모델이 도출된다. 이처럼 고려인들은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일원이 됨과 동시에 민족의 포괄적인 발전을 보장할 수 있었다.

주제어 : 한국계 이주민, 남부 러시아, 디아스포라, 이주 과정,
사회·문화적 적응, 경제적 적응

* 쿠반국립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midav.sf@mail.ru

I. Введение

Тема миграции и адаптации переселенцев в новое хозяйствен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и социокультур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занимает в современной науке важное место. Это связано с развитием коммуникаций и ростом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й мобильности людей в современном мире. В этих условиях на первый план выходят вопросы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разных культурных, социальных, религиозных групп между собой, способы их взаимной адаптации, приживаемости и хозяйственного освоения новой территории. В этой связи важным и актуальным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исторический опыт приспособления переселенцев, который позволяет определить те модели, которые апробировались ими в ходе адаптации и могут быть успешными в более широком пространственном и хронологическом контексте.

II. Теория и методы

В центре данного исследования находятся корейские переселенцы на Юге России. Цель исследования состоит в том, чтобы изучить опыт их территориальн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и социокультурной адаптации в новых природно-климатических и социально-политических условиях.

Для этого мы используем комплексный подход, который объединяет концептуальные положения истории, социологии, этнологии, культурной антропологии и географии человека. При этом в качестве основных теорий мы используем этноэкологический подход,¹⁾ который позволяет дать объяснение челове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и культуры как продуктов адаптации к заданным условиям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²⁾ Каждый народ,

1) Ямсков А. Н. “Этноэколог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культуры и концепция культурного ландшафта”, *Культурный ландшафт: Теоретические и региональ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М., 2003), с. 59.

2) Salzman, Phillip Carl and Donald W. Attwood. “Ecological Anthropology,”

имеет свои экономические и культурные особенности, такие как традиционный образ жизни, народная культура, обусловленные и ограниченные географической и экологической средой, в которой они живут.³⁾ Другой концепцией является теория культурного ландшафта, который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результат целенаправл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человека, где элементы природной среды изменены челове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но не разрушены полностью.⁴⁾ Принципиальным в культурном ландшафте является его регулируемый человеком характер.⁵⁾ Исследуя культуру народа в географическ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и территориальную дифференциацию его образа жизни, мы опираемся на положения культурной географии, которая придает особое значение институтам, группам, коммуникации и символам, что позволяет понять пространственное поведение людей, как результат их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к группе.⁶⁾ Описать и объяснить механизмы приспособления индивидов и групп (в том числе мигрантских) к новым социокультурным условиям помогает концепция межкультурной адаптации. Она показывает как индивидов и групп могут формироваться способности к эффективному взаимодействию с членами принимающих сообществ.⁷⁾

Эмпирическую базу в нашем исследовании составили архивные документы, материалы СМИ, статистические данные, вторичные данные.

Encyclopedia of Social and Cultural Anthropology (London: Routledge, 1996), p. 169.

- 3) Seymour-Smith, Charlotte. *Dictionary of Anthropology* (Boston: G. K. Hall and Company, 1986), p. 62; 손정일, 「소수민족 지구의 생태문제」, 연세대학교 중국연구원, 2021.03.21. URL.: <https://yonseisinology.org/articles/social/1464>. Дата обращения: 10.10.2024.
- 4) Мильков Ф. Н. *Человек и ландшафты. Очерки антропогенного ландшафтоведения* (М.: Мысль, 1973).
- 5) Исаченко А. Г. *Оптимизация природной среды (географический аспект)* (М.: Мысль, 1980).
- 6) Zelinsky, W. *A Prologue to Population Geograph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66).
- 7) Kim, Young Yun. "Adapting to a New Culture", *Theorizing About Intercultural Communication*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2005); Berry, J. W.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1 (1997).

Для обработки массива эмпирических данных мы использовали сравнительно-исторический, сравнительно-сопоставительный, описате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оциологический методы, а также факторный и системный анализ.

III.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я и обсуждение

III.1. 1-й этап: начало 1930-х гг. – переселение корейцев на Юг России, создание корейских коммун

Корейцы начинают в южные регионы России в начале 30-х годов XX века. В этот период в СССР преобладала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ая модель управления миграцией. Рассматривая миграцию корейцев в регион в рамках этой модели, можно выделить несколько важных моментов: во-первых, решение об их переселении имело народно-хозяйственное значение, и было обусловлено имеющимся у них опытом традиционного возделывания риса, что было востребовано в условиях освоения и развития плавневых земель в регионе; во-вторых, эти переселения имели стратегический характер, советская власть, таким образом, стремилась обеспечить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ую безопасность страны за счет производства необходимых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культур и удовлетворить потребности государства не прибегая к импорту в условиях международн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изоляции. Одной из таких сельхозкультур был рис, производство которого планировалось развить на плавневых землях Северного Кавказа, непригодных для производства пшеницы и других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культур.

Кроме того, учитывался позитивный опыт совместного проживания корейцев с другими народами на российском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их трудолюбие и лояльность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и.⁸⁾ Последний фактор играл

8) Дятлов В. И. *Современные торговые меньшинства: фактор стабильности или конфликта? (Китайцы и кавказцы в Иркутске)* (М., 2000), с. 69.

особую роль. Корейцы, стали полноправными гражданами молодого совет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и как другие народы получили право н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родного языка в делопроизводстве, образовании, издание на нем национальных газет и литературы, создание своих национально-территори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В Приморском крае, где на начало 1920-х гг. проживало 107 тыс. корейцев, был создан Посыет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район.⁹⁾ Все это резко контрастировало с положением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вших на оккупированной Японией территории.

В качестве экспериментальной площадки для рисосеяния был определен Славянский район Северо-Кавказского края, значительную территорию которого занимали плавни. В мае 1929 г. при Северо-Кавказском краевом зернотресте организовано Управление строительства по мелиорации Приазовских, Закубанских и Адыгейских плавней («Плавстрой»)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Д. П. Жлобы.¹⁰⁾ В ходе работ внедрялись новейшие достижения в области мелиорации, использовались различные сорта риса (приморский, среднеазиатский и др.). 1920–1930-е гг. – это период модернизационного прорыва в стране, использования новаторских методов. Одним из таких новаторских решений стало приглашение для работы в рисовых хозяйствах юга России корейцев. Интерес к корейским специалистам был обусловлен,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их знаниями и умениями, а с другой, устойчивым представлением о них как о великих тружениках-земледельцах.

К сожалению, архивные документы не дают нам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следить принцип отбора корейских переселенцев в южные регионы России, но учитывая специфику того времени и имеющиеся в нашем распоряжении документы, мы можем предположить, что большинство из них были добровольцами-коммунистами и комсомольцами.

9) Бугай Н. Ф., Гонов А. М. *«По решению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оюза ССР...»* (Нальчик, 2003), с. 120.

10) Мелиорация на Кубани. История, URL: <https://www.kmvh.ru/melio2.html> Дата обращения: 10.10.2024.

Корейские коммуны были основаны в 1933 г. в Славянском районе Северо-Кавказского края (в 1937 г. эти территории войдут в состав Краснодарского края выделившегося из состава Северо-Кавказского). Данный эксперимент широко освещался в центральных СМИ. В частности газета «Известия» сообщает нам, что «107 корейских переселенцев организовали в Славянском районе коммуну, получив в распоряжение 230 га земли, и активно распространяют опыт рисосеяния на новом месте. Партийные и советс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Славянского района придают большое значение освоению опыта корейской коммуны в обработке риса и считают, что в районе имеются вс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постановки высокоинтенсивного рисосеяния».¹¹⁾ Материальная поддержка переселенцев была на порядок ниже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В архивах сохранилось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обращений к руководству Славянского района о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льгот переселенцам-корейцам, как участника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ереселенческой программы.¹²⁾ Но они, в большинстве своем, не были поддержаны.¹³⁾

Несмотря на бытовые и хозяйственные сложности корейские артели активно осваивали кубанские земли, выполняя поставленные задачи в области рисосеяния. В газете «Известия» за 1934 год широко освещался опыт молодого корейского коммуниста Сен Чи-дюна (Сен-Дюн), руководителя корейской артели им. Димитрова Ивановской МТС. Отмечалось, что корейцы не только «принесли на кубанские поля корейский опыт рисосеяния и добились крупной победы»,¹⁴⁾ но и «колхозный рис начал занимать в артельном севообороте свое место на плавневых землях, дающих низкий урожай всех культур, кроме риса».¹⁵⁾ Этот опыт был интересен и тем, что переселенцы-корейцы фактически

11) «Корейская коммуна на Северном Кавказе», *Известия*. 10 октября 1933 г.

12)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Ростовской области (ГАРО). Ф. Р-2608. Оп. 1. Д. 61. Л. 80.

13) ГАРО. Ф. Р-2608. Оп. 1. Д. 61. Л. 46.

14) Головкин С. «Опыт корейца Сен Чи-дюна (Сев риса на кубанских полях)», *Известия*. 8 июня 1934 г.

15) *Известия*. 5 октября 1935 г.

перенесли традиционную этноэкосистему, которую они сформировали на родине и развивал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 новое географическ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заметно изменив здесь культурный ландшафт.

Успешная адаптация первых корейских переселенцев стимулировала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стихийный миграционный поток корейцев на Кубань, отношение к которому было неоднозначным.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руководители сельхозпредприятий были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в привлечении трудоспособного населения, специалистов в выращивании не специфической для региона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культуры, но с другой, введенный в 1932 г. паспортный режим накладывал серьезные ограничения и наказания за регистрацию стихийных мигрантов.¹⁶⁾

Специфика хозяйственно-территориальной адаптации корейцев в этот период была обусловлена тем, что климат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тип хозяйствования были близки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м. Кроме того, местное руководство, только начавшее разрабатывать новую для региона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ую культуру, не вмешивалось в хозяйственные процессы. Социально-культурная адаптация также происходила безболезненно, так как в этот период основным критерием лояльности была солидарность идеям совет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чему корейские переселенцы полностью соответствовали. При этом переселенцы успешно сохраняют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ый компонент, в том числе благодаря тому, что проживали этнической коммуной.

Перелом в совет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е начинается с 1936 г., когда главной целью становится унификация хозяйственно-культурной жизни, предусматривавшей всестороннее развитие русского языка, сокращение программ «коренизации», ликвидации национально-территори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национальных районов и национальных сельсоветов. Часть национальных лидеров и активистов была репрессирована.

16) Центр документации новейшей истории Ростовской области (ЦДНИРО). Ф. 166. Оп. 1. Д. 14. Л.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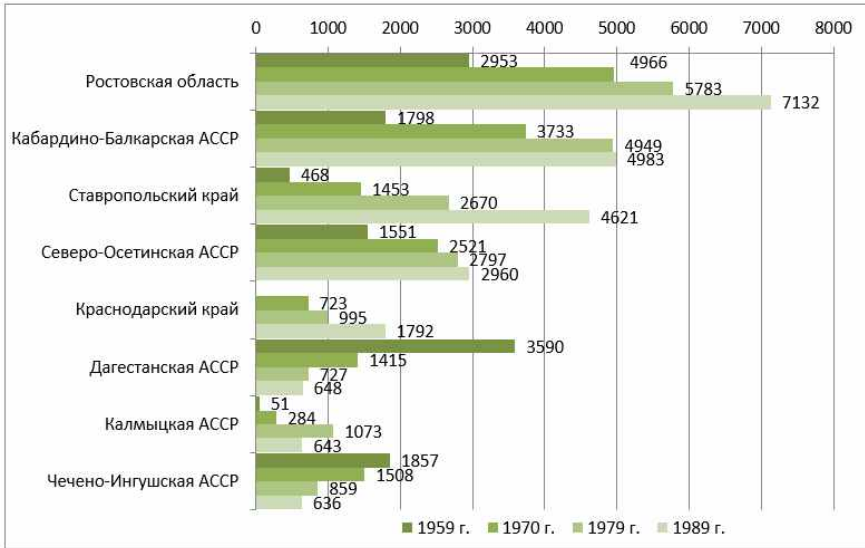
Не избежали репрессий и корейцы, проживавшие на Кубани. В 1936 г., по данным приведенным Ж.Г. Сон, из имеющихся в Краснодарском крае 200 корейцев превентивно были обвинены и осуждены 99 человек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жители ст. Ивановской). 18 декабря 1937 г. в колхозе им. Димитрова было арестовано 69 человек, из них 59 чел. приговорены в высшей мере наказания. Арестованные, начиная с 1915 г.р. и моложе, приговаривались к 10-ти годам исправительно-трудовых лагерей.¹⁷⁾ В 1937 г. был арестован и ударник-коммунист Сен Чи-дюн, необоснованно обвиненный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японской разведкой и приговоренный к ссылке в Северный край на 5 лет (24 марта 1958 г. Сен Дюн был реабилитирован военным трибуналом СКВО).¹⁸⁾ В результате массовых репрессий и депортаций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на Кубани в 1930-е гг. практически прекратила свое существование. Не реализовалась в этот период и программа по приглашению корейцев для развития рисосеяния в других регионах Юга России.

III.2. 2 этап – 1950-е гг. – переселение корейцев в южные регионы России после реабилитации

Миграция корейцев на Юг России в 1953–1956 гг. была связана с реабилитацией и снятием с них ограничений по переселению. Теплый климат, удобные для развития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земли привлекают трудолюбивых корейцев. Дополнительным стимулом стало возобновлен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по развитию рисосеяния на Юге России,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на Дону. Вследствие чего здесь стала быстро расти численность корейцев. По данным Всесоюзной переписи населения 1959 г. корейцы проживали уже во всех регионах Юга России (рис. 1), составляя наибольшее число в Ростовской области (2953 чел.).

17) Сон Ж. Г. Советские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 от добровольной до принудительной миграции (1920–1938) URL: <http://koryo-saram.ru/sovetskie-rossijskie-korejtsy-ot-dobrovolnoj-do-prinuditelnoj-migratsii-1920-1938/>. Дата обращения: 11.09.2024.

18) *Книга памяти жертв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прессий по Краснодарскому краю* (Краснодар, 2005), с. 436.



<Рисунок 1> Численность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в регионах Северного Кавказа по данным Всесоюзных переписей населения 1959, 1970, 1979 и 1989 гг., чел.¹⁹⁾

В период с 1959 по 1989 гг. распределение корейцев по регионам Юга меняется. На <рис. 1> видно, что их численность значительно выросла в Ростовской области, Ставропольском и Краснодарском краях, и, напротив, заметно сократилась в Чечено-Ингушской и Дагестанской АССР. К 1989 г. Ростовская область становится, наряду с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ью, Приморским и Хабаровским краями регионом с наибольшей долей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Помимо участия в программе рисосеяния деятельность корейцев была

19) Рассчитано по: *Национальный состав населения Краснодарского края и владения родным языком по данным Всесоюзной переписи населения 1970 года.* Краснодар, 1971; *Национальный состав населения Краснодарского края и владение родным языком по данным Всесоюзной переписи населения 1979 года.* Краснодар, 1980; *Национальный состав населения Краснодарского края по данным Всесоюзной переписи населения на 12 января 1989 года.* Краснодар, 1990. Численность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Краснодарского края показана совместно с Адыгейской автономной областью которая в этот период входила в его состав,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Ставропольского края совместно с Карачаево-Черкесской автономной областью.

связана с овощеводством. Здесь успешной оказалась корейская модель семейных бригад – кобонди (кобончиль).²⁰⁾ Формально они были элементом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й хозяйственной модели, но работая по хоздоговору, могли получать суммы, значительно превышающие среднюю заработную плату колхозников. Можно с определенными допущениями сказать, что это были первые опыты модернизации советской плановой экономики, внедрение в нее рыночных элементов. Таким образом, корейцы внесли значительный вклад в изменени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ландшафта, неизменным элементом которого стали, в частности, рисовые чеки.

Социально-культурная адаптация корейцев в регионе проходила достаточно успешно. Молодое поколение корейцев уже было хорошо интегрировано в советскую систему, воспитано в культуре интернационализма. В этот период наблюдается достаточно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межнациональных браков среди корейцев. Следствием этого, а также общего нивелирования советского социально-культур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стала языковая ассимиляция. Значительная часть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в регионе переходит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Если в 1970 г. 47,3% корейцев Краснодарского края определили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как родной, то в 1979 г. уже 37,5%, а в 1989 г. – 31,8%.²¹⁾ Схожие процессы наблюдались и в других регионах Северного Кавказ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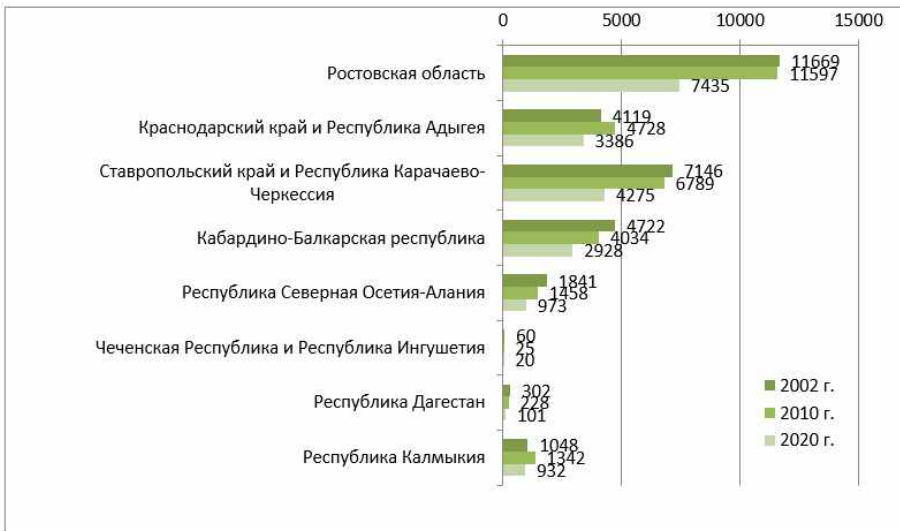
Таким образом, на втором этапе можно говорить об успешной территориальн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адаптации корейцев, социокультурная адаптации, которая также в целом протекала успешно, имела некоторые особенности связанные с языковой ассимиляцией в принимающем обществе.

20) Хан В. С. *Коре сарам: кто мы? Очерки истории корейцев* (Бишкек, 2009).

21) Рассчитано по: *Национальный состав населения Краснодарского края и владения родным языком по данным Всесоюзной переписи населения 1970 года*. Краснодар, 1971; *Национальный состав населения Краснодарского края и владение родным языком по данным Всесоюзной переписи населения 1979 года*. Краснодар, 1980; *Национальный состав населения Краснодарского края по данным Всесоюзной переписи населения на 12 января 1989 года*. Краснодар, 1990.

III.3. 3 этап – 1990-е гг. – миграция корейцев на Юг России в постсоветский период

Третий этап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на Юг России пришелся на 1990-е гг. Это сложный период в истории страны: распад СССР,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и политические кризисы, а также вооруженные конфликты в бывших союзных республиках увеличили миграционные потоки корейцев из Средней Азии в регионы России, в том числе и на Юг России. Это отражается на численност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региона, заметно увеличившейся к моменту проведения первой постсоветской переписи 2002 г. (<рис. 2>).



<Рисунок 2> Численность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в регионах Северного Кавказа по данным Всероссийских переписей населения 2002, 2010 и 2020 гг., чел.²²⁾

22) Рассчитано по: *Национальный состав населения Краснодарского края и владения родным языком по данным Всесоюзной переписи населения 1970 года.* Краснодар, 1971; *Национальный состав населения Краснодарского края и владение родным языком по данным Всесоюзной переписи населения 1979 года.* Краснодар, 1980; *Национальный состав населения Краснодарского края по данным Всесоюзной переписи населения на 12 января 1989 года.* Краснодар, 1990; *Всероссийская перепись населения РФ 2020 г.* Т. 4. URL.:

Сохраняются тенденции в демографическом и миграционном поведении корейцев характерные для предыдущих этапов. Основной территорией притяжения для них в этот период выступает Ростовская область. Но рост численност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к 2002 г. происходит во всех южных регионах, за исключением Чечен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Республики Ингушетия и Республики Дагестан. Вероятно, это было связано как с ростом межнациональных противоречий в республиках, так и с усилившейся экономической конкуренцией в условиях постоянных кризисов. В тоже время обращает на себя снижение численност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практически во всех территориях Юга России по данным переписи 2020 г. Возможно, это обусловлено дальнейшим процессом ассимиляции, а также амбивалентностью самосознания русских корейцев (корё сарам), идентифицирующих себя и как русских, и как корейцев, что показывают материалы социолог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В плане хозяй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развитие рыночных отношений и либерализация экономики благоприятно сказались на экономическом положени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в регионе. Корейцы активно внедряют новые формы в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дают новый импульс развитию ряда сельских территорий и предприятий.

В социально-культурной сфере также произошли заметные изменения.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не только численно увеличилась на Юге России, но и продолжила линию на успешную интеграцию в социокультур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при этом сохраняя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ую самобытность. С уверенностью можно говорить о принятии корейцами многих черт российского/русского менталитета. Об этом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и тот факт, что в самосознании самих корейцев закрепилось представление о себе как о «русских» корейцах – корё

https://www.gks.ru/free_doc/new_site/perepis2010/croc/perepis_itogi1612-tom4.htm Дата обращения: 21.09.2024. Численность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по ряду регионов объединена для удобства сравнения с данными предыдущих периодов.

сарам. В этой связи корейцы, проживающие на Северном Кавказе, сегодня воспринимаются как самобытная, но хорошо интегрированная в местное сообщество этническая группа.

Корейцы, проживающие на Юге России принимают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о всех сферах жизнедеятельности общества: политике, экономике, науке, искусстве и т.д.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заметно вырос уровень самосозн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происходит возрожд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языка, исторической памяти,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ются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ые объединения (НКО). В мае 1991 г. была создана Краснодарская краевая Ассоциация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Та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успешно обеспечивают помимо сохранения и воспроизводства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социальный контроль, выступают арбитрами в конфликтных ситуациях, в том числе в сфере межэтничес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В развитие культуры значительный вклад вносят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учреждения. Большую роль в изучени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культуры играет Куба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²³⁾ где функционирует Центр изуч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духовным и научным лидером которого является профессор Юрий Григорьевич Смертин.

IV. Заключение

Подводя итог, можно сделать вывод о том, что корейская модель территориальн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и социокультурной адаптации оказалась достаточно успешной, они смогли приспособить этноэкологическую систему к новым условиям, воспроизвести элементы традиционного

23) Смертин Ю. Г. “Востоковедение в Кубан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Куба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100 лет в истории России: Материалы Всероссийской (с международным участием)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Краснодар, 18–20 февраля 2020 г.* (Краснодар: Куба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2020), с. 222.

культурного ландшафта, встроив их нов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момент корейцы Юга России глубоко и успешно интегрированы в социокультур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региона. Не последнюю роль сыграли высокие адаптационные способности корейцев, присущая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установка на социальную солидарность и сохранение культурных традиций.

참고문헌

1. 손정일, 「소수민족 지구의 생태문제」, 연세대학교 중국연구원, 2021.03.21. URL.: <https://yonseisinology.org/articles/social/1464>. Дата обращения: 10.10.2024.
2. Бугай Н. Ф., Гонов А. М. «По решению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оюза ССР...». Нальчик: Издательский центр «Эль-Фа», 2003.
3. *Всероссийская перепись населения РФ 2020 г.* Т. 4. URL.: https://www.gks.ru/free_doc/new_site/perepis2010/croc/perepis_itogi1612-tom4.htm Дата обращения: 21.09.2024.
4. ГАРО. Ф. Р-2608. Оп. 1. Д. 61. Л. 46.
5. Головкин С. “Опыт корейца Сен Чи-дзюна (Сев риса на кубанский полях)”, *Известия*. 8 июня 1934 г.
6.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Ростовской области (ГАРО). Ф. Р-2608. Оп. 1. Д. 61. Л. 80.
7. Дятлов В. И. *Современные торговые меньшинства: фактор стабильности или конфликта? (Китайцы и кавказцы в Иркутске)*. М., 2000.
8. *Известия*. 5 октября 1935 г.
9. Исаченко А. Г. *Оптимизация природной среды (географический аспект)*. М.: Мысль, 1980.
10. *Книга памяти жертв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прессий по Краснодарскому краю*. Краснодар, 2005.
11. “Корейская коммуна на Северном Кавказе”, *Известия*. 10 октября 1933 г.
12. Мелиорация на Кубани. История, URL: <https://www.kmnh.ru/melio2.html> Дата обращения: 10.10.2024.
13. Мильков Ф. Н. *Человек и ландшафты. Очерки антропогенного ландшафтоведения*. М.: Мысль, 1973.
14. *Национальный состав населения Краснодарского края и владения родным языком по данным Всесоюзной переписи населения 1970 года*. Краснодар, 1971.
15. *Национальный состав населения Краснодарского края и владение*

- родным языком по данным Всесоюзной переписи населения 1979 года. Краснодар, 1980.
16. Национальный состав населения Краснодарского края по данным Всесоюзной переписи населения на 12 января 1989 года. Краснодар, 1990.
 17. Смертин Ю. Г. “Востоковедение в Кубан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Куба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100 лет в истории России: Материалы Всероссийской (с международным участием)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Краснодар, 18–20 февраля 2020 г.*, Краснодар: Куба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2020.
 18. Сон Ж. Г. Советские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 от добровольной до принудительной миграции (1920–1938) URL: <http://koryo-saram.ru/sovetskie-rossijskie-korejtsy-ot-dobrovolnoj-do-prinuditelnoj-migratsii-1920-1938/>. Дата обращения: 11.09.2024.
 19. Центр документации новейшей истории Ростовской области (ЦДНИРО). Ф. 166. Оп. 1. Д. 14. Л. 5.
 20. Хан В. С. *Коре сарам: кто мы? Очерки истории корейцев*. Бишкек, 2009.
 21. Ямсков А. Н. “Этноэколог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культуры и концепция культурного ландшафта”, *Культурный ландшафт: Теоретические и региональ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М., 2003.
 22. Berry, J. W.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1, 1997.
 23. Kim, Young Yun. “Adapting to a New Culture”, *Theorizing about intercultural communication*.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2005.
 24. Salzman, Phillip Carl and Donald W. Attwood. “Ecological Anthropology”, *Encyclopedia of Social and Cultural Anthropology*, London: Routledge, 1996.
 25. Seymour-Smith, Charlotte. *Dictionary of Anthropology*. Boston: G. K. Hall and Company, 1986.
 26. Zelinsky, W. *A Prologue to Population Geograph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66.

Abstract

**Korean Settlers in the South of Russia:
Practices of Economic and Socio-cultural Adaptation**

Rakachev, V. N.
(Kuban State University)

Large territories, multinational population, these and other factors have determined the development of Russia throughout its history. In this context, the study of migration processes of the country's peoples, their adaptation in new territories is of particular relevance. The article examines the practices of economic and socio-cultural adaptation of Russian Koreans (Koryo saram) in the South of Russia. The first groups of Korean immigrants arrived here as part of the state program for the modernization of agriculture, an integral part of which was the development of a new agricultural crop for the region - rice. The subsequent migration of Koreans to the region was associated with both the political processes taking place in the country and the desire of Koreans to settle in the southern region with favorable climatic conditions. The author used a wide range of documents from the central and regional archives of the Russian Federation, statistical data, and sociological research materials. The study allowed us to identify several stages of the resettlement of Koreans to the region and the corresponding adaptation models. It is concluded that Russian Koreans (Koryo saram) throughout the historical period used an adaptation model that combined deep integration into the new natural-ecological, socio-cultural and economic space, while maintaining their ethnic identity. This allowed them to become an organic part of the regional society and at the same time ensure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of the Korean ethnic group.

Key words : Korean Immigrants, South of Russia, Diaspora, Migration Processes, Socio-cultural Adaptation, Economic Adaptation

Korean Studies in Russia: A Century and a Half-long Journey

Smertin, Yuri G.*

국문 초록

러시아에서의 한국 연구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러시아에서 한국학이 정치적, 사회적 과정과 연계하여 형성되고 발전해 온 오랜 과정을 추적한다. 연구의 초점은 러시아 학자들에 의한 한국 전체(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역사, 사회, 정치, 국제 관계를 다룬 연구에 있다. 특히 20세기 후반 이후의 상황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진다.

구체적으로 본론에서는 러시아에서의 한국학 발전의 주요 단계를 정의하고, 각 단계에서의 간략한 특징을 제시한다. 단계마다 한국학의 발전 수준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연구들과 러시아, 소련 및 소련 해체 이후 시기의 저명한 학자들의 이름이 언급된다. 이를 통해 한국학 연구가 한국이라는 대상 국가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심화하는 과정으로서의 학문적 발전으로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특히 현재 한국학의 상태에 주목하며 주요 연구 방향과 그 성과에 대해 논의한다.

결론에서는 러시아 한국학이 깊은 전통과 학문적 학파들을 형성했으며, 이러한 학파들은 뛰어난 학자들을 결집했고, 이들의 노력으로 러시아에서 한국 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개선되고 있음을 지적할 것이다.

주제어 : 한국학, 한국, 대한민국,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역사, 정치

* Kuban State University, Professor, usmer@hotmail.com

I. Introduction

Since the mid-17th century, the Korean government, which was a vassal of Qing China, pursued a policy of strict isolation from external contacts. However, information about Korea penetrated into Russia through various channels. These were the testimonies of travelers, reports of the Russian Ecclesiastical Mission in Beijing. The flow of information increased especially from the beginning of the 19th century, when Russian traders, diplomats, and travelers came into contact with the state about which Russia wanted to have reliable information.

The interest of the Russian public in the Korean state is also confirmed by the fact that in the 1830s, translations of Western European books about Korea were published in Russia. Frenchman Eiret in his book "Picturesque Journey through Asia" described the Koreans as follows: "The Koreans are pleasant in appearance, polite and courteous among themselves, obliging and welcoming to all foreigners... They are generally kind, humane, timid, hard-working, thrifty, and modest... They show great inclination towards science."

A new stage in the development of Russian-Korean relations began in 1860, when Russia signed the Treaty of Beijing with China, which defined the Russian-Korean border. From that time on, peasant families from the northern province of Hamgyong began to migrate to the Russian Far East for permanent residence. The reason for the emigration was the difficult economic situation. A Korean quarter called "Koreyskaya Sloboda" was formed in Vladivostok. Schools were opened in Korean villages.

From that time onwards, the number of publications about Korea in newspapers and magazines increased significantly.

The first result of numerous publications about Korea was the publication in 1875 of a major work "Korea. An Essay on the History of Institutions, Language, Morals, Customs, and the Spread of Christianity," authored by P. I. Zhdan-Pushkin. Since that time on, we can talk about

the emergence of Korean studies in Russia.

In 1876, the Japanese-Korean trade treaty was signed. Korea opened several ports for trade with Japan. Following Japan, Korea signed similar treaties with the United States, England, Germany, France and Russia. Korea's isolation from the outside world ended. The number of publications in Russia about Korea increased significantly.

In 1884, the first treaty on friendship and trade was signed between Russia and Korea. After that, the study of Korea in Russia entered a qualitatively new stage of development.

Before the establishment of official diplomatic relations with Korea, interest in Korea in Russia was realized mainly as part of Sinology. By the end of the 19th century, Korean studies proper was formed as an independent branch of oriental science. Merchants, military personnel, and scientists began to visit Korea, leaving information and memories in diaries, articles, and books.

In August 1894, the Sino-Japanese War for dominance in Korea began. Because of this, contacts between Korea and Russia were temporarily interrupted, and travels by Russian merchants, officers, and scientists ceased. The destructive war, as is known, ended with Japan's victory. As a result, the country was occupied by Japanese troops. A mass protest movement of the local population against the actions of the occupiers began.

After the end of the Sino-Japanese War, scientific expeditions and travels to Korea by Russian scientists and merchants resumed. Their books, reports, diaries, and memoirs were published. They told about the actions of the Japanese occupiers in Korea, about flora, fauna, crafts, agriculture, religion, customs, beliefs, and many other aspects of the life of the Korean people.

In 1897, the Faculty of Oriental Languages at St. Petersburg University began teaching the Korean language for the first time in Europe. In 1900, the Oriental Faculty with a Department of Korean Literature was created in

Vladivostok. All this paved the way for a new stage in the formation of genuine scientific knowledge about Korea in Russia.

II. Russian Korean Studies at the Beginning of the Twentieth Century

The beginning of the twentieth century can be considered the beginning of a new stage in the history of Russian Korean studies. The formation of scientific Korean studies begins. In 1900, a three-volume "Description of Korea" was published, which summarized the numerous works of Russian and European authors that had been published before.

This work contained separate chapters devoted to the history, geography, economy, ethnography, religion, language, literature, and science of Korea. This publication has not lost its significance to the present day. It quite fully and comprehensively reveals the picture of the state of Korean society from ancient times to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he publication of this book was a major event in world Korean studies. There were no similar works in the West at that time.

The publication of numerous articles, books, and reference books on Korea continued during the Russo-Japanese War of 1904-1905. The most famous work of that time was Suvirov's book "Korea. The Country and Its Recent History." Despite the title of the book, the author examines not only the events on the eve of and during the Russo-Japanese War, but also describes in great detail the geography, religion, agriculture, social relations, everyday life, and national character of Koreans.

In presenting historical events, the author focuses on Korean-Chinese relations and China's desire to dominate Korea. The reader also learns that "the Koreans are good-natured and calm. A person who finds himself in a difficult situation can count on help not only from his relatives, but also from his neighbors... Koreans treat their children with great love... the childless seek to adopt other people's children." One of the sections of the

book is devoted to the status of women in Korea, their rights and responsibilities. The author talks about the humiliation of women in Korean society.

After the end of the Russo-Japanese War, Korean studies in Russia were enriched by the first major study of the spiritual world of Korean society. This was the work of P. Rossov "National Self-Consciousness of Koreans" (1906). P. Rossov considered the struggle for the independence of Korea, against the Japanese invasion of the country, to be the most important stimulus for the growth of national consciousness. His book shows the patriotic activities of various educational societies.

The transformation of Korea into a Japanese colony in 1910 could not but affect the content of Russian Korean studies of that time. But this did not delay its development, because the interest of the Russian public in the neighboring country, forcibly included in the Japanese Empire, did not weaken. Moreover, it can be considered that a certain qualitative growth of Russian Korean studies was outlined. Scholars who graduated from the Oriental Department of St. Petersburg University and the Oriental Institute in Vladivostok came to it. These were specialists who spoke Japanese, Chinese and Korean.

A speci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Russian Korean studies in that period was played by Nikolai Vasilyevich Kyuner, a major historian, geographer, ethnographer, and specialist in the countries of the Far East. He knew many languages, including Korean.

In 1913, Kyuner published the "Statistical-Geographical and Economic Essay on Korea". The book covers in detail such issues as the geographical position of Korea and its borders, the structure of the coast with an indication of the open ports and their commercial importance, the relief of the surface, rivers, climate, flora and fauna, the number, density and growth of the population, etc. The author paid much attention to Japan's policy in Korea after the annexation. "The Japanese believed," he wrote, "that the cultural revival of the Korean people would come when

they "irrevocably merged with the Japanese."

In 1914, N. V. Kyuner published another work entitled "Russia's Relations with the Far East During the Reign of the House of Romanov." The book described in detail the process of establishing relations between Russia and Korea. "The Russo-Korean War," he claimed, "liquidated the Korean question, giving Korea over to the complete power of Japan." N. V. Kyuner's works were the last significant studies by Russian authors on Korea before 1917.

III. Soviet Korean Studies: The Initial Stage

After the October Revolution, fundamental changes began to occur in all life in Russia, including in Oriental studies. Marxism-Leninism began to dominate all social sciences. This doctrine viewed the East from the point of view of formation theory, in which class struggle was proclaimed the driving force in the transition from capitalism to communism. This gave rise to the conviction that Soviet Russia should help the proletariat of the Eastern countries to overthrow the power of the bourgeoisie, to spread revolutionary ideas among the Eastern peoples. There was a slogan "Revolutionize the East". Soviet oriental studies were created to solve political problems, and they began to be directed by politicians, not scientists. Classical oriental studies turned out to be unnecessary in this situation.

In 1921, the Communist University of the Toilers of the East was opened for this purpose. It began to train personnel for the communist and national liberation movements in the countries of Asia and Africa. Koreans also studied there. The main focus in the curriculum was on communist ideology, the study of the works of Marx, Engels, and Lenin.

The authors of the first books and articles about Korea in Soviet times were workers of the Communist International,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at united the communist parties of various countries (founded on the

initiative of Lenin in 1919), the Red International of Trade Unions (Profintern, created in 1921), and figures in the Korean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They paid the greatest attention to propaganda of the national liberation struggle, the Japanese regime in Korea, the forms and methods of colonial exploitation, the struggle of the working class, peasantry, and youth for national and social liberation.

There were many publications on the 1919 about First March anti-Japanese uprising of. All such works characterized it as a major milestone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people's struggle against colonialism.

All authors exaggerated the role of the Korean proletariat in the liberation movement, denied the participation of the national bourgeoisie in the struggle for independence after the defeat of the 1919 uprising.

From the second half of the 1920s and mainly in the 1930s, the works of Soviet Korean scholars were already distinguished by a greater depth of analysis, based on data from Korean, Japanese and Western European sources. Soviet Korean scholars collected a great deal of factual material on the situation of the working class, the forms and methods of exploitation by the colonial authorities, and the youth movement.

Despite the predominantly propaganda focus of Soviet Korean studies in the 1920s–30s, some steps were made towards the scientific research of Korea's historical past.

The most detailed study of that time was the "Historical Review" in N. Kim's book "Korea under the Yoke of Japanese Imperialism" (1926). He began his with the legend of the origin of Korean state, described the state structure and structure of society in the Middle Ages, and talked about the cultural and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Kim particularly focused on the wars for independence that the Korean people had to wage against the Mongol khans, Japanese samurai, and Manchu conquerors. At the same time, he touched upon the history of religion and its importance in the socio-political life of Korea. Nevertheless, Kim's book reflected the general weaknesses of Soviet historical science of that time: schematism,

ideological predetermination, straightforwardness of judgments, etc.

In concluding the review of Soviet Korean studies of the 1920s–30s, it is necessary to note that at that time the main independent directions had not yet emerged. It developed as general country study with a political and ideological bias.

IV. Korean Studies after World War II

After Korea was liberated from the Japanese colonial yoke in August 1945, it became the object of intensive study in the world, including in the Soviet Union. Several stages can be conditionally distinguished along this path.

The first one lasted from 1945 to the mid-1950s. It can be called the stage of knowledge accumulation. Those who were destined to become the founders of modern Russian Korean studies came to science and took their first steps. These were Mikhail Nikolaevich Pak, Galina Davydovna Tyagay, Georgy Fedorovich Kim. In 1947–1948, the first dissertations on the history of Korea were defended. Even then, major scientific works on Korea began to appear. Here it is worth highlighting the monographs of E. A. Pigulevskaya "The Korean People in the Struggle for Independence and Democracy" (1952) and G. D. Tyagay "The Peasant Uprising in Korea. 1893-1895" (1953).

The second stage - from the mid-1950s to the late 1980s - can be considered the stage of maturity of Soviet Korean studies. Dozens of young specialists who received professional training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graduate school came to science. Many scientists defended their candidate and doctoral theses.

Korean studies itself was divided into a number of independent scientific fields: history, economics, politics, culture, literature, language.

Here it is worth noting the works of Mikhail Vasilyevich Vorobyov "Ancient Korea: Historical and Archaeological Essay" (1961). Vadim

Pavlovich Pak "The Enlightenment Movement and the Education System in Korea in the Second Half of the 19th - Early 20th Century" (1982). Galina Davydovna Tyagay "Formation of the ideology of the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in Korea (1983). As well as works on historical topics by R. Sh. Dzharylgasinova, S.V. Volkov, Yu. V. Vanin, Yu. V. Ionova, V. I. Shipaev.

At first (until the early 1970s), works on North Korea predominated quantitatively. The Korean War significantly increased attention and interest in Korea in the USSR. In their assessments, all authors strictly followed the official position: the war was started by South Korea with an attack on the DPRK on June 25, 1950;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committed aggression against the DPRK under the flag of the UN; the DPRK is waging a just war of liberation, supported by the Soviet Union and all progressive humanity. The 1953 Armistice Agreement was interpreted as a victory for the DPRK, demonstrating the advantages of the socialist system. Among the works written according to this scheme, the largest was the book by F. I. Shabshina "Essays on the Modern History of Korea (1945-1953) " (1958). The history of the DPRK in the first decade after liberation is presented in the book by G. F. Kim "The Korean People's Struggle for Peace, National Unity and Democracy" (1957).

After the 20th Congress of the CPSU (1956), there was a noticeable "cooling" of Soviet-North Korean relations. The "Juche" ideology and policy, to which the leadership of the DPRK had been increasingly moving since the late 1950s, did not receive support in the USSR. It became impossible to report on the policy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in an exclusively positive spirit, as was customary before, as well as to express any criticism.

In this situation, many Korean scholars turned their attention to the South.

This can be explained by a number of reasons. On the one hand, the Republic of Korea attracted the increased interest of scientists with its

rapid economic progress, dramatic events on the path to transition from authoritarianism to democracy, and the complex process of modernizing society. On the other hand, after the 1960s, the DPRK stopped publishing data on the main parameters of its development, and the literature and press coming from there were of a purely propagandistic nature. All this, naturally, did not encourage serious scientific work on North Korean issues.

One important circumstance should be pointed here. The USSR did not recognize the Republic of Korea. In scientific works, it was impossible to call it an independent state, use its official name, positively evaluate any steps taken by the authorities, or show the successes achieved, especially after the South began to overtake the North in many development parameters. South Korea could only be depicted in a critical way. As for the North, only its achievements were presented, any criticism was excluded.

However, real information about the two Koreas was needed for the party and state leadership and Korea-related government agencies. In these conditions, a specific type of scientific activity emerged and reached large proportions – “closed” works (analytical notes, reports and even dissertations). They contained a real picture of what was happening in the South, highlighted the negative aspects of the North’s development, and critically examined the USSR’s policy towards both Koreas.

Despite all the limitations and difficulties, the second stage turned out to be very fruitful in the development of Korean studies. Dozens of books and hundreds of articles were published on all periods of Korean history, on current issues of the North and South, on Korean culture, literature and language. They were mainly written by scholars of the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These are Yuri Vasilyevich Vanin, Viktor Ivanovich Shipayev, Valentin Konstantinovich Pak, Georgy Fedorovich Kim, Roza Shatoyevna Dzharylgasinoва and others.

The extensive research work carried out by Korean scholars of various

fields allowed the creation of a fundamental work in 1974, "History of Korea (from Ancient Times to the Present Day) in Two Volumes." The scale and content of this publication were unique for its time.

A radical turn in the USSR's the Korean policy began in the mid-1980s in connection with the proclamation of "new political thinking" by M. S. Gorbachev. Soviet Korean studies experts were given the opportunity to openly express their views and prove the need for multifaceted cooper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At the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of the Academy of Sciences, a group of orientalists headed by G. F. Kim insisted on accelerating the process of political normalization, expressing their point of view at meetings a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documents addressed to the country's leadership, and in the press. In September 1990, the USSR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Republic of Korea.

V. Modern Russian Korean Studies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in 1991, the new Russian authorities openly took a course of friendship and cooper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distancing" from the DPRK. Political contacts with the North almost ceased, while they steadily expanded with the South. Scientific ties in the field of Korean studies between Russia and the Republic of Korea developed very intensively. There was a wide exchange of visits of scientists, joint scientific conferences were organized. With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Korea Foundation, a number of works by Russian and Korean scientists were published, and scientific missions were organized.

In 2000, a new interest in the Korean War emerged, when the 50th anniversary of its beginning was celebrated. The most informative and interesting of the publications was the book by A. V. Torkunov "The Mysterious War: The Korean Conflict of 1950-1953" (2000). It is almost entirely based on previously unknown documents from the Archives of the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author proceeds from the fact that both Korean states were preparing for the war, and the DPRK started it with the support of the Soviet Union and China.

In modern Korean studies, it is worth highlighting the collective monographs "Modern Korea: Metamorphoses of Turbulent Years (2008-2020)" (2021), "History of Korea (New Reading)" (2003), "The Korean Peninsula: Metamorphoses of Post-War History" (2008), etc. Taken together, these works are the first comprehensive study in Russian and foreign Korean studies of the entire spectrum of the most complex internal problems of the two Korean states, their socio-political structure, foreign policy doctrines, inter-Korean relations, as well as the influence of external forces on the development of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orthy of attention and study are the monograph by K.V. Asmolov "Korean Political Culture: Traditions and Transformation" (2017) and his joint work with L.V. Zakharova "Modern North Korea: the first decade of the Kim Jong-un era (2012–2021)" (2022).

Ever since the time of "perestroika" in the USSR, when massive criticism of the Juche regime began in Korean studies, some Korean scholars of the Soviet school (in particular, Yu. V. Vanin) advocated a balanced approach to the two Korean states that would not harm Russia's relations with either of them.

Judging by the recent trends toward establishing closer political and military ties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this scientific discourse is once again becoming relevant. But one can hardly expect any fundamental works on the modern history, economy, and culture of the DPRK, since there is still no access to reliable North Korean sources for this. Information has to be collected bit by bit from external, far from complete sources.

For example, this is what A. N. Lankov did in his book. "The DPRK Yesterday and Today. The Unofficial History of North Korea" (2005). The book is based on personal impressions from his stay in the DPRK, some

archival materials, and interviews with political emigrants from North Korea.

Most likely, the increased interest in the new ally will be limited to propaganda materials and new works devoted to the role of the Soviet Army in the liberation of Korea and the creation of North Korean statehood.

As for academic Korean studies, it is unlikely that there will be any changes. It has deep traditions and scientific schools that unite talented scientists. The study of Korea is very popular among students, and in the near future they will form a new generation of Korean studies, combining classical approaches with the innovations of the global information society.

We have provided the names of some scientists and their works. This list is far from complete, but it also testifies to the scope of modern Korean studies in Russia and the grate place it occupies among other social sciences. With the active participation of named and unnamed scientists, an extensive body of scientific literature on various branches of knowledge about Korea has been created over several decades.

Research centers of Korean studies

-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s is the oldest center of Russian Korean studies. It accounts for the majority of works on Korea published in the Soviet Union and Russia. Department of Korea and Mongolia.
- Institute of Far Eastern Studies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s. Center for Korean Studies. It deals with contemporary socio-political problems of the North and South.
- Institute of China and Modern Asia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s
- Institute of World Econom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s

Universities

- Institute of Asian and African Countries of Moscow State University
-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Studies of Moscow State University
- Center for Korean Language and Culture at the Oriental Faculty of St. Petersburg State University
- Center for Korean Studies of the Higher College of Korean Studies of the Far Eastern Federal University (Vladivostok)
- Department of Oriental Studies and Center for Korean Studies of the Novosibirsk State University
- Center for Korean Studies at Kazan Federal University
- Moscow Sta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University)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Literature

1. Ванин Ю. В. “Российское корееведение в прошлом и настоящем”,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1999, №3.
2. Ванин Ю. В.(отв. ред.) *Корееведение в России: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Москва, 2004.
3. Концевич Л. Р. “Российское корееведение на современном этапе”, *Российское корееведение. Альманах*, Вып. 3, 2003.
4. Тягай Г. Д. “Советское корееведение в 20-30-е годы: Новый подъем корееведения”, *СССР и Корея*, Москва, 1988.

Abstract**Korean Studies in Russia: A Century and a Half-long Journey**

Smertin, Y. G.
(Kuban State University)

The study of Korea in Russia has a long history. The article attempts to trace the long process of origin,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Korean studies in Russia in the context of political and social processes taking place in the country and the world. The author focuses on the works of Russian scholars on the history, social status,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of Korea as a whole, and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ince the second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The main stages of development of Russian Korean studies are identified and briefly characterized. In each stage, the author identifies the most significant works that determined the level of development of Korean studies and lists the names of prominent figures of Russian, Soviet and post-Soviet Korean studies. The author shows the development of science as a process of expanding and deepening the understanding of the country under study. Special attention is paid to its current state: the main directions of research and their results. The main conclusion is that academic Korean studies has developed deep traditions and scientific schools that unite outstanding scholars, whose efforts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and culture of the Korean people in Russia.

Key words : Korean Studies, Korea, Republic of Kore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istory, Politics

러시아어 완료상의 메타의미에 대한 연구

김 나 영*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러시아어의 완료형(Pf) 동사의 메타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 연구들이 주로 세부적 의미 분류에 집중한 것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서 출발한다. 연구는 Pf가 행위의 종결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나타낸다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이 과정의 의미가 실질적으로는 동반되는 시간부사(Adv_{Time})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와 관련하여 셀랴킨의 주장처럼, Pf가 시작과 중간 과정을 거쳐 특정 경계에 도달한다는 관점 또한 검토하였으나, 이러한 해석이 Pf의 메타 의미를 전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Pf의 메타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 불완료상(Impf)과의 변별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Pf가 배경적 전제 속에서 특정 행위가 일어났음을 나타낸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Pf의 메타 의미를 '행위 적시'의 의미로 재정의한 것은 본 연구의 의의라 할 것이다. 이로써, 기존의 구체적 사실에 대한 메타 의미가 주는 모호함을 극복하고, Pf가 행위의 실현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러시아어의 Pf 동사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메타 의미를 제안함으로써, 러시아어 동사 시제 및 상의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는 기존의 연구 방향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를 통해, Pf의 의미와 사용에 대한 보다 깊은 통찰을 제공하며, 향후 러시아어 동사 상에 대한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동사 상, 완료상, 메타의미, 행위, 적시

* 경북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강사, anastasha1368@gmail.com

I. 서론

동사 상(Verb aspect)은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의 양상을 나타낸다. 영어에서는 진행형, 완료형으로 동사의 상이 표현되며, 한국어에서는 동사가 관형절로 활용됨으로써 동사의 상이 표현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같은 상의 발달은 문법상의 유형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즉, 문법상은 통사적으로 상의 개념이 표현되는 것을 일컫는데, 이는 파생 혹은 굴절을 통해 표현된다¹⁾.

한편, 러시아어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어휘 차원에서 상의 특징이 발현된다. 러시아어 동사는 완료상(Perfective aspect)과 불완료상(Imperfective aspect)으로 동사 상의 대립이 구분됨으로써 특정 어휘가 원천적으로 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어휘 자체에서 상의 개념이 발현된다는 것은 상의 개념이 그만큼 뚜렷한 것임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형태론적, 혹은 통사적 활용 이전에 상의 개념이 이미 특정 어휘로서 정립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러시아어 동사 상에 대한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가 있어 왔다. 러시아어에서 동사 상의 문제는 문법에서 차지하는 영역이 크며, 고찰할 여지도 상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동사의 상은 어휘 차원에서 상이 구분된다 할지라도 그 경계가 뚜렷하다거나, 일률적으로 상의 구분을 단정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즉, 고정적으로 특정 의미 영역을 Impf 혹은 Pf²⁾로 단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이기웅³⁾에서도 동사 상의 문제가 러시아어 문법의 기본적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형태, 기능 등의 다양성으로 체계화가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특징을 두고 마슬로프⁴⁾는 상의 의미에 따른 뉘앙스(оттенки грамматического значения)로 언급하기도 하였다. 러시아어 동사 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한 수많은 연구가 있었

1) 김천학, 「동사와 상에 관한 유형론적 연구 한국어의 완망상과 비완망상에 대하여」, 『한국어학』 57(2012), 180쪽.

2) Impf, Pf는 상에 대한 설명에서, V_{Pf}, V_{Impf}는 구체적으로 동사를 지칭할 때 쓰였음을 밝혀둔다.

3) 이기웅, 「러시아어 동사의 상: 문법범주화의 도상성과 역동성 문법 범주화의 도상성과 역동성」,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23(2006), 199쪽.

4) Маслов Ю.С. “Вид и лекс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в современном русском литературном языке”, *Известия Академии наук СССР* (1948), VII-4 с. 303-316.

는데, 라수도바⁵⁾는 현대 러시아어에서 동사 상의 활용에 대해서, 파두체바⁶⁾는 어휘에 따른 동사 상의 구분에서 상과 결부된 문법소와의 결합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f가 나타내는 메타의미⁷⁾에 주목하고자 한다⁸⁾. 일반적으로, 사실에 대한 기술은 Impf의 영역이라고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점은 마슬로프(1948)가 Impf를 일반적 사실에 관한 의미(общефакт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로 지정한 영향이 크다 할 것이다⁹⁾.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왔고, 일반적 사실에 대한 영역을 Impf가 표현할 수 있는 포괄 범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 접근이 필요하다. 일반 사실이라는 점은 상당히 그 의미가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해석될 여지가 크다. Pf가 나타내는 의미가 일반 사실이 아니라고도 보기 어렵다. 일반 사실적 의미도 ‘과정으로서의 행위’ 혹은 ‘현상으로서의 행위’ 등으로 새로운 개념 설정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해당 연구에서는 Impf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 주제인 Pf 메타의미를 뒷받침하고, 설명하기 위한 예로서 쓰일 것이다.

-
- 5) Рассудова О. П. *Употребление видов глагола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Москва: МГУ, 1968).
 - 6) Падучева Е. В. “Вид и лекс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глагола (от лексического значения глагола к его аспектуальной характеристике)”, *Russian Linguistics* (1990), 14-1, с. 1-18.
 - 7)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주로 활용된 상의 의미(meaning) 대신, 메타의미라는 용어가 사용될 것이다. 메타의미는 의미보다 상위의 범주이자, 포괄적 개념을 지칭한다.
 - 8) 일반적으로, 사실에 대한 기술은 Impf의 영역이라고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점은 마슬로프(1948)가 Impf를 일반적 사실에 관한 의미(общефакт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로 지정한 영향이 크다 할 것이다(Падучева 2016:32).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왔고, 일반적 사실에 대한 영역을 Impf가 표현할 수 있는 포괄 범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 접근이 필요하다. 일반 사실이라는 점은 상당히 그 의미가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해석될 여지가 크다. Pf가 나타내는 의미가 일반 사실이 아니라고도 보기 어렵다. 일반 사실적 의미도 ‘과정으로서의 행위’ 혹은 ‘현상으로서의 행위’ 등으로 새로운 개념 설정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해당 연구에서는 Impf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 주제인 Pf 메타의미를 뒷받침하고, 설명하기 위한 예로서 쓰일 것이다.
 - 9) Падучева, Е. В. “Основные понятия и положения аспектуальной концепции Ю. С. Маслова.” *Вестник РГГУ. Серия: Литературоведение. Языкознание. Культурология*, (2016), 9-18, с.32.

[표 1. 루즈키나 외에 의한 Pf 의미]¹⁰⁾¹¹⁾

행위의 종결 (결과가 중요하며, 결과에 대한 평가가 자주 수반됨)	Вчера вечером я написал <u>большое интересное</u> сочинение на тему "Русский язык в моей жизни". 어제저녁 나는 ‘내 인생의 러시아어’라는 제목의 방대한 흥미로운 에세이를 썼다.
행위의 종결+행위의 지속	Я сделал домашнее задание <u>за три часа</u> . 나는 3시간에 걸쳐 숙제를 했다.
구체적·일회성 행위	Я посмотрел новый фильм <u>в воскресенье</u> . 나는 일요일에 새 영화를 봤다.
갑작스러운 행위의 시작 (빈번히 вдруг, неожиданно, сразу 등의 어휘와 함께 쓰이기도 함)	Ребёнок заплакал , когда мама ушла. 아이는 엄마가 자리를 뜨자 울기 시작했다.
연쇄적 행위	Сначала я приготовил ужин, потом послушал музыку. 나는 우선 저녁을 준비했고, 이후 음악을 들었다.

[표 1]에서 보듯이, Pf는 행위의 종결, 행위의 종결+행위의 지속, 구체적·일회성 행위, 갑작스러운 행위의 시작, 연쇄적 행위로 의미 영역을 구분해 볼 수 있다. 즉, Pf는 단순히 명칭(완료)에서 고려되는 행위의 종결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행위가 종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해당 행위가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 경우, 특정 행위가 종결되었다는 것을 동시에 표현해야 하므로 단순히 행위가 지속되었다는 ACC_{Time} 표현이 아닌 행위의 지속이 특정 시간으로 한정되었음을 명시하는 за_{prep}과 함께 활용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다음으로 구체적·일회성 행위, 갑작스러운 행위의 시작, 연쇄적 행위에 도

10) Лучкина Н.В., Саямова В.И., Мирзоева С.А., Проценко И.Ю., Меликова О.С., Дьяченко С.М. *Виды глагола: учебное пособие и*, (Ростов н/Д: Изд-во РостГМУ, 2017).

11) 예문의 동사 강조 표시는 필자에 의한 것임.

Pf가 쓰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V_{Pf}가 구체적·일회성 행위를 나타낼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구체적·일회성이었다는 점을 특징하는 표현과 함께 쓰일 수 있다. 예컨대, [표 1]의 구체적·일회성 행위의 예문에서처럼 ‘일요일에(в воскресенье)’와 같이 시간이 특정된 표현과 함께 쓰임으로써 해당 행위를 구체화하고, 일회적이었음을 나타낸다.

또한 Pf는 행위가 갑작스럽게 시작되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행위의 시작을 명시하는 Prep(за-, по- 등)이 V_{Pf}를 구성하기도 하며, 루츠키나가 제시한 바와 같이 V_{Pf}과 함께 문장에서 вдруг, неожиданно, сразу와 같은 Adv가 활용되기도 한다. 한편, 연쇄적 행위의 경우에는 V_{Pf}이 연속적으로 활용됨으로써, 해당 행위가 각기 발생했음을 명시한다¹²⁾.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Pf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Pf를 설명할 수 있는 포괄적 상위 의미로서의 메타의미를 규명할 것이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될 Pf의 메타의미를 밝히기 위해 추가적으로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새로운 Pf의 의미를 메타의미 차원에서 분석할 것이다. 또한, Pf의 메타의미의 분석적 접근을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더할 것이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Pf의 메타의미를 명확히 보일 것이다. 끝으로 4장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 지을 것이다.

II. 러시아어 Pf 의미에 따른 기존 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

II.1. 행위의 진행 및 종결 의미에 대한 비판

셀라킨¹³⁾에 따르면, 러시아어 Pf는 시작, 중간 단계를 거쳐 특정 경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전체적으로 명시하는 행위를 나타낸다. 여기서 경계라

12) 그러나 연쇄적 행위를 Pf의 의미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i) Он смотрит на меня, морщится сначала, потом улыбается.

(Национальный корпус русского языка, URL: <https://ruscorpora.ru>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1. 08. 2023.))

그는 나를 보고는 이내 인상을 찌푸리다가 미소를 지었다.

예문 (i)에서는 연쇄적 행위로 해석되지만, 모두 Impf가 활용되었다.

13) Шелякин М. А. Категория вида и способы действия русского глагола Теоретические основы. (Таллин: Валгус, 1983), 6.

함은 목표치에 도달했다거나, 종착 지점을 의미한다.

(1) Вчера вечером я прочитал интересную статью¹⁴.
어제저녁 나는 흥미로운 기사를 읽었다.

예문 (1)에서 활용된 $\text{прочитал}_{\text{pf}}$ 는 특정 시점(вчера вечером) 결과적 행위가 시작되었고, 일정 시간 지속되었으며, 결과에 이르러 종료되었다는 점을 함축한다¹⁵. 이러한 점은 앞서 서론에서 살펴본 루츠키나의 분류에서 구체적·일회성 행위와 결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루츠키나가 주장한 구체적·일회성 행위에서와 같이 특정 시점이 명시되어 있으면서(вчера вечером), 당시 발생한 행위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특정 시점이 명시되었다고 하여 예문 (1)에서의 $\text{прочитал}_{\text{pf}}$ 를 구체적·일회성 행위로만 간주하기는 어렵다. 셀라킨이 주장했듯이, 해당 V_{pf} 는 특정 시점에 결과적 행위가 시작되고 지속되었으며, 종료되었다는 점을 표현한다. 따라서 이 예문에서의 V_{pf} 는 루츠키나의 주장에서처럼 단순히 구체적·일회성 행위로만 볼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해당 예문에서의 $\text{прочитал}_{\text{pf}}$ 를 루츠키나가 제시한 행위의 종결+행위의 지속으로 단정할 수 있는가. 루츠키나의 예문에서도 ‘일요일에(в воскресенье)’라는 Adv_{Time} 가 제시됨으로써, 예문 (1)에서도 어제저녁(вчера вечером)이라는 특정 시점을 명시하는 Adv_{Time} 로써 구체적·일회성의 행위는 보다 명료해진다. 즉, 예문 (1)은 구체적·일회성으로도, 행위의 종결+행위의 지속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구체적·일회성에서 뿐만 아니라, 행위의 종결+행위의 지속 또한 그러한 특징을 표현하는 Adv 와 함께 쓰이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예에서는 행위가 특정 시간 안에 행해졌다는 것을 명시하는 Adv_{Time} 과 함께 활용된다. 시간의 한정을 나타내는 за_{prep} 과 특정 시간이 쓰이는 예를 [표 1]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한편, 그가 제시한 за + 특정 시간의 표현 외에도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쓰일 수 있는 한정적 시간 표현은 다음을 보라.

(2) В рамках пятилетнего контракта объем транзита в 2020 году

14) Там же 6.

15) Там же 6.

составит 65 млрд, в период 2021 – 2024 годов — по 40 млрд куб. м¹⁶⁾.

5년 계약에 따라 2020년 수송량은 650억m³이며, 2021부터 2024년 간에는 400억m³에 이른다.

상기 예문 (2)에서는 в период + 특정 시간의 표현과 함께 Pf가 쓰여 행위가 특정 기간에 이행되고 완료됨을 의미한다. 즉, 행위의 연속성은 행위가 특정 시점에 행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Adv_{Time}로 그 의미가 명료해진다. 특정 시점 동안을 의미하는 в период과 특정 시점 2021부터 2024년이라는 기간이 명시됨으로써 특정 기간 동안 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연속성을 나타내는 Adv_{Time}가 활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행위의 연속성이 표현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다. 예문 (1)에서의 V_{Pf}는 연속성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V_{Pf}의 활용만으로도 행위의 연속성을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기간을 명시하는 Adv_{Time}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행위의 연속성을 나타낸다고만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V_{Pf} 자체로 Pf의 연속성의 의미를 나타낸다면, 이는 Impf가 나타내는 연속성과 어떠한 변별성이 있는지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3) Сборник стихов Дементьева как-то вечером читал¹⁷⁾.
어느 저녁에 데멘티예프의 시집을 읽었다.

예문 (3)을 보라. 예문에서는 читал_{Impf}를 활용되었다. 예문에서의 читал_{Impf}의 의미는 ‘읽었다’는 행위가 진행 중이며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임을 표현한다. 앞서 살펴본 прочитал_{Pf}가 특정 행위가 시작되고, 행해져서 종결되었다는 프로세스를 명시하는 것이라면, 기존의 연구에서 주장된 대로¹⁸⁾ 일반 사실적 행위 혹은 V_{Impf}는 행위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 부각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진행 및 종결 의미를 러시아어 Pf의 메타의미로 보기에에는 이로써 설명되지 않는 Pf의 예를 살펴볼 수 있었다¹⁹⁾. 따라서 2.2.에서는 구체적·일

16) Коммерсант, URL: <https://www.kommersant.ru>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1. 08. 2023.).

17) Национальный корпус русского языка, URL: <https://ruscorpora.ru>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1. 08. 2023.).

18) 각주 8을 보라.

회성 의미를 러시아어 Pf 메타의미로 설정할 수 있는지 고찰할 것이다.

II.2. 구체적·일회성 의미에 대한 비판

라수도바에 따르면, 과거에 발생한 단일 행위(единичное действие)적 사실을 전달할 때, Impf와 Pf는 모두 널리 활용되지만, 이 가운데 Pf는 특정 상황에서의 행위의 발생을 나타낸다²⁰⁾.

(4) В связи с национальным праздником афганского народа в Доме Дружбы **собрались**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бщественности²¹⁾.
아프가니스탄 국경일을 기념하여 민중 대표들은 우정의 집에 모였다.

예문 (4)의 맥락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전반부 ‘В связи с национальным праздником афганского народа’는 상황의 묘사라 할 수 있으며, 후반부 ‘в Доме Дружбы собрались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бщественности’는 해당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을 명시한다²²⁾. 즉, 배경 전제가 되는 상황에서의 행위의 발생을 표현할 때에는 Pf가 활용된다. 이는 Impf와는 어떠한 변별성이 있는가. 다음의 예문을 보라.

(5)a. Мы никакой телеграммы не **получали**²³⁾.

우리는 어떤 전보도 받지 않았다.

b. В начале 1943 года Шатров **получил** от Виктора письмо²⁴⁾.

1943년, 샤토로프는 빅토르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예문 (5)a는 получили_{Impf}이 쓰였고, 예문 (5)b는 получил_{Pf}이 활용되었다. 예문 (5)a에서는 получили_{Impf}이 활용됨으로써 받았다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19) 구체적·일회성 의미, 갑작스러운 행위의 시작 등은 행위의 진행 및 종결 의미로 설명되지 않는다.

20) Рассудова О. П. Употребление видов глагола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Москва: МГУ, 1968), 17-18.

21) Там же 18.

22) Там же 18.

23) Там же 18.

24) Там же 18.

않았다는 점을 명시한다. 한편, 예문 (5)b에서는 $\text{получил}_{\text{Pf}}$ 이 쓰임으로써 특정 행위가 발생했다는 점을 보여준다²⁵⁾. 라수도바는 이러한 점을 언급하면서, 일반 사실을 표현하는 Impf 와 구체적 사실 의미의 Pf 의 의미가 상당히 유사하다고 주장한다²⁶⁾. 그러나 라수도바가 제시한 일반 사실의 Impf 와 구체적 사실의 Pf 의 쓰임은 상당히 변별적이다. 다음의 예문을 보라.

(5)b'. ?В начале 1943 года Шатров **получал** от Виктора письмо.
1943년, 샤토로프는 빅토르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예문 (5)b'는 앞서 살펴본 예문 (5)b에서의 $V_{\text{Pf}}(\text{получил})$ 을 $V_{\text{Impf}}(\text{получал})$ 로 치환한 것이다. 예문 (5)b에서의 $\text{получил}_{\text{Pf}}$ 이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예문 (5)b'에서의 $\text{получали}_{\text{Impf}}$ 는 행위 자체만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6)a. Елена **встретилась** с Юрием и узнала подробности случившегося²⁷⁾.
엘레나는 유리를 만났고, 일의 자초지종에 대해 알게 되었다.
a'. ?Елена **встречалась** с Юрием и знала подробности случившегося.

예문 (6)a를 보면, 엘레나가 유리를 만났다는 행위와 일의 자초지종을 알게 되었다는 점이 각각 $\text{встретилась}_{\text{Pf}}$ 와 $\text{узнала}_{\text{Pf}}$ 로 표현되었다. V_{Pf} 를 통해 특정 행위가 발생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반면, 이를 Impf 로 치환한 예가 (6)a'이다. 예문 (6)a의 맥락을 살펴볼 때, V_{Pf} 를 V_{Impf} 로 치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예문 (6)a'의 의미는 엘레나가 유리를 지속적으로 만났으며, 그때마다 일의 자초지종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만약 맥락적으로 이러한 의미를 표현하고자 하는 발화 의도가 있다면, 예문 (6)'와 같은 발화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리를 만났다는 행위, 그리고 당시, 사건의 내용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Pf 가 적합하다. 따라서 Pf 는 해당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

25) Там же 18.

26) Там же 19.

27) Лента. Ру. URL: <https://lenta.ru>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1. 08. 2023.)

러내 주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Pf의 예는 일회성 행위의 의미로도 간주되지만, Pf의 일회성 행위로서의 의미는 Pf의 메타의미로 설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앞서 살펴본 다수의 Pf 예문에서, Pf가 일회적 행위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Pf가 일회성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면 일회성을 나타내는 Adv 등과는 겹말이 되어 비문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나, 일회성을 나타내는 합성어와 V_{Pf}가 함께 쓰이는 예를 찾아볼 수 있다²⁸⁾. 다시 말해, 일회성의 행위를 나타내기는 하나, 그것이 Pf의 메타의미로 설정되기에, 그 보편적 의미가 일회성에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보다는 행위가 발생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효과가 더 크다고 할 것이다.

한편, 라수도바는 이를 구체적 사실의 Pf라 지칭하였는데, 이와 같이 정의할 경우 Pf의 해당 기능을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 구체적 사실의 Pf라는 메타의미는 상당히 포괄적이라, Pf의 특징을 설명하기에는 모호하다. 구체적 사실로서 메타의미를 정의할 경우, 이것이 Impf가 나타낼 수 있는 표현 범위와 접점이 부재하다고도 보기 어렵다²⁹⁾.

(7)а. Кроме того, в ходе последнего саммита стран СНГ российский лидер в течение часа **читал** своим коллегам лекцию о Мюнхенском сговоре, разделе Чехословакии и роли Польши в начале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³⁰⁾.

또한, 최근 CIS 정상 회담에서 러시아 대통령은 2차 대전 초의 뮌헨 협정 및 체코슬로바키아의 분할 및 폴란드의 역할에 대해 한 시간 동안 낭독했다.

а'. Кроме того, в ходе последнего саммита стран СНГ

28) (i) Только один раз **встретились** в этой возбужденной сутолоке взгляды Мельникова и Наташи.

Национальный корпус русского языка, URL: <https://ruscorpora.ru>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1. 08. 2023.)

이 흥분된 혼란 속, 멜니코프와 나타샤의 시선은 한번 마주쳤을 뿐이었다.

29) 이 점은 앞서 살펴본, 라수도바가 일반 사실을 표현하는 Impf와 구체적 사실의 의미의 Pf의 의미가 상당히 유사하다고 주장(Рассудова 1968:19)한 점에서도 그러하다. 그러나 Impf, Pf가 별개의 상으로 존재하고 쓰임 또한 상이하다면, 모호하게 혼용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힐 것이 아니라, 각각의 변별적 의미에 대해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30) Лента. Ру. URL: <https://lenta.ru>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1. 08. 2023.)

российский лидер в течение часа **прочитал** своим коллегам лекцию о Мюнхенскомговоре, разделе Чехословакии и роли Польши в начале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예문 (7)a에서는 $\text{читал}_{\text{Impf}}$ 이 활용되어 행위의 연속성을 표현한다. 즉, 예문에서는 정상 회담에서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자들에게 발언을 했다는 점을 표현한다. $\text{читал}_{\text{Impf}}$ 이 활용되어 행위가 발생하여 종결되었다는 의미가 아닌, 행위가 진행되었다는 점이 표현된다. 한편, 예문 (7)a'는 예문 (7)a의 $\text{читал}_{\text{Impf}}$ 를 $\text{прочитал}_{\text{Pf}}$ 로 치환한 것이다. 이처럼 Pf로 치환하였을 때에는 행위의 진행 나타낸다고보다는 행위가 행해졌다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 주는 데 의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³¹⁾. 명확히 드러내 준다는 것은 행위 자체가 발생했고, 행위 발생의 완결성이 뚜렷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한편, 구체성이 Pf의 독립적 자질이라면, Impf에서는 구체성이라는 의미가 상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예문 (7)a의 $\text{читал}_{\text{Impf}}$ 를 구체적 행위가 아니라고 볼 근거는 무엇인가³²⁾. 이는 라수도바의 상 분류에서의 메타의미

31) 흥미로운 점은 러시아어 V에서는 Prep의 다양한 기능을 주목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문 (6)a'에서의 $\text{прочитать}_{\text{Pf}}$ 외에도 $\text{читать}_{\text{Pf}}$ 는 $\text{почитать}_{\text{Pf}}$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물론 전통적인 상의 분류에서는 Impf $\text{читать}_{\text{Pf}}$ 의 상의 작은 $\text{прочитать}_{\text{Pf}}$ 로 간주한다(Кузнецов 1998). 본 연구에서는 Prep에 따른 의미적 변별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32) 이러한 점은 앞서 살펴본 예문을 통해서도 어렵지 않게 뒷받침된다. 예문 (5)a에서의 Impf의 의미를 구체적 사실로 볼 것인가, 혹은 그렇지 않다고 규정할 것인가. 해당 예문의 경우를 Pf의 구체적 사실의 의미와 변별적으로 Impf의 일반 사실적 의미로 구분하려면, 행위가 부정됨으로써 구체적 사실이 아닌 일반 사실로서, 수렴하지 않았다고 설명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행위의 구체성’이라는 정의 자체가 일반 사실과 대립되는 의미로 간주되기 어려워 보인다. 행위 자체로서 구체성을 띤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예문 (5)a에서의 $\text{получали}_{\text{Impf}}$ 는 не_{Neg} 가 동반되어 발생되지 않은 행위를 표현한다. 행위가 발생하지 않아 구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일반 사실적 의미인 Impf를 활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한 전제가 성립하려면, Neg와 Pf의 결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해당 Pf의 의미적 특성을 구체적 사실의 의미로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한편, 예문 (5)a와 같은 Impf의 의미를 일반 사실적 의미로 규정했을 때 개념 정의에서의 모호성이 발생한다는 점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 사실의 의미라는 정의는 상당히 모호하고 피상적이라서 상의 메타의미를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또한, 앞서 살펴본 Pf의 예들이 일반 사실이 아니라고 볼 근거도 희박하다. 따라서 일반 사실의 의미와 구체적 사실이라는 메타의미 정의 모두 Impf와 Pf를 설명할 메타의미로서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

정의에 대한 한계를 다시금 보여준다. 그의 주장은 구체적 행위, 일반 사실적 행위에 대한 메타의미의 모호성으로 인해 각각의 상이 표현하는 의미를 메타의미화하지 못했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는 Pf의 메타의미를 정의하기란 상당히 모호하다.

II.3. Pf 의미의 형식 논리학적 분석

II.3.1. 형식 논리학적 분석 예

앞서 2.2에서 살펴본 Pf의 메타의미가 행위 적시의 의미라는 점은 다음의 형식 논리학적 분석으로도 설명된다. 예문 (6), (7)에 따른 형식 논리학적 분석은 다음과 같다.

[도식 1. 예문 (6), (7)에 따른 형식 논리학적 분석]

a. $\exists t, t'(VPf-1(E, IO, t) \wedge t < t' \wedge VPf-2(E, y, t'))$

Елена встретила с Юрием и узнала подробности случившегося.

b. $\exists x, y, topic1, topic2, topic3, duration(российский лидер(x) \wedge коллеги(y) \wedge \text{Мюнхенском} \text{ сговор}(topic1) \wedge \text{раздел}(topic2) \wedge \text{роль}(topic3) \wedge \text{During}(\text{последний саммит}) \wedge \text{VImpf}(x, y, topic1 \wedge topic2 \wedge topic3, duration) \wedge duration = \text{час})$

Кроме того, в ходе последнего саммита стран СНГ российский лидер в течение часа читал своим коллегам лекцию о Мюнхенском сговоре, разделе Чехословакии и роли Польши в начале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도식 1-a에서는 엘레나(E)가 유리(IO)를 만났고, 이후 사건의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음이($VPf-2(E, y, t')$) 드러난다. 즉, 해당 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발생한 행위에 따라 순차적, 연속적으로 다음 행위가 발생한 것($VPf-1 \rightarrow VPf-2$)임을 명시한다. 따라서 이러한 순차적 행위는 변별적 행위에 따른 그것의 발생에 맞추는, 행위 적시의 Pf의 특징을 뚜렷이 보여준다.

도식 1-b에서는 논항 x, y와 논항 x와 연결한 주제(topic1, topic2, topic3)가 표현되어 있고, x가 y를 향해 해당 주제에 대해 낭독했다는 점이 드러난다. 도식에서도 Impf의 특징이 잘 식별된다. 도식 1-b에서는 명백하게 행위에 대한 지

속성(duration)의 특징이 두드러진다. 여기에서도 전술되었듯이, 기존 연구에서 지적한 Pf의 구체적 사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지속성의 개념에서는 행위가 지속적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특정 사실에 대해 구체성을 표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행위 적시의 메타의미가 지속성과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 적시의 의미가 Pf를 대표할 만한 메타의미라는 주장에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Pf의 메타의미를 설명하는데 있어서의 핵심은 지속성의 반대적 자질을 논하기에 앞서, Pf 자체의 메타성에 대한 접근을 하는 것이 유의미하다.

II.3.2. Pf의 메타의미의 분석적 접근

Pf의 메타의미를 보다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의미를 분석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속성(Dur), 구체성(Conc), 지시성(Ind), 종결(Term)이 바로 그것이다. 다음의 [도식 2에서의 Dur, Conc, Ind, Term에 대한 의미 분석]을 보라.

[도식 2. Dur, Conc, Ind, Term에 대한 의미 분석]

- a. $\forall v(Dur(v) \rightarrow Conc(v))$
- b. $\forall v(Ind(v) \rightarrow Conc(v))$
- c. $\neg(\forall v(Conc(v) \leftrightarrow (Dur(v) \vee Ind(v))))$
- d. $\neg(\forall v(Ind(v) \leftrightarrow \neg Dur(v)))$
- e. $\neg(\forall v(Conc(v) \leftrightarrow \neg Dur(v)))$
- f. $\forall v(Dur(v) \rightarrow Impf(v))$
- g. $\exists v(Dur(v) \wedge Pf(v))$
- h. $\exists v(Pf(v) \wedge Term(v))$
- i. $\forall x(Pf(x) \rightarrow \neg Term(x))$
- j. $\forall v(Impf(v) \rightarrow \neg Term(v))$

상기 [도식 2]에서 볼 수 있듯이, Conc는 Dur에서도 Ind에서도 모두 적용되는 개념이다(a, b). 즉, Conc는 러시아어 상의 개념에서의 변별성을 논할 자질로서 보기 어렵다(c). 한편, 앞서 2.3.1에서 언급되었듯이 Ind나 Conc를 Dur의 상호적 자질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Ind을 Dur와 상반된다거나(d), 혹은 Conc와 Dur가 배타적 자질(e)을 가진다고 설명할 수 없다.

또한 Dur의 자질은 모든 Impf를 설명하지만(f), 모든 Pf의 특징을 설명하지는 못한다(g). 한편, Pf는 Term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지만(h), Term가 Pf의 메타의미가 되기는 어렵다(i). 또한, Term는 Impf의 메타의미라고도 볼 수 없다(j).

한편, Ind 또한 Impf의 자질로 수용될 수 있다면, Ind을 Pf의 메타의미로 규정하는데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Ind은 Impf를 설명하지 못한다. Pf의 메타의미로서의 Ind의 자질은 순차성에서 보다 뚜렷이 드러난다. 즉, 앞서 예문 (6), 도식 1-a에서 알 수 있었듯이, Ind은 동사 개별의 행위를 부각하는 데 있다. V_{Pf-1}, V_{Pf-2}에서는 개별 행위를 적시하는 특징이 보다 뚜렷하다. 따라서 순차성이 부각될 수 있다. 그러므로 Pf에서는 행위의 적시라는 의미를 표현한다는 점이 뚜렷해 보인다³³⁾.

III. 러시아어 Pf의 메타의미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러시아어 Pf의 메타의미와 파생 의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표 2. 러시아어 Pf의 메타의미 및 파생 의미]³⁴⁾³⁵⁾

33) Ind은 현상학적으로 행위의 진행을 묘사하는 것과는 변별적이다. 행위의 진행은 특정 행위를 적시하는 Ind의 자질과는 이질적이다

i) У каждого своя манера читать стихи.

저마다 시를 읽는 방식은 제각각이다.

(URL: <https://ruscorpora.ru>,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1. 08. 2023.)

i)에서 보듯이, Impf로써 보편적이고 포괄적 범주에서의 의미를 나타낸다. 즉, i)에서의 '읽는다'는 현상으로서의 보편적 자질, 행위의 진행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Pf를 중심으로 하므로 Impf에 대한 의미적 자질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다루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예를 통해 Impf는 Ind의 자질을 수용하기에는 어렵다는 점이 드러난다.

34) 예문은 Национальный корпус русского языка URL: <https://ruscorpora.ru>에서 수집하였다(Дата обращения: 01. 08. 2023.).

35) 와 파생 의미의 관계는 'Pf→파생 의미'로서의 충분조건이 아니다. Pf는 행위 적시의 의미를 메타의미로 하여 Adv, Prep 등에 따른 추가적 의미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추가적 의미를 나타내지 않고 Pf의 고유 의미인 행위 적시의 의미만을 표현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i) В 1954 году он получил диплом мехмата МГУ.

Национальный корпус русского языка, URL: <https://ruscorpora.ru>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1. 08.

행위 적시의 의미		
Adv에 따른 파생 의미	행위의 종결	(i) Он сделал за два часа больше, чем вы за целый день. 그는 당신이 하루 종일 한 것보다 두 시간 동안 더 많은 일을 했다. (ii) Он пришел в субботу в белой рубашке. 그는 토요일에 흰 셔츠를 입고 왔다.
		(iii) Когда она ушла, я заплакала . 그녀가 떠나자, 나는 울기 시작했다.
Prep로 인한 파생적 의미	행위의 발생	(iv) Я прочитал интересную статью. 나는 흥미로운 기사를 읽었다.
	행위의 지속	

[표 2]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한 행위의 종결 및 지속, 일회성 행위, 연쇄적 행위, 갑작스러운 행위는 배제되었다. 이는 모두 Pf의 행위 적시 의미라는 메타의미 하에 행위의 종결, 발생, 지속이라는 부가적 의미로 간주되어야 한다. 따라서 루츠키나가 제시한 예문들에 대한 설명도 모두 행위 적시라는 메타의미로 설명된다. 예문 (i)은 행위의 종결 및 지속으로 설명되었던 것이었으나, 행위의 지속이라는 것은 사실상 Adv_{Time}에 따른 의미라 볼 수 있으며, 예문 (ii)는 구체적·일회성 행위로 간주되었으나, 구체적·일회성 행위라는 것 역시 Adv_{Time}의 의미에 기인한 것이다. 예문 (iii)은 갑작스러운 행위를 지칭하였으나, 이는 за_{Prep}의 의미 기능적 성격에 따른 것으로 설명된다³⁶⁾. 예문 (iv) 역시 про_{Prep}로 인해 행위의 지속성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한 여러 Pf의 의미는 사실상 Pf가 가지는 의미가 아니라, Pf가 특정 Adv, Prep 등과 결합하였을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파생적 의미라 보아야 한다. 기존 연

2023.)

36) 도브루시나 외(Добрушина и др. 2001:11-39, 56-59, 105-110, 161-168)에서는 за_{prep}의 의미를 ‘해당 작업을 수행하기 시작한다’, ‘미리 동작을 수행한다’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기술하였다.

구에서 제시한 여러 의미들을 마치 Pf 그 자체가 가지는 의미로 정의한다면, Pf의 다양한 의미를 제시하기 위한 작위적인 결과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Pf가 나타내는 메타의미에 대한 이해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또한, Pf의 명칭에서 추론할 수 있는 행위의 종결을 Pf의 메타의미로도 보기 어렵다. [표 2]에서 보듯이, 행위의 종결 외에도 행위의 발생, 행위의 지속이라는 파생적 의미가 제시된다. 그러므로 행위의 종결은 Pf의 모든 예를 설명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 Pf의 메타의미는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Pf의 메타의미는 행위 적시의 의미로서 정의되어야 한다. 행위 적시란, 행위 사실이 발생했다는 것, 이를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어에서의 Pf 메타의미를 찾는 데 목적을 두었다. 기존 연구는 Pf의 세부적 의미들을 범주화하는데 치중되어 있어, Pf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다룬 Pf의 의미 범주를 살펴보고,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Pf의 경우 행위의 종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행위의 과정 또한 표현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렇지만 행위의 과정을 표현하는 경우에도 결과에 초점이 맞추어진 일련의 과정을 나타내며, 과정의 의미는 사실상 V_{Pf} 와 결합하는 Adv_{Time} 에 의해 결정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로 셀라킨의 주장을 살펴볼 수 있었다. 셀라킨은 러시아어 Pf는 시작, 중간, 과정을 거쳐 특정 경계에 이르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루츠키나 등이 제시한 구체적 일회성 행위와도 결부 지어 볼 수 있지만, 이것이 과정을 통한 경계를 나타내는 Pf의 메타의미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과거에 발생한 단일 행위를 표현할 때 Impf와 Pf가 모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따라 이들의 변별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은 Pf의 메타의미를 제대로 정립할 수 있는 기초적 고찰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Pf는 배경적 전제 가운데서의 특정 행위가 발생했다는 점을 나타낸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징의 Impf와 Pf를 일반 사실 의미와 구체적

사실로 각각 정의하면서, 각각의 의미는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고도 주장하였다. 유사하다는 것은 호환이 되어도 맥락상 오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전제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 정의된 메타의미는 명백히 상이한 것임을 고찰할 수 있었으며, 각각의 V_{Pf}/V_{Impf} 는 서로 호환되어 활용되기도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한 Pf의 구체적 사실 의미가 상당히 모호한 개념이라고 보았으며, 구체적 사실의 표현도 V_{Pf} 자체가 아닌, 동반되는 Adv_{Time} 에 따른 것임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Pf의 의미는 행위가 성립되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행위 적시의 의미로 보아야 함을 주장하였다. 구체적 사실이라는 메타의미는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정의로서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반면, 행위 적시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명확히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보다 명확하게 Pf의 메타의미를 설명한다.

이렇듯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어 상이라는 포괄적 연구 주제 가운데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한 Pf의 의미 범주에 대해 비판적 고찰을 시도하고, 새로운 메타의미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상의 연구 범위가 방대한 만큼 연구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언급한 기존 연구에서의 Impf의 메타의미의 한계 및 이에 따른 새로운 접근도 필요할 것이다. 향후 러시아어 동사 상에 대한 다양한 세부 연구가 지속되기를 기대해 본다.

용어 해석 약어

Adv adverb

Conc concrete

Dur duration

Ind indication

Impf imperfective aspect

Neg negation

Pf perfective aspect

Prep preposition

Term termination

V verb

참고문헌

1. 김천학, 「동사와 상에 관한 유형론적 연구 한국어의 완망상과 비완망상에 대하여」, 『한국어학』 57, 2012.
2. 이기웅, 「러시아어 동사의 상: 문법범주화의 도상성과 역동성 문법 범주화의 도상성과 역동성」,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23, 2006.
3. Добрушина, Е. Р. Меллина, Е. А., Пайар, Д. *Русские приставки: многозначность и семантическое единство: сборник*, Москва: Русские словари, 2001.
4. Кузнецов, С. А. *Большой толковый словарь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Первое издание: СПб.: Норинт, 1998.
5. Лучкина, Н. В. Саямова, В. И., Мирзоева, С. А., Проценко И.Ю., Меликова О. С., Дьяченко С. М. *Виды глагола: учебное пособие и*. Ростов н/Д: Изд-во РостГМУ, 2017.
6. Маслов, Ю. С. "Вид и лекс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в современном русском литературном языке", *Известия Академии наук СССР*. VII-4 1948.
7. Падучева, Е. В. "Вид и лекс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глагола (от лексического значения глагола к его аспектуальной характеристике)." *russian Linguistics*, 14-1, 1990.
8. Падучева, Е. В. "Основные понятия и положения аспектуальной концепции Ю. С. Маслова." *Вестник РГГУ. Серия: Литературоведение. Языкознание. Культурология*, 9-18, 2016.
9. Рассудова, О. П. *Употребление видов глагола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Москва: МГУ, 1968.
10. Шелякин, М. А. *Категория вида и способы действия русского глагола. Теоретические основы*. Таллин: Валгус, 1983.
11. Лента. Ру. URL: <https://lenta.ru>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1. 08. 2023.)
12. Национальный корпус русского языка URL: <https://ruscorpora.ru>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1. 08. 2023.)

Abstract**A Study on the Meta-meaning of the Perfective Aspect
in Russian**

Kim, Na-young
(Kyungpook Natl. University)

This study pointed out the importance of aspects in Russian, and the semantic categories of Pf dealt with in previous studies were reviewed and criticized. In Russian, the contextual effect obtained is different as much as the aspect of the verb is expressed in vocabulary. Nevertheless, existing studies have limitations in explaining the Pf aspect. Even when expressing a process of action, it represents a series of processes focused on the result, and the process's meaning is determined by the Adverb combined with the Pf. In this study, the specific factual meaning of Pf presented in previous studies was considered a fairly ambiguous concept, and it was argued that the expression of specific facts was based on the accompanying Adverbs, not the Pf verb itself. Therefore, this study has focused on elucidating the meta-meaning of the Pf aspect. In addition, it was concretized through a formal logical approach to support the validity of the arguments presented in this study. Therefore, it was argued that the meaning of the Pf should be seen as the meaning emphasizing indication of the occurrence of an action.

Key words : Verbal Aspect, Perfect Aspect, Meta Meaning, Action, Indication

“공간과 시간 속에서 움직이는 몸처럼”

디자인을 수행하기

『러시아 아방가르드의 이론과 실제: 카지미르 말레비치와 그의 학파』 서평
(저자|타티야나 고라체바, 역자|박종소, 감수|김용철, 편집|이은재, 김깃,
디자인|신신, 인현진, 마케팅|프랭크 유통연구소)

정 지 영*

지금까지 그래픽 디자인사는 영국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한 윌리엄 모리스의 미술공예운동(1850년)을 시작으로 프랑스 아르누보-아르데코(1900년 전후), 네덜란드 데-스틸(1910년대), 독일 바우하우스(1919년~30년대), 미국 윌름조형대학(1950년대)으로 이어진다. 미술에서 아방가르드 연구도 프랑스 다다이즘(1910년대)과 초현실주의(1920년대), 그리고 1930년대 이후 초현실주의가 미국으로 옮겨가는 형태로 전개된다. 이러한 흐름을 살펴보면 국내에 소개된 디자인과 미술 신(scence)에서 러시아 아방가르드가 암암리에 외면되었음을 인정하게 된다. 러시아 아방가르드에 관한 자료가 턱없이 부족한 국내에 2020년 러시아에서 출판된 이 책을 불과 1~2년 정도만에 한국에서 읽을 수 있게 되어 놀라움과 감사함을 느낀다.

저자 타티야나 고라체바(Tatyana Vadimovna Goryacheva, 1954년 12월 29일~)는 러시아 트레티야코프 미술관의 20세기 그래픽 부서 학예연구원이자. 이 책은 저자가 지난 20년 동안 러시아 아방가르드를 연구하며 작성한 글을 모은 것이다. 저자는 1부에서 ‘검은 사각형’을 기본 단위로 하는 절대주의 질서를 소개하고 2부에서 이를 바탕으로 절대주의를 구축주의와의 관계 속에서 서술한다. 3부에서는 ‘우노비스’라는 단체 이름으로 흡수되었던 말레비치의 몇몇 제자 이름을 밝히면서 그들의 작품과 인적 관계를 다룬다. 디자이너의 관점으로 본 이 책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았던 ‘수행으로서 디자인이란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를 열어

* 디자이너. 서교인문사회연구실 회원. impossible.sight@gmail.com

주었다.

나는 이 글에서 ‘동사’로서의 디자인을 말하고자 한다. 디자인은 행위(performance)다. 퍼포먼스로서 디자인은 그래픽 요소들이 작업 내에서 행하는 퍼포먼스와 그 요소들에 체계를 부여하고 재구성하는 디자이너의 퍼포먼스로 나눌 수 있다. ‘I. 운동하는 마침표, 검은 사각형’에서는 절대주의 기본 요소인 검은 사각형을 소개하면서 말레비치가 검은 사각형에서 비물질적 수행성을 추구했음을 주장한다. ‘II. 흰 바탕이라는 무대’에서는 절대주의의 바탕이 되었던 흰 공간이 가지는 의미를 다루며 절대주의가 적용된 매체를 통해 디자인과의 접점을 탐구한다. ‘III. 공리적 목적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하기’에서는 절대주의와 구축주의를 대비하여 공리성과 체계를 통한 구축 개념을 소개하고 이 개념이 디자인과 핵심을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IV. “공간과 시간 속에서 움직이는 몸처럼” 수행하는 디자인’에서는 이 책의 만듦새가 절대주의 이념에 몸과 질서를 부여한 결과물임을 증명한다. 마지막으로 ‘V. 니나 코잔, 디자이너는 무엇을 하는가’에서는 저자가 묘사하는 니나 코잔에 대한 평가가 정당한지 비판적으로 되짚어보면서 디자이너의 역할을 재사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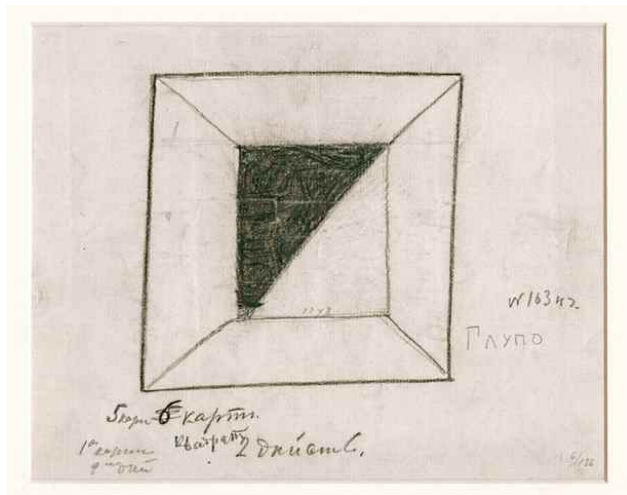
I. 운동하는 마침표, 검은 사각형

검은 사각형이 태어난 곳은 무대였다. 1914년 미래주의 오페라 <태양에 대한 승리>의 리브레토를 재출간하려 계획하던 마티신에게 말레비치는 검은 정사각형 무대막 스케치를 표지로 써달라고 부탁한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지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검은 사각형은 전통 이질화가 아닌 ‘무대막 스케치’ 용도로 탄생했다는 점이다. 이는 검은 사각형이 애초부터 회화로 재현되기 위한 대상이 아님을 보여준다. 오히려 검은 사각형은 무대에서 사용될 ‘디자인’에 가까웠다. 둘째로 말레비치가 검은 사각형을 운동성이 배태된 기본요소로 대했다는 점이다. 이는 검은 사각형 무대막 스케치를 리브레토 표지로 사용하고 싶어 하면서 그가 들었던 이유에서 잘 드러난다.

“검은 정사각형은 모든 가능성의 맹아로서 그 발전 과정에서 무서운 힘을 가진다. 검은 정사각형은 입방체와 구의 시초이며,

이것의 해체는 회화에 놀라운 문화를 선사한다.”(15)

여기서 말레비치가 이미 입방체와 구를 만들어내는 정사각형의 운동성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회화에 끼칠 가능성을 생각했던 것은 당시 그가 회화에 몸담고 있었기에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검은 사각형이 무대막 스케치였다는 사실을 단지 우연으로 치부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더 생각할 수 있을까?



<그림 1> 말레비치. 오페라 <태양에 대한 승리> 무대막 스케치.

검은 정사각형은 캔버스에 납작하게 들러붙어 멈춰있는 표면이 아니었다. 검은 정사각형은 어제의 회화를 응축시킨 마침점이자 내일의 회화로 나아가는 시작점이었다. 말레비치는 전시 도록에 다음과 같은 슬로건을 넣었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을 형태의 영(0, 零) 상태로 만들었고, 무(無)에서 (...) 비대상적 창조로 나아갔다.”(20)¹⁾

이때 ‘비대상’은 대상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을 표

1) 서평의 대상이 되는 책 『러시아 아방가르드의 이론과 실제: 카지미르 말레비치와 그의 학파』을 인용하는 경우, 인용문 끝에 쪽수만 적는다.

현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러나’라고 부정하면서 시작하는 이 슬로건은 저자가 말하듯 분기점으로서 정사각형을 잘 보여준다. 말레비치가 검은 사각형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모든 전통 회화를 그러모아 마침표를 찍음으로써 침묵하게 하고 새로운 창조로 나아가는, 전환을 위한 단절이었다.

말레비치에게는 검은 사각형 자체를 회화로 재현하는 것보다 그것을 그려내는 행위와 의미가 더 중요했을지 모른다. 재미있는 점은 <태양에 대한 승리>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상연되던 1913년 당시 검은 사각형 스케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저자는 “말레비치가 <검은 정사각형>의 탄생을 1913년으로 정할 권리가 있다”(15)고 말한다. 1910년대에 각축을 벌이던 비대상성 예술계 상황을 차치하더라도, 말레비치가 생각했던 검은 사각형이 가진 속성을 생각하면 그것이 물질로서 정말 존재하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말레비치는 1915년 러시아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이 참여한 마지막 미래주의 전시 《0,10》에 <검은 정사각형>을 전시했다. 저자는 “사각형의 각이 정확히 직각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한 기하학의 관점에서 이 그림은 사실 그냥 사각형”이며, 이를 “작가가 부주의한 탓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형태를 창조하고자 하는 원칙과 노력에서 비롯”되었다고 평가한다.(18) 실제로 말레비치가 1924년 베네치아 비엔날레에 출품했던 <검은 정사각형>, <원>, <십자가>는 1915년 작품과 크기와 비율이 달랐다고 한다.(23) 저자는 “원작을 대체할 수 있는 사본처럼 완전히 동일한 그림을 그려달라는 미술관의 입장”이 말레비치에게 충격적이었을 것이라 추정한다.(24) 이는 말레비치의 목적이 원본성을 가진 회화로서 <검은 사각형>을 전시하는데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말레비치의 행동으로 보건대 그가 생각하는 검은 사각형은 오히려 비물질적이고 그것을 그려내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말레비치가 <검은 정사각형>을 똑같이 재현해달라는 미술관의 부탁을 거절하면서 전시실에서 직접 작업을 했다는 기록(24)은 흥미롭다. 그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전시실 현장에서 검은 사각형을 그리는 행위는 오늘날 퍼포먼스의 관점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그가 <검은 사각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을 무의식적으로 반영한다. 이후 비텟스크에서 그는 회화에서

멀어지며 절대주의 강령을 메타적인 철학 이론으로 만드는 데 전념한다.(35) 게르셴존과의 대화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물질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우리가 물질이라 부르는 것은 단지 정신적 움직임이며, 아마도 정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물질의 움직임일지 모른다.”(75 주 171)

이 대화는 물질과 정신의 관계를 운동으로 이해하는 말레비치의 관점을 보여준다. 그의 절대주의 강령은 검은 사각형의 운동에서 비롯되었으며 검은 사각형 또한 절대주의 이념에 따라 운동했다. 말레비치에게 물질과 정신은 서로를 생성하며 운동하는 힘이었고, 검은 사각형은 그것의 현시였다.

II. 흰 바탕이라는 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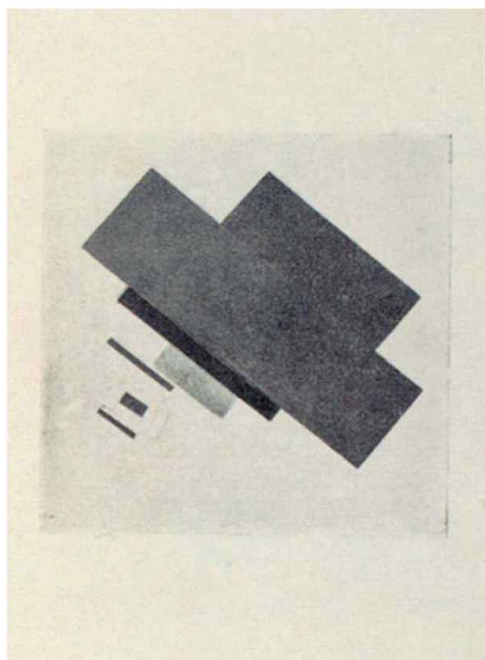
절대주의에서 흰 바탕은 바투 놓인 2차원 평면도, 원근법이 적용되는 3차원 공간도 아니었다. 상상을 뛰어넘는 7차원, 10차원을 가능하게 하는 무한한 공간이었다. 말레비치가 절대주의 에너지 근원으로 밝힌 흰색과 검정을 저자는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흰색은 무한한 공간 ‘무의 황량한 공간’에 대한 메타포이며, 스펙트럼의 모든 색을 포함하는 색이다. 검정은 색의 최소화를 상징하며, 모든 색을 흡수하는 ‘비(非)색’이다.”(21)

관념적 공간이었던 흰 바탕에서 검은 사각형은 어느 방향으로든, 얼마큼의 속도로든 움직일 수 있었다. 흰 바탕에서 요소들은 교차하고 쌓이고 회전하고 부딪혀 해체된다. 에너지(동력)를 가진 검은 사각형은 회전하여 원이 되고, 수직과 수평으로 움직이는 흰색과 검정색 평면은 십자 형태가 된다.(21) 절대주의 체계는 흰 바탕이라는 비대상적 장소를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절대주의 체계를 보여주는 작품, <자동차와 부인. 4차원의 다채로운 입체물> 또한 흰 바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말레비치는 에너지를 가진 요소들을 구조적으로 결합하여 회화 체계를 생물의 몸처럼 만드는 ‘몸(тело)’ 개념을 도입한다. <자동차와 부인>에는 흰 바탕에 사각형들이 왼쪽 상단을 향하는 대각선으로 평행하게 놓여 있다. 화면의 절반 이상을 검은 덩어리

(단괴)가 채우고 있고, 그 아래에 작은 사각형 3개가 주요 덩어리에서 약간 떨어져 있다. 저자는 말레비치에게 단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몸을 이루는 공식이 되었을 것이라 추정한다.(47) 단괴는 응집된 덩어리로, 절대주의 사각형이 가진 에너지와 동력, 양감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말레비치는 단괴를 평면과 입체 공간 모두에 적용했다.



<그림 2> 말레비치. <자동차와 부인. 4차원의 다채로운 입체물>

절대주의가 가진 체계와 그것이 제자들에 의해 로고, 도자기, 건축에 적용된 사례를 떠올리면 말레비치의 개념을 비단 추상회화에 국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진다. 저자는 단괴가 평면에서 장식 요소로서 반복되거나 개별 형태로 도자기와 직물 위에 그려졌다고 서술한다. 단괴는 붙어있는 긴 사각형 조합을 바탕으로 인쇄물(말레비치의 빈농위원 회대회 자료 표지, A. 체이틀린의 배급표)에도 적용되었다.(50) 이는 마치 디자이너들이 오늘날 하나의 그래픽 모티프를 여러 사물에 적용하는 모습과 비슷하다. 흰 바탕이라면 어디든 적용할 수 있었던 절대주의 원칙은 예

술가들이 디자인으로 자유롭게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주었다. 말레비치의 제자 니콜라이 수예틴은 벽, 테이블 상판, 담배케이스 등 어떤 표면에든 적용할 수 있는 장식 디자인에 매진했다.(173) 그는 말레비치가 1935년 세상을 떠난 뒤 스승의 관과 유골함을 디자인하며 검은 사각형을 로고로 활용하기도 했다.(도판 163면)

<자동차와 부인>의 체계가 입체 공간에 구축되면서 사각형 평면은 양감 있는 단괴로 변형되었다. 단괴가 서로 접촉하고 침투하고 적층되는 원리에 따라 크기와 공간이 변주되는 건축 추상이 만들어졌다.(52) 이를 토대로 미래 유토피아 주거 건축 플라니트와 비대상성 절대주의 건축 아르히텍톤이 구성되었다. 흰 바탕은 모든 색을 흡수하고 생성을 기다리는 공간, 생성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절대주의 공간이 구체적으로 어떤 차원으로 구성되는지 설명하지는 않는다. 다만 나는 오늘날 디자인어가 포토샵에서 층층이 만들어내는 레이어가 시작도 끝도 없이 연속되는 모습을 상상한다. 절대주의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가늠할 수 없는 차원의 깊이만큼 무한했다.

III. 공리적 목적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하기

디자인에서 ‘실용성’은 오랫동안 예술과 구별하는 기준이었다. 구글에 ‘디자인 정의’를 검색하면 다음의 결과가 나온다. “건축·공업 제품·복식(服飾)·상업 미술·산업 미술 등 실용적인 목적을 가진 조형 작품의 설계나 도안.” 디자인은 실용적 목적에 따라 설계하는 행위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말레비치가 구상한 플라니트와 아르히텍톤은 실용성이 배제된 예술로서 건축 모델이다. 그러나 말레비치는 플라니트와 아르히텍톤을 설계할 때 공리성을 추구하고 보편적인 건축 원칙을 제시하려 했다.(53 역주99) 말레비치가 주장한 ‘공리성’을 저자는 ‘실용적 용도’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잃지 않으면서 그와 정반대 의미도 포함하는 용어라고 설명한다.(100) 그가 주장하는 공리성은 현실에서가 아닌 유토피아에서의 실용성이다. 유토피아에서 실용적인 것은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이 땅 위에서 있기”²⁾를 요구하지 않는다.(101) 말레비치의 절대주의는 실제 용도를

2) 현실적 유용성을 비유하는 표현이다.

가지며 사회적으로 구현하는 일을 공리성이라 여기던 구축주의를 아카데미즘이라 비판한다.(102) 공리성 개념을 두고 대립하는 모습을 보면 구축주의 성격이 오늘날 디자인과 보다 닮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두 이론은 근본적으로 유사한 핵심을 공유하고 있었다. 저자는 리시츠키가 “절대주의와 구축주의 대립 속에서 진정한 유사성을 발견했다”고 서술한다.(104)

“체계가 구축을 결정한다.” 유딘이 일기에 기록한 말레비치의 말은 절대주의의 핵심이자 구축주의와 유사점이었다. 체계를 형성하고 구축하는 것은 절대주의가 목표하는 기하학주의로 가기 위한 방법론이었다. 저자는 구축주의가 구축물을 만드는 목적에서 기하학을 가장 합목적적인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절대주의와 차이점라고 설명(98)하지만 이어서 둘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103)고 결론짓는다. 이러한 유사성은 구축주의와 가장 날카롭게 대립하는 것처럼 보였던 공리성 개념에도 드러난다. 말레비치는 플라니트 설계도에 다음과 같은 설명을 남겼다.

“미래의 지구인이 플라니트의 모든 면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플라니트의 시스템은 건물을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하며, 청소 장비 없이도 씻겨지고, 각 입체구성물과 층은 높지 않아 계단을 내려가는 것처럼 걸어 다닐 수 있다. 벽은 천장, 바닥과 마찬가지로 난방이 된다.”(53 역주 98)

난방을 고려한 말레비치의 설계는 러시아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설명은 말레비치가 사용자의 입장에서 플라니트를 설계했음을 표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말레비치의 공리성이 비현실 공간에서 철저히 미학적 목표만을 지향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디자인은 체계(system)를 만드는 일이다. “체계가 구축을 결정한다.”는 말레비치의 말을 디자인에 가져온다면 다음과 같다. **체계를 만드는 행위가 디자인 결과물을 결정한다.** 디자이너는 체계를 만들고 체계에 따라 요소들을 배치한다. 여기서 ‘실용적’이라는 말은 다양한 공간과 시간 맥락 속에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디자이너가 만들어내는 체계(질서)가 논리적으로 형성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질서는 소통 가능성을 전제한다. 논리적으로 만든 체계는 그 의도가 수용자에게 전달된다. 이러한 점에서 말레비치가 만들어낸 절대주의 질서는 디자인으로 이행하는 필요조건처럼

느껴진다. 절대주의가 이후 건축가 헤데켈이나 디자이너 리시츠키가 작품에 체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었음은 분명하다.

IV. “공간과 시간 속에서 움직이는 몸처럼” 수행하는 디자인

절대주의 이념을 넓은 의미의 디자인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물론 말레비치가 직접적으로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절대주의 원칙을 제안한 것은 아니다. 그 이유를 저자는 “절대주의 유토피아가 미학적 지향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이며 “말레비치의 유토피아에서 예술은 가장 대담한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토포스(장소)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75) 말레비치에게는 가장 대담한 구상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했다. 실용적 목적에 따라 설계한다는 오늘날 디자인의 정의에 말레비치의 사상을 포섭하려면 절대주의의 목적이 미학보다는 일상이라는 생활세계를 더 우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디자인은 일상에서의 실용성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이 책의 독자라면 ‘책의 디자인이 철저히 실용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나?’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나에게 이 책은 실용적이다. 지금부터 나는 이 책의 디자인이 절대주의 이념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책은 절대주의 이론을 수행하는 디자인의 관점으로 번역한 결과다. 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절대주의 주요 요소인 검은 사각형 모티프를 반복했다는 점이다. 검은 사각형 처리된 요소로는 내지 상단 왼쪽의 책 제목, 오른쪽의 장 제목, 같은 선상에서 본문의 양쪽 끝에 위치한 쪽번호, 본문 중간에 들어가는 도판 지시문, 각주 번호, 본문의 강조 표시가 있다. 내지의 검은 사각형들은 책장을 빠르게 넘길 때 리듬감을 주지만 책을 정독하기 시작하면 강한 대비를 일으켜 시야를 침범한다. 내지 상단의 책 제목과 장 제목, 도판 위치를 표시한 사각형이 반복되면서 눈길을 끌기 때문에, 본문을 읽을 때 앞 뒤 순서의 소재목으로 바로 이동하기가 어렵다. 나는 장 내에서 다음 소재목으로 이동할 때 목차의 도움을 여러 번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이 비실용적이라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디자인은 독자를 아름다운 체계로 안내하며 절대주의를 감각적으로 체험하게 한다.

“공간과 시간 속에서 움직이는 몸처럼, 형태를 담은 페이지의 역동적인 부조처럼 책을 구성하라.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단일한 구조가 새로이 교차하고 새로운 국면이 나타난다.”(143)

말레비치의 카리스마와 급진성을 닮은 붉은 레더텍스 장정은 한눈에 보아도 강렬하다. 표1에 검정 박으로 글자가 찍혀 있다. “러시아 아방가르드의 이론과 실제” 그리고 더 작은 크기의 글자로 “카지미르 말레비치와 그의 학파” 그 아래에 한 줄 정도 여백이 있고 지은이와 옮긴이가 같은 크기의 글자로 줄바꿈 되어 있다. 왼손으로 표지를 열자 책은 왼편으로 새로운 공간을 점유한다. 면지에는 검은 사각형 두 개가 위아래로 늘어서 각각 지은이와 옮긴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넓이가 비슷한 두 사각형이 긴장감을 형성하며 번역서를 장소 삼아 원저자와 번역가의 관계를 은유한다. 오른쪽 면지를 넘기자 오른쪽 반 표제지가 리듬감 있게 따라오고, 표제지를 한 장 더 넘겨보면 차례가 나온다. “차례”와 장 제목은 가운데 정렬로, 나머지 소제목은 왼쪽 정렬로, 쪽번호는 오른쪽 정렬로 되어 있다. 목차는 장별로 구분되어 검은 사각형으로 둘러싸여 있다.

절대주의 세 가지 주요 요소들은 각 장을 구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장 표지 그래픽으로 1장에는 정사각형, 2장에는 원, 3장에는 십자가 형태가 쓰였다. 이는 말레비치가 『비대상성으로서의 세계』 ‘절대주의’ 챕터에서 밝힌 단계를 반영한다. “절대주의의 주요 요소. 정사각형.1913”, “절대주의의 주요 요소. 절대주의 형상들이 유래된 정사각형 다음으로 주요한 요소. 1913”(원), “절대주의의 세 번째 주요 요소. 1913”(십자가)(23) 장표지를 장식하는 그래픽은 도판의 말레비치 작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1장의 정사각형은 완전한 정사각형이 아니며 23면의 도판 1-12처럼 아래쪽에 굴곡이 있다. 2장의 원은 도판 1-13처럼 오른쪽 상단으로 치우쳐 배치했다. 3장의 십자가 또한 붓이 지나간 몸을 드러내듯 평행하지 않은 선분의 기울기가 도판 1-14의 모습과 흡사하다.



<그림 3> 출처: 지하출판소 페이스북 페이지.

뒤표지는 절대주의를 가장 충실하게 그래픽으로 수행하는 부분이다. 표4의 그래픽은 본문에 배치한 사각형 모음으로 책 전반의 체계를 한눈에 보여준다. 이 그래픽은 언뜻 평면처럼 보이지만 페이지가 쌓이면서 만들어내는 지층의 모음이다. 예를 들면 왼쪽 상단의 정사각형은 그저 하나의 정사각형 평면이 아닌 왼쪽 페이지 번호들의 집합을 나타낸다. 중앙의 직사각형은 본문에서 책 제목과 장 제목을 지시하는 사각형들의 집합이다. 오른쪽 상단의 정사각형 또한 오른쪽 페이지 번호들의 집합이다. 그 아래에 가로로 가장 긴 직사각형은 91페이지에 직렬로 배치된 도판 지시문에 176페이지, 212페이지의 도판 지시문 등이 중첩되어 만들어졌다. 독자가 책을 펼쳐 읽을 때 페이지는 날장으로 포물선 운동을 하지만 책이 덮여 있을 때 모든 페이지는 중첩된다. 표4는 책을 덮은 시점에 책을 다시 뒤에서 앞으로 투사한다. 내지의 흰 바탕에서 본문을 가로지르며 부유하던 사각형들이 표4의 붉은 표면에 자신의 모습을 내비친다. 붉은 표면은 2차원 평면이 아닌 내지 두께만큼 깊이를 가지는 절대주의 공간으로 변모한다. 이제 테이블 위에 놓인 책은 사각형을 담은 페이지의 역동적인 부조로 변신한다.

디자인된 부분은 여러 관점에서 실용적이다. 내지로 사용된 아도니스 러프가 조명 빛을 반사하지 않고 눈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이 책의 디자인은 실용적이다. 도판 모음으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작은 도판 썸네일이 본문을 읽을 때 흐름을 끊지 않는다는 점에서, 각주 내용을

펼친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의 디자인은 실용적이다. 그러나 사용하기에 편리하다는 좁은 의미의 실용성은 언제나 특정 공간과 시간의 맥락 안에서만 유효하다. 앞에서 실용적이라고 판단한 점이 다른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실용적이지 않을 수 있다. 같은 조건이라도 아도니스 러프가 아주 희지 않기 때문에, 어떤 독자에게는 도판 모음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도판 썸네일이 너무 작기 때문에 실용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디자인이 무엇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목적을 정하고 그것에 따라 체계를 만들어 구축하는 행위라면 실용성이라는 판단 기준도 그에 따라야 한다. 디자인이 무엇을 담고 있으며 디자인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실용적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책의 디자인이 실용적인 이유는 말레비치의 사상을 담으면서 그것을 체험하도록 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V. 니나 코간, 디자인은 무엇을 하는가

디자인이 목적에 따라 체계를 만드는 행위고 디자이너가 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니나 코간을 다시 바라보고자 한다. 책의 마무리 부분에서 저자가 인용하는 니나 코간에 대한 묘사는 독자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남긴다. 저자는 니나 코간을 “말레비치와 홀레브니코프를 흠모하면서 두 사람의 이론이 가진 본질적 차이를 인식하지는 못”했다고 평가한다.(244) 저자는 코간에 대한 미투리치와 하르지에프의 묘사를 인용한다. 미투리치는 코간을 “예술 관련 일과 문제에서 가장 가까운 비서”(249)이며 “철학에 대해 광적인 우둔한 여자”(255)라 묘사한다. 하르지에프는 코간에 대해 “그녀는 축복받은 자의 미소, 즉 광인, 바보 성자(유로지비)의 미소를 가지고 있었으나 총체적으로 성녀이다. 이타적이고 사리사욕이 없는 자, 가여운 영혼, 뼈쩍 말랐으며, 마치 미친 사람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일을 처리했다.”고 서술한다.(256) 이러한 묘사는 코간을 이해력이 부족하고 다른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부차적 인물처럼 보이게 한다. 실제로 코간은 1920년대 말부터 절대주의 기법을 버리고 사실주의 화법을 구사했다.(238) 그러나 이것이 그가 절대주의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절대주의 화법을 구사하지 못했음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코간이 연출한 <절대주의 발레>는 그가

절대주의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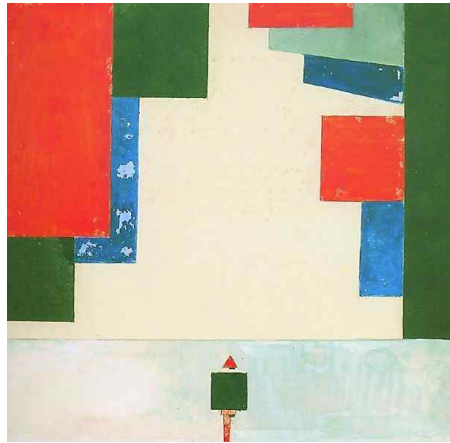
<그림 4> 니나 코간(1889-1942).

니나 코간은 <절대주의 발레>를 ‘생생한 그림’이라 불렀다.(231) 이러한 명명은 코간이 공연에 참여한 배우들을 조형 요소로, 무대를 이젤화의 캔버스처럼 인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저자는 코간의 설명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기하학적 도형을 들고서 발레의 연출가가 규정한 절대주의적 형태의 논리적인 변형 체계에 따라 엄격하게 이동했다. ‘살아있는 그림’은 절대주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이것은 전통적인 ‘살아있는 그림’에서처럼 살아있는 배우들이 참여해서가 아니라, 절대주의 이젤화를 움직이게 하고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절대주의적 형태의 운동에 관한 이론과 (...) 조형적 원리를 실제로 구현했기 때문이다.”(232)

<절대주의 발레>는 무대에서 탄생했지만 무대에서 수행한 적 없던 검은 사각형을 다시 무대로 소환했다. 말레비치가 정신과 물질의 관계를 운동으로 파악하고, 절대주의 체계에서 움직이는 에너지를 가진 사각형을 기본 요소로 삼았음을 떠올리면 코간이 수행성을 보여주는 적합한 매체로 ‘공연’을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을 것이다. 저자는 코간이 ‘발레’라는 단어를 통해 조형적이고 역동적인 의미를 강조하려 했다고 밝힌다.(231) 코간이 강조하려고 했던 점은 그래픽 디자인 요소들의 수행성과 일맥상통한

다. 그는 공연을 통해 이젤화에서 간접적으로만 보여줄 수 있었던 요소들의 수행성을 무대로 옮겨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이 공연을 연출하면서 코간은 대중에게 난해하게 느껴지던 절대주의 개념을 발레라는 형식으로 전달하려 했다고 저자는 서술한다.(231) 이러한 점에서 제목 <절대주의 발레>는 코간의 의도를 담백하게 드러낸다. 새로운 자신만의 것을 만들어내기보다 기존의 것을 적합한 다른 언어로 번역해내는 코간의 태도는 디자인의 태도와 맞닿아 있다.



<그림 5> 니나 코간. <절대주의 발레. 무대 장식 디자인> (1920).

코간은 절대주의를 충실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저자는 시간이 흐른 뒤 말레비치의 시나리오 『회화와 건축의 문제』에서 코간의 이해가 증명된다고 밝힌다.(232) 그러나 우노비스 연감에 실린 이 공연의 해설이 “비텟스크에서 가장 급진적인 무대예술 실험이었던” 의의를 담지 못했으며, “그저 평범한 해설의 어조”로 남겨졌다.(233) 이러한 연유로 코간의 <절대주의 발레>는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 저자는 코간이 “뛰어난 예술가는 아니었지만 다른 사람의 사상을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평가한다.(235) 그러나 코간이 이젤화를 무대로 옮길 때 아무리 그것을 ‘있는 그대로’ 옮긴다고 해도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주의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은 창조와 다르지 않다. 말레비치의 조형 언어를 이해하고, 해석하여 무대 위에서 몸짓언

어로 번역하는 작업으로 판단하건대, 코간에게는 원작의 체계를 파악하고 자신의 체계로 번역해 내는 역량이 있었을 것이다. 디자인을 수행할 때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목적을 설정해야 하며, 목적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이해해야 한다. 니나 코간이 연출한 <절대주의 발레>가 말레비치의 절대주의를 충실하게 반영하여 발레 형식에 따라 이를 풀어냈다면, 코간이 성공적인 디자인을 수행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코간의 출판 작업 또한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이론을 충실히 이해하고 실천에 옮긴 행위로 바라볼 수 있다. 저자의 서술에 따르면 코간은 말레비치 이론과 홀레브니코프 이론을 상호 보완적으로 여기며 둘의 연합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247) 저자는 이에 대해 “말레비치가 문학 분야에서 창작적 지향이 같았던 것은 홀레브니코프가 아닌 크루초니호였”기 때문에 “전혀 정당성이 없는 계획이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열성적이었던 니나 코간이 관련 없어 보이는 두 이론의 공통점을 발견했을 가능성도 있다. 니나 코간이 주목했던 말레비치와 홀레브니코프가 지금 각각 러시아의 회화와 문학에서 거장으로 받는 평가를 고려한다면, 적어도 코간에게 예술적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이 존재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저자가 인용한 주변 인물들의 부정적 평가에도 코간이 수행한 일을 들여다보면 원 콘텐츠의 체계를 이해하고 새로운 체계로 번역하는 디자이너로서 코간을 발견할 수 있다. 절대주의 개념을 성실하게 이해하고 어려운 현실적 상황에도 홀레브니코프의 작품을 출판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했던 인물로 코간을 재평가한다면 우리는 러시아 아방가르드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될지 모른다.

경북대학교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소 규정

제정 2016. 11. 3. 규정 제2061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러시아와 유라시아 지역 사회와 문화 연구를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여, 한국과 해당 지역의 발전적 미래를 모색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북대학교 러시아·유라시아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러시아·유라시아 지역 문화와 사회 전반에 관한 연구와 조사활동
2. 연구 자료의 수집, 분석 및 정리
3. 연구발표회, 학술토론회, 세미나 및 공개강연회의 개최
4. 연구논문집 및 연구자료집의 간행
5. 학술도서의 번역 및 출판
6. 국제적인 학술교류
7. 특수연구 계획에 대한 연구비 보조
8.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조직 및 구성

제3조(조직) 연구소에는 운영위원회, 학술위원회, 편집위원회를 위원회를 둔다.

제4조(구성)

- ① 연구소에는 소장 1인과 부소장 1인을 둔다.

- ② 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연구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③ 부소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그 직무는 소장을 보좌한다.
- ④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소장과 부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연구원 등)

- ① 연구소에는 겸임연구원, 박사후연구원, 전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 ② 겸임연구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한다.
- ③ 박사후연구원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④ 전임연구원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⑤ 객원연구원은 국내외 전문가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 ⑥ 보조연구원은 연구소 사업에 참여하는 석사, 박사과정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6조(구성 및 회의)

-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소장, 부소장 및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및 운영
2. 예산 및 결산
3. 규정의 개정
4.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장 학술위원회

제8조(구성 및 회의)

- ① 연구소의 학술 관련 기획 및 국내외 교류를 담당하기 위해 학술위원회를 둔다.
- ② 학술위원회는 소장, 부소장 및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④ 학술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심의사항) 학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내외 학술 네트워크 구축
2. 출판, 저술 지원, 학술대회 개최
3. 교과목 관련 사항
4. 기타 연구소 학술활동과 관련된 사항

제5장 편집위원회

제10조(구성 및 회의)

- ① 연구소 정기 학술지의 기획, 편집, 출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편집간사로 구성한다.
- ③ 편집위원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은 본교 및 타교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소장이 위촉한다.
- ④ 편집간사는 박사과정 수료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연구자로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소장이 위촉한다.
- ⑤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편집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 편집위원회의 독립성은 보장되며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6장 재정

제11조 (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국고보조금, 학교보조금, 각종연구비,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2조 (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에 준한다.

제7장 보칙

제13조(운영세칙)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규정 제206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2년 1월 26일 개정 및 보완

『러시아·유라시아 연구』 편집규정

제정 2019. 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소의 학술지인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의 편집 및 논문의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게재내용) 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는 글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논문
2. 비평논문, 논단
3. 서평, 서평논문
4. 기타 연구소의 연구 활동에 부합되는 글

제3조(학술지의 발행) 학술지의 간행은 연 2회로 한다. 발행일은 4월 30일, 10월 31일로 한다.

제4조(투고)

1. 다른 출판부에 이미 발표된 글은 본 학술지에 게재될 수 없다. 단 외국논문의 경우 원게재지를 명기하고 게재할 수 있다.
2. 투고논문의 세부 지침은 별도의 투고지침에 따르며 투고지침의 제·개정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5조(저자의 표시)

1. 저자의 영문이름과 소속을 명시한다.
2. 공동저자의 경우, 저자별 공헌도에 따라 나열하고 소속을 명시한다.

제6조(편집위원회)

1. 학술지의 기획과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2. 편집위원회는 7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편집위원은 국내외 전문연구자 중에서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편집위원회의 임무)

1. 편집위원회는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 형식·분야·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1차 심사를 한다.
2. 2차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3.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논문의 최종적인 게재여부를 편집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8조(심사위원)

1. 심사위원은 해당분야 전문 학자 3인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2. 심사위원의 위촉과 심사과정은 비공개로 한다.
3.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심사기준)

1. 각 심사위원들은 투고논문들에 대해 창의성, 완성도, 시의성, 투고 규정의 준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으로 평가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판정에 근거하여 최종 심사 결과를 필자들에게 통보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보고서를 300자 이상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분류하여 판정한다. 4단계 심사 분류의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다.

게재 가	내용과 형식에 있어 논문의 필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단순 오타는 평가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수정 후 게재	내용과 형식에 있어 논지전개에는 무리가 없으나 부분적인 재고나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 투고자는 심사자의 수정요구사항에 대해 이 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견이 없는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제공하 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수정사항을 요약하여 수정한 논문과 함께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제출한 논문과 수정사항서는 편집위원회가 검토·확인하여 게재한다.
수정 후 재심	논문의 기본방향과 논지전개에 무리가 있어 근본적인 재고나 수정 이 요구되는 경우. 이 판정을 받은 논문은 해당호에 게재할 수 없 으며, 재심은 다음 호로 이월되며 투고자는 이견서를 제출할 수 있 다. 다음 호에 재투고된 수정 논문은 재심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 정한다.
게재 불가	논문의 내용과 형식이 학술논문의 기본적인 기준에 현격히 미달하 거나 본 학회지의 기본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게재불가 판정 을 받은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5. 심사위원의 3인의 심사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아래 표를 따른다.

심사위원 A	심사위원 B	심사위원 C	판정
가	가	가	게재 가
가	가	수정	수정 후 게재
가	가	불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수정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수정	수정	수정 후 게재
수정	수정	불가	재심
불가	불가	가	게재 불가
불가	불가	불가	게재 불가
불가	불가	수정	게재 불가

제10조(판정)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심사논문의 게재 여부를 편
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판정한다.

제11조(이의제기) 투고자는 논문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 시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 논문심사서, 이의제기문을 검토하고 재심할 수 있다.

제12조 판권 및 저작권 양도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에 발표되는 논문의 판권 및 디지털 정보 권한을 포함하는 모든 소유권은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소가 갖는다.

제13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를 따른다.

투고지침

제정 2019. 03

1. 『러시아·유라시아 연구』 투고지침은 『러시아·유라시아 연구』 편집 규정 제4조에 근거한다.
2. 투고에 관한 일반사항
 - 1) <한글97> 이상의 버전 또는 <MS Word 2003> 이상의 버전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의 분량으로 작성한다.
 - 3) 투고는 경북대학교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소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ires-journal.or.kr) 또는 편집위원회 전자우편(iresknu@gmail.com)으로 논문 파일을 첨부하여 보낸다.
 - 4) 논문 작성 언어는 한국어나 영어 또는 러시아어로 한다.
 - 5) 투고 논문은 아래의 형식을 갖추야 한다.
 - (1) 논문 제목
 - (2) 저자 이름
 - ① 저자의 소속과 전자우편 주소는 논문 1쪽에 * 각주로 표기한다.
 - ② 공동연구 논문일 경우 주저자를 제일 앞에 명기한다.
 - (3) 국문 초록(300자 내외)과 주제어(5-6개 내외)
 - (4) 본문
 - (5) 참고문헌
 - (6) 영문초록(200단어 내외)과 주제어(Key word, 5-6개 내외)
 - (7) 서평은 각주를 포함하여 원고지 30매 내외로 한다.
 - (8) 학술지 발행은 매년 4월 30일과 10월 31일로 하며, 원고 마감일은 3월 31일과 9월 30일로 한다.
3. 원고작성 시 유의사항

1) 참고문헌: “MLA ” 양식을 따른다.(최근 8판)

(1) 참고문헌은 단행본→논문, 국내서→국외서(러시아→서구)순으로 배열하고, 알파벳순으로 작성한다.

(2) 국내서와 중국·일본 자료의 경우 단행본은 쌍꺼쇠(『』)로 표시하고, 논문과 편명의 경우는 홑꺼쇠(「」)로 표시한다.

러시아어 포함 서구자료의 경우, 단행본은 서명만 이탤릭 활자로 표시하고, 논문의 경우에는 겹따옴표(“ ”)로 표시한다. 석·박사 학위논문은 ‘논문’으로 간주다.

(3) 참고문헌 목록은 다음 예시에 따라 작성한다.

① 단행본

저자명(번역자명), 『서명』 판수, 출판지: 출판사, 발행연도.

예) 도스토예프스키(이대우 옮김), 『까라마조프 씨네 형제들 (상)』, 열린책들, 2009.

Мальцев Ю. Бунин: 1870-1953, Посев, 1994.

② 논문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권호, 발행기관, 발행년도.

예) 이강은, 「막심 고리키 초기 단편의 “당당한 인간 재고」,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44, 2013.

Емеренко И. “к вопросу о женском идеале в эстетике А. Чехова”, *Славянские языки в свете культуры*, М. 2006.

③ 인터넷(한글 논문일 경우 ‘Дата обращение’를 ‘검색일’로 변경)

예) «Корё Сарам» - записки о корейцах. URL:

<https://koryo-saram.ru/category/literature>. Дата обращения: 12.10.2019.

2) 인용

(1) 사료(자료)인용은 한글 번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원문을 병기할 수 있다.

(2) 긴 인용문은 본문 위 아래로 한 줄을 띄우고 구분이 되도록 제시한다. 인용문의 글자크기는 본문보다 한 포인트 줄이고, 왼쪽 여백도 한 칸 들여쓰기로 한다.

- (3) 간단한 인용문을 문장 내에 인용할 경우 겹따옴표(“ ”) 로 처리한다.
겹따옴표(“ ”)로 묶여진 인용문에는 마침표(.)를 쓰지 않는다.
- (4) 인용문의 출처는 각주로 처리한다.
- (5) 직접인용은 쪽수만 명기하고, 간접인용은 반드시 ‘참조’를 붙인다. 재
인용의 경우는 출전을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 (6) 본문 내 용어의 강조는 홑따옴표(‘ ’)를 사용한다.

3) 각주

- (1) 각주의 번호는 논문 전편을 통해 일련번호로 매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각주 문헌 표기의 순서와 부호는 참고문헌 규정 (1), (2)와 동일한 규
정을 적용한다.
- (3) 각주는 다음 예시에 따라 작성한다.

① 단행본

저자명(번역자명), 『서명』 판수 (출판지: 출판사, 발행연도), 쪽수.
예) 도스토예프스키(이대우 옮김), 『까라마조프 씨네 형제들 (상)』
(열린책들, 2009), 237쪽.

Мальцев Ю. Бунин: 1870-1953 (Посев, 1994), С. 328.

② 논문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권호 (발행기관, 발행연도), 쪽수.
예) 이강은, 「막심 고리키 초기 단편의 “당당한 인간” 재고,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44 (2013), 217쪽.

Емеренко И. “к вопросу о женском идеале в эстетике А.
Чехова”, *Славянские языки в свете культуры* (М.,
2006), С. 323.

- ③ 각주를 달고자 하는 문장 뒤 [] 표시 안에 참고문헌 번호 및 쪽수
표시도 공히 허용한다.

예) [7, С. 26]

- ④ 인터넷(한글 논문일 경우 ‘дата обращения’를 ‘검색일’로 변경)

예) «Корё Сарам» - записки о корейцах. URL:
<https://koryo-saram.ru/category/literature>(дата обращения:
12.10.2019).

(4) 각주에서, 앞에서 언급한 동일한 자료를 다시 인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생략하여 표기할 수 있다.

① 동양서

저자명, 앞의 논문(앞의 책), 발행연도, 쪽수

예) 도스토예프스키(이대우 옮김), 앞의 책, 2009, 237쪽.

② 서양서

Ibid, op, cit 등을 사용할 수 있다.

4) 표와 그림

표와 그림은 <표 1>, <표 2> ... <그림 1>, <그림 2>... 순으로 제시한다.

5) 본문의 글자모양과 문단모양은 다음과 같다.

(1) 편집 용지: 사용자 정의로 폭 168mm, 길이 240mm로 정의한다. 용지 여백은 위쪽 22mm, 아래쪽 20mm, 머리말 15mm, 꼬리말 0mm, 왼쪽 26mm, 오른쪽 26mm, 제본 0mm으로 한다.

(2) 본문과 요약문: 한국어는 대표-휴먼명조(크기 10, 장평 95%), 러시아어와 영어는 기호-Times New Roman(크기 10, 장평 100%), 줄 간격 165%, 들여쓰기 10pt.

(3) 인용문: 한국어는 대표-휴먼명조(크기 9.5, 장평 95%), 러시아어와 영어는 기호-Times New Roman(크기 9.5, 장평 100%), 줄 간격 140%, 좌우여백 26pt, 들여쓰기 10pt.

(4) 참고문헌: 한글은 대표-휴먼명조(크기 10, 장평 95%), 러시아어와 영어는 기호-Times New Roman(크기 10, 장평 100%), 줄 간격 165%.

(5) 각주: 한글은 대표-휴먼명조 (크기 9, 장평 100%), 러시아어와 영어는 기호-Times New Roman(크기 9, 장평 100%), 줄 간격 130%, 좌우여백 0pt, 첫 줄 내어쓰기 15pt. 각주 번호는 괄호(예:1), 2), 3)...)로 표시.

(6) 페이지 표시는 하지 않는다.

(7) 제목

논문제목: 한글은 대표-휴먼명조, 러시아어와 영어는 기호-Times New Roman, 크기 13, 장평 95%, 자간 0%, 중앙정렬

소제목: 한글은 대표-휴먼명조, 러시아어와 영어는 기호-Times New Roman, 크기 10, 장평 95%, 자간 0%, 중앙정렬

ТРЕБОВАНИЯ РЕДАКЦИИ / ФОРМАТ СТАТЬИ

1. Возмож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корейский, английские и славянские языки для написания статьи.
2. Объем статьи более или менее 15 страниц по установленному формату.
3. Внизу первой страницы следует указать имя автора, место работы, адрес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ы (в примечании с знаком *)
4. При соавторстве следует указать имя первого автора, потом второго,... и. т. д.
5. Ссылка приводится внизу на каждой странице (не в конце статьи)
6. Статья должна быть набрана в программе 'MS-WORD'
- ① Шрифт: Times New Roman
- ② Размер шрифта в тексте 10, размер шрифта в цитате текста и в примечании 9.
- ③ См. экземпляр - формат статьи по требованиям редакции.
7. К статье должны быть предложены резюме на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е: объем резюме до 1 страниц, куда входят название статьи и имя автора, и место работы (принадлежность в скобках. См. экземпляр) и пять ключевых слов на англи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8. Статьи должны высланы в редакцию журнала института iresknu@gmail.com
9. Журнал издается 2 раза в год, 30-го апреля и 31-го октября.
Статьи принимаются в любое время. Однако следует иметь в виду, что 31-го марта и 30-го сентября заканчивается срок подачи статьи для выпуска журнала.

ЛИТЕРАТУРА

1. Вся литература, использованная в тексте статьи, должна быть приведена в списке в конце статьи.
2. Список литературы должны быть выстроены по алфавитному порядку имен авторов.
3. Список литературы составляется следующим образом: автор, название литературы, издательство. год издания.

Например:

① Монография

Мальцев Ю. *Бунин: 1870-1953*, Посев, 1994.

② Журнал, Сборник статей

Емеренко И. “К вопросу о женском идеале в эстетике А. Чехова”, *Славянские языки в свете культуры*, М. 2006.

③ Интернет, Сайты.

«Корё Сарам» - записки о корейцах. URL:
<https://koryo-saram.ru/category/literature>. Дата обращения: 12.10.2019.

④ Ссылки - (приводятся примечания внизу на каждой странице с
очередными номерами по арабской цифре)

- 1) Монография: Мальцев Ю. *Бунин: 1870-1953* (Посев, 1994), С.328.
- 2) Сборник статей, или журнал: Емеренко И. “к вопросу о женском идеале в эстетике А.Чехова”, *Славянские языки в свете культуры* (М., 2006), С.323.
- 3) Сайты в интернете: «Корё Сарам» - записки о корейцах. URL:
<https://koryo-saram.ru/category/literature> (дата обращения: 12.10.2019).

연구윤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북대학교 러시아·유라시아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칭함)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연구소 내의 연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연구윤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거한다.

제4조 용어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칭함)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혹은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와 연구 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6)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7)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연구소에 알린 자를 말한다.
 3.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연구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 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본 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6. ‘판정’이라 함은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5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1. 제보자는 본 연구소 편집위원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6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1.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연구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2.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제4조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4) 예비조사는 연구지원 부서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1. 예비조사 결과는 연구소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편집위원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2.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의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8조 본 조사 착수 및 기간

1. 본 조사는 연구소장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칭함)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3. 조사위원회가 제 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소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1. 조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며, 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 및 임명한 총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사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한다.
2.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

켜서는 아니 된다.

3.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1.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2.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2.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구소장의 승인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 본 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1.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칭함)를 작성하여 연구소장에게 제출한다.
2.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 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과제에서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6) 조사위원 명단

제14조 판정

1. 조사위원회는 연구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2.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5조 결과에 대한 조치 및 기록의 공개

1. 부정행위가 확인된 논문에 대해서는 e저널을 포함하여 본 학술지 논문 목록에서 삭제하고 이를 본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는 한편, 해당 논문 투고자의 소속기관 및 한국연구재단에도 통보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 투고자에 대해 부정행위가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3년간 본 학술지 투고를 금지한다.
2.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1.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2. 이 규정은 2018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러시아·유라시아 연구 제12호

인쇄일: 2024년 10월 28일

발행일: 2024년 10월 31일

발행인: 서광진

편집인: 김민아

발행처: 경북대학교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소

41566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인쇄처: 도서출판 책과세계
